

교과서연구

제 38 호

2002. 6

차 례

- 발행인 / 김효수
- 편집기획위원장 / 김성환
- 위원 / 김만근, 김정호, 박삼서,
송정현, 최봉규
- 간사 / 최해홍

권두언

교육의 근본을 다시 생각하자/김성환 4

특 집

고등 학교 새 교과서의 특징 8

국어 / 박삼서, 도덕 / 이우용, 사회 / 박제윤, 수학 / 임광수,
과학 / 김현수, 기술·가정 / 윤기숙, 체육 / 최성식,
음악 / 김대원, 미술 / 박은영, 영어 / 황인기

현장 교육

사회과 탐구 『경상북도의 생활』 활용 사례/이규호 47

논 단

교과서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김정호 54

일본의 새 교육과정 시행과 주 5일제/김용만 59

나의 제언

실업계 전문 교과서 질 개선을 위한 편찬 패러다임의 전환
/허 강 64

연 재

대만의 교육 개혁과 교과서 정책/안 천 70

* 『교과서연구』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교과서연구』에 게재된 내용은 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편수 행정의 발자취

과학 교과서와 탐구 생활의 공동 작업/문찬호	75
미술 교과서의 한국화 그리기 교육/이태식	80
1종 도서로 바뀐 상업계 교과서/송병선	86
교과서 개발의 전환적 모색/이종국	91

단 상

교과서와 공교육 살리기/임철순	98
교과서 유감(有感)/최봉규	102

연구 과제 소개

교과서 심의·채택 제도 국제 비교 연구	106
전자 교과서 설계 지침 및 모형 개발 연구(컴퓨터·영어 교과 중심) ...	107

자 료

제 7차 교육과정의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	108
교과용 도서 보상금 지급 기준	118

● 원고 모집	97
● 연구재단 소식	119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120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	121

* 표지 글씨 : 신두영
* 표지 디자인 : 대한교과서(주) 편집팀

새 세기가 시작되면서 ‘근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s)’는 화두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물질적인 삶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고,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문화 지체(cultural lag) 현상과 사회의 각종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근본을 다시 생각하여 제자리를 찾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다.

월 두 번

교육의 근본을 다시 생각하자

우리의 교육이 그 동안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양적, 질적인 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교육도 그 동안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다른 사회 분야에 비하여 발전의 속도가 둔화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견인차는커녕 국가 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점차 고조되고 있어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는 소리가 안팎에서 들려오고 있다.

교육은 모든 국민이 관련되어 있고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진 당사자들의 다양한 주장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문제들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칼로 무 자르듯 명쾌한 논리와 처방이 불가능하고 얽힌 실타래 풀듯 지혜와 인내를 발휘해야 할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 교육 개혁 방안이 수립되고, 그 실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들이 학교 현장과는 동

떨어진 데서부터 출발함으로써 교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험을 여러 차례 겪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 개혁의 성공 여부는 학교 현장의 실정에 얼마나 맞는 구체적 계획과 실천 방안이 수립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복잡한 교육 문제의 진단과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우리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학교 제자리 찾기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에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할 학교는 부차적인 지위로 떨어지고 사교육 기관이 주인 노릇을 한다는 점이다. 최근 ‘공교육의 위기’나 ‘교실 붕괴’라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매우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은 누구든 잘 안다. 이렇게 된 것은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빈약한 투자와 교원들의 주인 의식 부족이 중요한 원인이 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정부의 잘못된 제도와 정책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학교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해서는 안 되고 정규 교육과정만 운영하라는 엄명을 내려놓고, 필요한 것은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의 시책을 내놓았다. 대학 입시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우리 사회의 특이한 문화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풍조를 더욱 고조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공부는 사설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잠자고 쉬는 곳으로 전락하였다. 사설 학원에서는 학교의 정

규 교육과정보다 1~2개월 먼저 가르치고, 밤 12시를 넘어서까지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의 수업에 흥미를 잃고 교실은 오전 내내 졸음에 허덕이는 학생들로 가득차게 되었다.

교육 정책 당국에서는 학교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충시키는 동시에 사설 학원에 대한 대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사설 학원은 재학생이 아닌 졸업생들을 주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재학생의 경우에는 특정 교과나 특수 분야의 보충·심화에 국한시켜야 한다. 그리고 밤 10시 이후의 수업은 금지시켜야 한다. 자유 시장 체제에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야 하고, 규제는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교육 문제이고 규제 완화 차원이 아니라 청소년 선도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교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제기되는 것은 학교 경영의 자율적 운영에 관련된 것들이다. 교육은 원천적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활동이다.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똑같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외부의 지나친 간섭이나 획일적인 통제는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시대적 요청과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발맞추어 학교 단위 책임경영제(school site management)를 꼭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교육 행정 기관이 가지고 있던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재정 및 인사상의 권한을 단위 학교에 위임하여 그 결정이 개별 학교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자율 경영케 하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원 제자리 찾기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 개혁을 추진한다는 이름 아래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을 교육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 일부 극소수의 사례에 불과한 촛지 문제를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을 동원하여 마치 교원들이 부정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침소봉대하였고, 교육 경력이 많은 교사들을 무능하고 쓸모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면서 경제 논리를 동원하여 원로 교사 1명의 봉급이면 젊은 교사 2.8명을 쓸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교원들은 자존심에 결정적인 상처를 입었으며, 경험과 경륜을 활용한 학생의 심성 개발이나 생활 지도는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었다. 더욱이 나이 많고 무능하다며 퇴출시킨 초등 교원들을 기간제 교사로 다시 교단에 불러들이는, 마치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하였다.

교육자는 단순 기능인이 아니다. 초등 학교에서 영어 회화나 컴퓨터만 잘 한다고 우수한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상은 인격적으로 아동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지·덕·체를 겸비하고 열과 성을 다하는 그런 교사이다. 자신보다 더 훌륭한 제자를 기르는 데 보람을 찾고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교육자들에

게 위로와 격려는 보내지는 못할망정 실망과 허탈감을 주는 정책이나 사회 분위기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또한,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동시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교과 전용 교실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교사들이 자기의 교실을 가지고 전공 교과 교육에 필요한 각종 교육 기기와 교육 자료를 자기 교실에 정리, 비치하여 풍부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중등 학교에서의 교육은 학생들이 학급별로 교실에 고정되어 있고 교사는 학생들이 속한 학급에 이동하면서 수업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비효율적이

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단시간에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각 학교에 정보화 업무와 수업을 지원할 조교를 두어 첨단 기자재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공급을 비롯한 효율적인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교육 정책 당국은 상처입은 교원들의 자존심을 치유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제도를 내실화해야 할 것이다. ‘교원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

『교원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
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원이 교육 개혁의 주체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육 활동에 진력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교실과 학교는 바람직한 모습을 되찾게 될 것이다.

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명제임을 명심하여, ‘말이 아닌 실천’이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이 교육 개혁의 주체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육 활동에 진력할 수 있을 때, 학생들로부터는 존경을 받고 학부모로부터는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의 교실과 학교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모습을 되찾게 될 것이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자리 찾기


학교는 본질적으로 공부하는 곳이고, 공부의 핵심은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의 문제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 개혁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제도나 정책만을 크게 다루고 본질적인 문제인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거나 무시해 버린 경우가 너무 많았다.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주춧돌이다. 교육 과정에 의하여 학생들이 어떤 지식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배워야 하고, 교사는 어느 정도의 분량을 지도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교과목의 내용이 교과서로 편찬되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 내용 습득과 함께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21 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한 제 7 차 교육과정이 2000년부터 학교 급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새 교육 과정의 정신과 목표가 구현되기 위해 필요한 여건이 아직도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교육과정 따로, 교실 따로’라는 시행착오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와 관련된 정책을 논의할 때마다 값

싸고 질 좋은 교과서를 강조해 왔다. 언뜻 듣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교과서는 양립할 수 없는 두 마리의 토끼와 같다. 두 마리를 동시에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경험이다. 이제 교과서도 우리의 수준에 걸맞게 충분한 개발 기간과 여건을 보장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수·학습 자료가 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1년 또는 한 학기 동안 사용할 교과서의 정가가 주간 잡지의 값보다 싸다 보니 학생들이 교과서 알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교사는 교수·학습시 활용도 잘 하지 않고 참고서에만 의존하는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또, 교과서 공급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 근무자가 거의 없는 방학 중에 학교별로 몇 차례에 걸쳐 공급자 편의대로 배달함으로써 보관과 분배에 엄청난 부담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 학교의 교과서계는 생활 지도계와 수업계와 함께 3D 직종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교육의 근본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제 7 차 교육과정이 초·중·고교에 적용된 지 3년째 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새 교육과정의 내용이 충실히 구현되고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시설과 기자재를 완비해 주는 동시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어야 한다. 또한, 질 좋은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 주고 교과서 공급 체계도 전면 재검토하여 교육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고등 학교 새 교과서의 특징

국어/도덕/사회/수학/과학/기술·가정/체육/음악/미술/영어

국 어

■ 글 / 박삼서(교육인적자원부 장학관)

1. 개편의 기본 방향

가. 국어과 교육 내용의 특성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지향하여 구성하였다. 학습자의 학습 능력 수준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의미 있는 교육 경험을 통하여 학습자의 소질과 적성을 신장·계발시키고, ‘학습자의 학습 능력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제시해 주어, 교육 내용과 학습 능력 사이의 상승적 상호 작용이 일어나도록 교육과정의 개별화 내지 다양화를 추구하였다.

즉,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으로 자율 학습력을 신장시키고, 자기의 지적·정의적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의미 있는 창조적 학습 경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거시적 취지를

바탕으로 국어과 교육 내용에는 ‘학습 능력과 성취 수준’을 고려하고, 각각의 수준으로 ‘국어를 사용하는 경험이 확대되도록 하는 학습 활동’을 강조하여, 국어 교육의 궁극적 이상을 구현하도록 하였다.

나. 개편의 방향

(1) 교육과정의 정신을 충실히 반영한 교과서

고등 학교 국어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추구하는 인간상 및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학습자의 지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내용 수준을 위계화하고,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학습량을 정선하여 연간 학습 계획 수립에 알맞게 적정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정신을 살려 보충, 심화 학습의 내용을 개인차에 따라 선택하여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학습의 과정에서 직접 수행 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구조화하였다.

(2)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유용한 교과서

교육과정을 제재를 가지고 목표 설정과 학습 활동 및 과정 체계로 구체화한 것이 교과

서이다. 고등 학교 교과서는 다양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과정이 드러나도록 하였고, 단위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였다. 나아가 교육과정의 주요 개념을 학습자의 구체적 생활 경험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과정 설계에 유용하도록 하였다.

(3)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창의적인 국어 능력은 사고의 유연성과 문화적 상상력과 창조력, 비판적 의견 형성력을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향상된다고 보고 목표 중심, 과정 중심, 수준별 교육 내용으로 단원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학습 목표 달성에 적합한 제재를 가지고 학습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교과서가 되도록 하였다. 다양한 편집 디자인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학습자의 가독성을 높였으며, 특히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다양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개별 학습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소집단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식의 구성이 개인의 주체적 사고 과정과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2. 교과서의 주요 특징

가. 단위 구성상의 특징

(1) 단위 구성의 방향

교육과정의 영역을 분리하여 교과서를 편찬한 초등 학교, 중학교와는 달리 내용 항목을 관련성 있는 것끼리 묶어 통합적 방법으로 단원을 구성하였다. 수준의 개념을 반영하여 매 대단원별 심화·보충 학습의 전제가 되

는 기본 학습으로 소단원의 내용을 구조화하였다. 또한, 단위 내에서의 유기적 연계는 물론 단위와 단위 사이의 긴밀성을 강화하고, 학습 시간의 효율성과 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자연스럽게 통합적 언어 활동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교과서 〈상〉, 〈하〉 간 관련성을 강조하여 학기별 성격이나 내용면에서 상호 연관되도록 하였다. 단위 학습 내용과 과정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면서 단위 학습 내용에 적합한 교수·학습 원리를 적용하여 전개의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학습 내용의 실제성을 살리고, 학습 목표 성취에 적합한 다양한 제재를 제공하였다.

(2) 단위 구성의 방법

학습 방법과 과정에서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초·중등 교과서의 체제를 고려하면서, 반면에 학습자와 학교급의 성격과 관련하여 단위 구성의 독자성도 확보하였다. 단위 전개의 흐름과 구성 요소 및 기능을 요약하면 〈표 1〉, 〈표 2〉와 같다.

나. 교과서의 일반적 특징

국어 교육은 언어적 체험을 구체화하고, 문화 계승·창달과 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찾도록 하며, 미래 지향적 교육의 모습을 추구한다는 전제 아래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강조하였다.

첫째, 수준별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하였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한 것으로 ‘점검하기’의 점검표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선택하여 스스로 학습 활동을 전개해 보도록 하였다.

둘째, 시각적인 구성을 시도하였다. 본문의 지면이나 날개에 사진이나 삽화를 사용, 단순

〈표 1〉 차시별 단위 전개의 흐름

단원의 길잡이 및 준비 학습	소단원 2~3개	단원의 마무리	보충·심화
1 차시	2~6 차시	7 차시	8 차시
도 입	원리 학습 + 적용 학습	정리 및 평가	보충·심화 학습

〈표 2〉 단위 구성 요소와 기능

대단원의 주요 부분	각 부분의 기능과 구성 방향	비 고
〈단원의 길잡이 및 준비 학습〉 － 단위 도입 학습용 자료 제시	○ 대단원명 ○ 대단원 학습 목표 ○ 대단원 도입 학습 자료(문자, 그림 자료) ○ 목표 관련 학습 활동	1 차시 분량이지만 경우에 따라 1/2 차시 분량도 가능
〈소단원－제재 2~5 개〉 ○ 소단원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자료 제시(읽기 자료) ○ 중간중간 소단원 학습 활동	○ 소단원명 ○ 소단원 학습 방법 안내(해제 방식) ○ 소단원 읽기 제재 2~5 개 ○ 구체적인 학습 활동	학습 활동은 제재 중간중간에 공 간의 제약 없이 제시
〈단원의 마무리〉	○ 단위 학습 목표 환기 ○ 단위 전체에 대한 정리 및 평가 ○ 심화·보충 학습으로 넘어가는 전 단계	학습 목표는 요약, 항목식으로 구성
〈보충·심화〉 ○ 대단원 학습 목표 관련 보 충 학습과 심화 학습 자료 및 활동 제시	○ 단위 학습 목표 환기 ○ 학습 과제 또는 활동의 성격을 보충·심 화 수준별로 안내	학습자의 흥미, 관심, 학습 속도 와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 가 선택해 활동할 수 있는 과제 또는 활동 제시

히 장식적 기능에서 탈피하여 가독성을 높이거나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셋째, 삽화,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시각적 구성과 유관하여 자료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특히 ‘사진으로 보기’ 지면에는 학습한 내용을 다시 환기하며 학습 내용 밖의 것을 자기화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넷째, 학습 활동을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단원의 목표와 관련한 글을 이해하는 활동에서 개인적 반응을 나타내는 활동,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활동 등 국어 교육의 원리를 동원하여 학습자가 활동을 통하여 자기화의 반응을

보이도록 하고, 주로 본문 중에서도 활동을 유도하여 적극적인 읽기 활동을 도모하였다.

다섯째, 매체 언어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였다.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멀티미디어 이용과 매체 언어의 국어 교육적 효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여섯째,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국어 능력은 결국 학습자와 교육적 상황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여기에 자아가 주도적으로 학습에 관여할 때에 그 능력이 질적으로 향상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체제로 구성하였다.

3. 활용과 지도상의 유의점

가. 수준별 학습 운영 방법

교과서에 반영한 수준별 학습은 기본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보충 학습과 심화 학습을 하여 개별 학습자 모두가 성공하는 경험을 가지도록 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각 대단원이 끝나는 ‘단원의 마무리’ 부분에 제시한 ‘자기 점검’에서 보충·심화 학습을 위한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어 수준의 구분과 선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충 학습은 과제의 난이도나 복잡도가 낮은 활동, 기본 과제보다 고등 사고력을 적게 요하는 활동, 탐구 활동의 심도가 낮은 활동, 일상 생활의 상황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된 활동, 접근 방법에서 기본 활동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심화 학습은 과제의 난이도나 복잡도가 높은 활동, 기본 과제보다 고등 사고력을 요하는 활동, 탐구 활동의 심도가 높은 활동, 일상 생활의 상황에서 접하기 어려운 문제와 관련된 활동, 접근 방법에서 기본 활동보다 고등 수준의 접근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학생은 수준에 따라 보충과 심화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활동의 성격에 따라 자세한 안내와 조력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충 학습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심화 학습을 스스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대단원의 학습 내용은 ‘하나의 전체’를 뜻하므로 보충·심화 학습 활동에서는 최대한 단일한 목표(활동)를 지향하고, 앞에서 한 활동을 그대로 중복해서 수행하기보다는 수준이나 관심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

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사는 조력자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교과서의 효율적 활용과 지도 방법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체제로 구성되어 편찬하였기 때문에 다음 사항에 유의하면 교과서의 효율적인 활용을 제고할 수 있다.

첫째로, 교과서는 많은 교수·학습 자료 중 전범이 되는 하나의 자료라는 관점에서, 단위 학습 목표 중심으로 학습이 전개되도록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학습 자료와 활동을 재구성하여 가르치는 것이 좋다.

둘째, 교과서에서 제시한 언어 자료를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말고 다양한 보조 자료를 만들어 활용하고, 그림 자료와 사진 자료도 학습 목적에 맞게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즉, 여러 형태의 언어 및 보조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학습자의 능력, 학습 속도, 흥미, 관심 등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축적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모두 가르쳐야 한다는 관념을 버리고 학습자의 특성과 지역,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특히,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량을 조절하고 제시된 체제를 신축성을 두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지식·정보 사회에 지식 정보 능력을 신장하는 데 국어 교육이 앞장 설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유형을 창의적으로 개발·적용하고, 이에 따라 소외되는 민족 정체성 교육도 강조해야 한다.

다섯째, 매체 언어를 포함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하여 문자 매체의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

육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학습자의 흥미나 관심, 학습 능력 등 수준을 감안하여 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언어 경험을 축적하고 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새롭게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곱째, 학습 목표 구현에 부응하는 평가 항목과 방법을 미리 설정하고, 이에 걸맞은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해야 한다.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읽기 위주의 평가 관행에서 탈피하여 지식, 수행, 경험, 태도의 범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것은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

도 덕

■ 글 / 이우용(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사)

1. 머리말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도덕과 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을 이해하고, 일상 생활에 필요한 규범과 예절을 익히며, 국가·민족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파악하게 하여 한국인,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과”라고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도덕과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실천해야 할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가치들과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생활의 기준이 되는 도덕 규범과 가치들을 내면화시켜 올바른 행동 습관을 기르는 동시에,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사고력과 가치 판단 능력을 길러 주는 데 역점을 둔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도덕과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본 방향으로 강조하고 있는 인본·인성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중시되고 있는 민족 공동체 교육, 통일 대비 교육, 세계화 교육 등을 다루는 중핵 교과이다.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자료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상기한 도덕과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번에 편찬된 고등 학교용 새 도덕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체제와 내용으로 편찬되어, 향후 도덕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달라진 편제

편제와 관련하여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갖게 되었다. 물론 초등 학교에서는 변화가 없으나, 중·고등 학교에서는 주당 시수가 1시간으로 준 것과(중학교 3학년인 경우에만) 함께, 교과 명칭이 ‘윤리’에서 ‘도덕’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고등 학교 단일 교과목인 ‘윤리’로 고 1에서 고

※ 편제 비교

학교급		차 수	제6차	제7차
초등 학교	1~2학년		바른 생활	바른 생활
	3~6학년		도 덕	
중학교	1~3학년 (7~9학년)		도 덕	도 덕
고등 학교	1학년(10학년)	윤 리		시민 윤리
	2학년(11학년)			
	3학년(12학년)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3까지 운영하던 것을, 고 1에서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인 ‘도덕’, 그리고 고 2~3 학년에서 일반 선택 과목인 ‘시민 윤리’, 그리고 심화 선택 과목인 ‘윤리와 사상’과 ‘전통 윤리’를 운영하게 되었다.

3. 고등 학교 도덕과 교과의 편찬 방향

이번 고등 학교 1학년용 도덕과 교과서 편찬 방향은 도덕과 교육의 성격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총론과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살리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종래의 교과서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교과서를 편찬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종래의 고등 학교 ‘윤리’ 교과서가 지닌 문제점 또는 단점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먼저, 교과서 내용 구성 및 진술 등에 대해 보면

- ① 지식 중심이고 감동적 사례가 부족하다.
- ② 행동 실천이나 구체적 활동과 연결되는 내용이 부족하다.
- ③ 지역 사회와 관련되는 내용이 부족하다.
- ④ 교과서의 체계화를 위하여 너무 많은 분야와 주제를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외적 체제에 대해서 보면

- ① 본문 내용이 너무 많고 지식 중심이다.
- ② 진술 형태가 다양화되어 있지 못하고 단순하다.
- ③ 통계표나 시각 자료가 부족하다. 특히, 사진이 진부하고 컬러화되어 있지 못하다.
- ④ 대단원 앞에 ‘이 단원의 공부를 위하여’의 효용성이 높지 못하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새 교과서에서 일거에 해결하기는 어려웠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음과 같이 기울였다.

먼저, 기본 원칙 및 방향에 대해서는

첫째, 종래 지식·덕목 전달 중심으로부터 21 세기의 정보화 사회에 적절한 교수 매체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적 특성을 갖게 하였다.

둘째,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의 구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특히 행동 실천과의 연결에 가장 역점을 두었다.

셋째, 외국의 최신 관련 교과서와 우리나라에서 교과 교육 연구팀과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개발한 모형 교과서를 참고하여 교과서의 내용과 체제를 최대한 혁신하였다.

다음으로, 편찬 방법이나 내용 조직 등을 중심으로 보면

첫째, 지적 영역 중심의 교수자 중심의 교과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 자료로 편찬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실생활 경험과 직결되는 사례 중심의 흥미를 끌게 할 수 있는 교과서로 편찬하였다.

둘째,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사이버 공간 활용에 따른 교과서 역할 변화를 상정하고 편찬하였다. 이미 중학생들은 PC를 통하여 광활한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 무한한 정보와 넓은 세상을 만끽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도덕 의식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도덕 교과서가 되도록 하였다.

셋째, 1995~1999년에 간행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 5개 선진국의 관련 교과서를 세밀히 검토하고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교과서 개발에 많은 시사점을 준 대표적인 외국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미국〉

- 「American Government」, McGraw-Hill, 1996 (고등 학교)
- 「Civics」, McGraw-Hill, 1998 (중학교)

〈영국〉

- 「The 20th Century World, Collins History Connections 3」, Collins Educational, 1995 (중학교)

〈프랑스〉

- 「Education Civique」, Hatier, 1998 (중학교)
- 「Education Civique」, Hachette Livre, 1997 (초등 학교)

〈독일〉

- 「Politik」, Verlag Ferdinand Schöningh, 1998 (중학교)

〈일본〉

- 「中学生の 道徳」, 1~3, 文溪堂, 1995 (중학교)
- 「中学生の 公民」, 帝国書院, 1999 (중학교)
- 「現代社会」, 東京書籍, 1999 (고등 학교)

교과서 체제면에서는

첫째, 교과서 판형을 종래의 국판에서 4×6 배판으로 확대하고, 색도는 종래의 1도에서 4도로 바꾸어 컬러화하였다. 또, 교과서 본문의 내용을 전체의 2/3로 축소하며, 신문 그 외 기타 자료에서 발췌한 일기, 시각 등의 자료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눈을 끌 수 있는 참신한 시각 자료를 많이 포함하였다.

둘째, 대단원 앞의 ‘이 단원의 공부를 위하여’, 소단원 앞의 ‘생각할 문제’, 그리고 소단원 끝 부분의 ‘연구 및 실천 과제’를 대폭 개선했다. ‘이 단원의 공부를 위하여’는 반 정도를 본문으로 진술하고 나머지 반은 개조식으로 바꾸었으며, ‘생각할 문제’를 소단원 앞

에 제시하던 것을 없애고 그 대신 제제별로 명언, 명구, 사진 등 제제를 확실하게 안내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학생들의 실천 및 활동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난을 교과서에 포함하였다. 교과서 자체를 Work Book이나 Source Book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새 교과서에 포함된 ‘함께하기’ 난에서 제시된 ‘알아봅시다’, ‘생각하고 토론해 봅시다’, ‘느껴 봅시다’, ‘실천해 봅시다’ 등의 학습 활동은 그와 같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넷째, 가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난을 마련하였다. 부모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도덕성 지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의 협조를 받기 위한 제반 질문과 부모로부터 기대되는 활동에 대한 특별한 난을 준비하였다.

4. 활용 방안 및 지도상의 유의점

새 교과서는 ‘이 단원의 공부를 위하여’, ‘본문’, ‘명언 또는 명구’, ‘사진 또는 삽화’, ‘함께하기’, ‘동·서양 고전 탐구’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실제 수업 시간에 활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단원의 공부를 위하여’는 대단원의 도입글인데, 단원을 배우기 전에 단원의 취지와 목적에 관한 것을 다루었고, 특히 새 교과서에서는 학습 과제 및 기대되는 학습 성과에 역점을 두었다. 또, 종래의 교과서와는 다르게 학습 활동의 내용까지를 요약 정리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대되는 성과를 분명히 인식시키려고 하였다.

‘본문’은 교과서의 주된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지도해야 할 지적 내용과 정의적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다. 새 교과서에서는 종래의 교과서에서보다 가급적 본문 내용을 양적으로 축소하였고, 실감 있는 사례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교사들은 본문 외에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명언 또는 명구’는 제재 수준에서 1개씩 제시하였는데, 학생들에게 좌우명이 될 수 있도록 암기시킴은 물론, 학습 내용을 보충, 심화, 확대시키는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자체 조사 및 관련되는 명언 명구의 수집도 요청하도록 하였다.

‘사진 또는 삽화’는, 물론 본문의 내용을 보완하고 시각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새 교과서에서는 가급적 참신하고 컬러화된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시사성을 상실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항상 새로운 자료를 수집, 보충하여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함께하기’는 새 교과서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인데, 교과서를 하나의 학습 자료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단원이나 제재에 따라 매우 다양한 학습 활동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교사의 창의적인 학습 활동 전개가 요청된다.

‘동·서양 고전 탐구’는 교과서에서 다루는 도덕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높이고 교양적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취지에 맞는 적절한 지도가 요청된다.

5. 도덕과 교과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

교과서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하겠다. 도덕 교과서의 내용은 금과옥조(金科玉條)가 아니며, 도덕과 교육을 위한 하나의 좋은 자료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부분은 더 잘 된 자료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이나 시기에 맞는 적절한 자료로 재구성할 수 있다.

둘째, 도덕적 사고와 판단을 훈련하는 교과서로 활용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도덕적 사고를 시작하는 실마리로서, 또 어떤 도덕 문제에 대한 가치 판단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의나 훈화 위주의 방법보다는 의견을 토의하는 참여식 수업이 적절하다. 특히, 도덕 교과서에 실린 자료들이 국어과식의 독해 학습 자료가 되도록 지도해서는 안 된다.

셋째, 도덕적 정서를 유발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새 도덕 교과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도덕적 정서를 중시하는 것이다. 도덕적 행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과 열정,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배려와 민감성 등 도덕적 정서를 유발하는 교과서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도덕적 행동과 실천을 습관화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제6차 교육과정의 도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새 도덕 교과서에서도 도덕적 행동의 실천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즉, 학생들이 도덕 규범을 이해하고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도덕 교과서에 제시된 행동 실천을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체험해 보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

사 회

■ 글 / 박제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관)

1. 제7차 사회 교과서의 특징

제 6차 고등 학교 사회과의 필수 과목인 ‘공통 사회’ 과목이 제7차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인 ‘사회’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이 교과의 내용은 초등 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10개 교과로서의 계열성을 고려하고, 선택 중심 교육과정인 고등 학교 2, 3학년의 사회과 심화 과목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요소를 비교하여 고등 학교 1학년의 수준에 맞는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조직하였다.

제6차의 ‘공통 사회’는 ‘한국 지리’와 ‘일반 사회’의 별책으로 편찬되어 통합 교과이면서도 실제로는 별도로 운영되었는데, 제7차의 ‘사회’는 지리, 일반 사회, 세계사 영역을 통합하여 한 책으로 구성하였으며, 실질적인 통합 과목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교과 통합적인 학습 경험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교육과정에 통합 단원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통합적 학습 자료로 충실히 구성하여 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등 학교 사회는 제6차까지는 국정(1종) 도서로 정부에서 개발하였으나, 제7차에서는 검정(2종) 도서로 변경하여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되도록 하였다.

제7차 고등 학교 사회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다.

먼저, 문제 해결, 탐구 학습의 실제적 운영을 위하여 내용량을 축소하여 ‘소량 다시간 심도주의’를 추구하였다. 최소 학습 요소만을 선정하여 보다 자세히 진술하였으므로 실제 학습 내용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내용 조직에 있어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정신에 따라 기본과정과 심화·보충 과정을 교과서 내용 구성에 차별화하여 반영하되, 단원은 그 자체로서 문제 해결 혹은 탐구 단원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내용 서술에 있어서는 문제 해결형, 활동형으로 제시되 구체적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것, 나아가 ‘지식의 구조’에 도달하도록 서술하였으며 단원·주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전개 체제를 적용하였다.

외형 체제의 경우, 기존의 교과서에 비해 판형은 4×6 배판으로 커지고 색도는 4도로 변화되었으며 지질도 종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 또한, 북 설계와 레이아웃을 통해 가독성과 흥미를 높이며, 시각적인 일관성과 다양한 변화를 통해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교과 내용과 사진, 삽화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공간을 탄력적으로 구성, 배치하도록 하였다. 화보의 구성 및 편집에 있어서는 교과서 이외의 학습 자료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편집 체제를 도입하였고, 사진·그림·도표·연표·지도 등을 본문 내용 및 탐구적 질문과 연계시켜 학습 자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2. 책간 체제와 내용 비교

검정에 합격된 8책(재검정 합격본 2책 제

외)의 체제와 내용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가. 최병모 외 ‘고등 학교 사회’(대한교과서)

○ 학문적 이론 체계를 전달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실생활과의 연계를 최대한 찾아 내기 위해 자료 중심, 사례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였으며, 심화 과정을 두어 학생의 흥미, 관심과 능력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사의 강의를 통해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학생 자신의 탐구 활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과제는 자료 분석 및 종합(기본 단계) → 사고 확장 및 결론 도출 → 가치 판단(발전 단계) → 조사·관찰·토론·역할놀이 등 다양한 학습 활동(적용 단계)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선택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생들이 학습 내용에 흥미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를 많이 설정하였고, 시각화된 자료를 많이 실었다.

나. 오경섭 외, ‘고등 학교 사회’(도서 출판 디딤돌)

○ 소주제 아래에 학습 목표를 분명히 밝혀 두어 학습자가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 미리 생각해 보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제시하였다.

○ 사례 탐구, 생각을 보태는 읽기 자료, 고전 읽기 등을 통해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거나 심층적인 탐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단원 마무리에서는 해당 단원에서 다

루어지는 주요 주제들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다. 황만익 외, ‘고등 학교 사회’(지학사)

○ 수준이 서로 다른 학생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 방법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주어진 주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례와 경험 등을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여 학습 결과가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습 내용을 다소 줄이는 대신,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쉬우면서도 재미있는 교과서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 정보화 시대를 맞아,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 통로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주어진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라. 김재한 외, ‘고등 학교 사회’(법문사)

○ ‘사례 탐구, 탐구 활동’을 통해 생활 주변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접한 경험에서 소재를 선정하여 사회 과학적 탐구 절차에 따라 연구하면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해 가는 재미를 느끼도록 하였으며, 본문 내용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이론이나 간단한 지식 등을 소개하여 사회적 상식을 길러 나가도록 하였다.

○ 지리적인 내용의 ‘지오 스토리’, 역사적 내용의 ‘타임 스토리’, 시사 및 사회 현상과 관련한 ‘피플 스토리’라는 칼럼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고, 지리, 역사 및 사회 과학의 각 영역에서 다른 영역의 소재와 아이디어가 깃들인 내용을 제시하여 사회 현상을 통합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

○ ‘심화 학습’을 통해 기본 학습 과정에 대한 성취도 및 개인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고차적 사고 능력을 강화하고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마. 김주환 외, ‘고등 학교 사회’(중앙교육진흥연구소)

○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쟁점에 관해 토론하기, 통계 자료를 분석하기, 답사 보고서 쓰기, 항공 사진 읽기, 신문 기사를 모아 발표하기 등 여러 가지 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교과서 내용과 관련되는 인터넷 사이트도 제공하고 있다.

○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과 창의성 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화·세계화·개방화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지식관과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단원의 학습 목표에 맞추어 구성하였다.

○ 학생의 능력과 흥미와 요구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개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 과제물을 제시하였다.

바. 손봉호 외, ‘고등 학교 사회’(두산)

○ 학생 스스로 사회적 사실들을 조사하고 반성하며 다른 사람들과 토론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를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비판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학습 활동을 자극하고 유도하도록 꾸며졌다.

○ 지리와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통합적으로 학습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 지식 전달 위주에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3. 교과서 활용 방안

가. 교과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과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학습 내용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는 유일한 학습 자료(聖典, Bible)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다양한 학습 자료 중에서 주된 자료로 학교와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된다. 따라서, 교과서에 제시된 다양한 탐구 자료, 보충 자료, 각종 통계 등은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 제시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여 목표 도달을 위해 더 유용한 자료가 있거나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친근감이 있는 다른 자료가 있다면 대체하여 지도할 수 있다.

나.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조장한다.

새 교과서는 학습 내용이 주제 중심이거나 각 주제별로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학습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시하고, 필요한 참고 자료나 관련 인터넷 사이트도 소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교사 중심의 단편적인 지식 전수 위주의 교수·학습 방법을 탈피하고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고차적 사고력과 탐구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게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활용한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내용 배열은 예시(例示)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교사는

학교의 실정, 지역의 특성, 학생의 능력, 교육 시설, 자료의 준비성, 계절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교과 협의를 통하여 교과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내용의 수준과 범위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내용 및 방법에 부합되어야 하며 고등학교 학생의 수준에 알맞은 내용을 다루되 보편화되지 않은 개인적인 연구 성과나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수준별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활용한다.

사회과는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 교과이므로, 학생 각자의 학력 수준 차를 수용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이 학습할 ‘기본 학습 내용’과 심도 있는 학습을 위한 ‘심화 학습 내용’을 적절히 구분하여 지도해야 한다. 심화 학습 내용은 학생이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내용은 단순히 지식 전달형이 아닌 과정을 안내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형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심화 학습을 통해 고차적 사고의 기회를 보다 강화하고 넓힐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기본 학습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기본 과정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보충 학습 내용’을 구성해서 지도해야 한다.

보충 학습의 경우 학생의 능력과 특성의 정도에 따라 보충의 내용이 다르게 되므로 교육과정에는 ‘보충 과정’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기본 과정을 중심으로 적절히 보충 과정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심화·보충 과정 운영시 필요한 경우 교과 재량 활동 시간을

을 이용할 수도 있다. 대략 80% 정도의 시간을 ‘기본 학습’에 활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심화·보충에 활용하도록 효율적인 시간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4. 결 론

우리의 학생들이 21세기 정보화 사회, 지식 기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큰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고 교과서를 바르게 활용하여 교실 수업의 변화를 불러일으킴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력, 창의력, 자기 주도 능력을 길러 미래 사회를 주도할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될 것이다.

수 학

■ 글 / 임광수(교육인적자원부 장학관)

1.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

가. 수학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21세기의 지식·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학교 교육의 중점은 단순 기능인의 양성보다는 자기 주도적으로 지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에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학과의 역할은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토대로 탐구하고 예측하며, 문제 해결력, 창의력,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등의

수학적 힘(mathematical power)을 기르게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7차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개정하였으며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수학과는 다른 어느 교과보다 개인의 능력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과목이다. 과거와 같이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것을 지양하고 개인의 능력 수준과 진로를 고려해서 수학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 것이 그것이며 수학은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실생활의 문제 해결이나 다른 과목의 학습에 활용하는 도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과목이므로 수학의 기본 지식을 중시하는 수학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수학 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신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학 교육은 이러한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신장시키려고 하였다.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학습자의 활동을 중시하는 수학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가 관찰, 조작, 분석, 종합하는 활동을 통하여 수학적 원리나 법칙을 예측하고 추론하게 하고 있다.

한편, 사례와 실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수학에 활용하게 하여 흥미와 자신감을 갖게 하는 수학 교육과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나. 수학과와 성격과 목표

수학과는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사물의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여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며, 실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과이다.

수학에서의 수량 관계나 도형에 관한 수학적 개념의 이해, 논리적인 사고력,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태도는 과학을 비롯한 대부분 교과들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필요하다. 즉, 수학은 다른 교과의 효율적인 학습에 기초가 되는 교과이다.

여러 가지 생활 현상을 수학적으로 고찰하는 경험을 통해 수학의 기초적인 개념, 원리, 법칙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수학적으로 관찰, 분석, 조직, 사고하여 해결할 수 있다.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기른다.

2. 제7차 수학과 교과서의 특징

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교과서로 개편하였다.

각 단계 내에서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보충 과정과 심화 과정을 제시하여 학생의 능력을 고려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나.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교과서로 개편하였다.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학습을 안내하였고 탐구 활동, 조사, 토론 등 학생 중심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과서로 개편하였다.

다. 실생활 경험을 소재로 한 학습 활동으로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과서로 개편하였다.

교과의 모든 학습 내용을 가능한 한 실생활 주변의 소재를 내용으로 학습을 전개하여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고 의미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라. 학생들의 구체적인 활동을 중요시하는 교과서로 개편하였다.

모둠 활동, 연구 과제, 토론 자료를 제시하여 직접적인 경험 활동을 통해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단순한 문제 풀이보다는 수학의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교과서로 개편하였다.

탐구 활동, 수행 평가 과제를 제시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활동을 통하여 과제 해결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바. 지속적으로 수학에 흥미를 갖도록 교과서를 개편하였다.

추상적인 수학적 상황에서 학습을 함으로써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한 종전의 교과서에서 벗어나 실생활의 현상을 소재로 하여 학생 활동 중심으로 토론과 탐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수학에 대한 유용성과 실용성을 알게 하여 흥미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수·학

습 방법을 개선하는 교과서로 개편하였다.

인터넷 사이트, 컴퓨터, 계산기 사용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 해결에 활용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아. 편집 체제를 다양하고 세련되게 구성하였다.

교과서의 판형을 4×6 배판으로 확대하고 참신한 디자인과 2도의 색도를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보기 좋게 편집하였으며 부담 없이 읽고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수학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3. 교과서 활용 방안

가. 교육과정과 교과서

현재까지도 교육 현장에서 교과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교과서가 곧 교육과정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현실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업 현장에서의 전형적인 수업 방법은 교과서를 읽고 문제를 풀어 주고 또는 풀게 하고 설명하는 것이었다. 교과서를 절대적인 목적 자체로 인식하는 관점에서는 교수·학습의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는 그 자체를 가르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목표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중의 한 가지 수단이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도 교과서를 전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의 주된 교재로서 학생용 도서”로 정의하고 있지만 현재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와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영상 저작물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교과용 도서는 수업의 교재(教材)로서의 의미로 변화

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이나 장학 방침은 교과서에 있는 것을 모두 그대로 가르치지 말고 교사가 창의적으로 재구성해서 지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 중에는 교과서 내용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밖의 자료를 도입하는 교사도 있지만 모든 교사에게 그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교과서에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여 교사가 선택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므로 교과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를 소재로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는 다양한 학습 자료 중에 핵심적인 자료이기는 하나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과정을 선도하고, 교사와 학생의 사고를 지배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정신과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편찬되어야 한다.

이제는 교과서를 보는 관점도 변해야 한다. 특히, 제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부터는 더욱더 그 필요성을 느낀다. 교과서는 학습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자료이며, 학교 수업의 과정은 교과서로 시작하여 교과서로 끝나야 한다는 교과서관에서 벗어나 교과서를 교육과정에 대한 교재로서의 도구적 성격을 띤 자료집이라 할 수 있으므로 문제 해결의 많은 사례를 제시해 주어 학습자가 문제 해결의 생생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학습은 교과서를 암기하고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 연습하고, 문제를 제기해 보고, 가설을 세워 보고, 실험하고, 토론하는 활동을 강조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는 학습자 스스로가 해결 방식을 찾도

록 돕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 자신이 주체가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 편찬되어야 한다.

나. 교과서 활용 방안

(1) 교과서마다 해당 교과서를 안내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본 후 핵심적인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2) 과거의 교과서는 교수·학습의 유일한 자료로서 취급되어 왔지만 현재의 교과서는 교수·학습 자료의 핵심적인 자료일 뿐이다. 교수·학습 목표에 적합한 내용을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취사 선택, 재구성하여 지도할 수 있다.

(3) 교과서의 조작물 등 학습 자료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친근감이 있는 다른 대체물을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다.

(4) 컴퓨터의 활용과 구체적인 조작 활동, 탐구 과제 수행으로 획일적인 설명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과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교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5) 기본, 보충, 심화 문제가 주어져 수준별 수업을 가능하게 하여 교육의 적합성을 추구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지도할 수 있다.

(6) 수업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으므로 교사 중심의 수업 방법에서 벗어나 학생들과 함께 생각하며 수업에 임할 수 있다.

(7) 학생들의 많은 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일제식 형태의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지도하기가 매우 힘들게 되었다. 활동 중심의

새로운 형태의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8) 지도서의 지도 계획은 예시적인 것이므로 학교의 실정이나 학생의 실태, 학습 속도 등을 고려, 적절히 조절해서 활용해야 한다.

4. 교육과정을 알고 수업에 임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현재까지 7 차례나 개정되어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서를 편찬하고, 교육과정에 의한 교수·학습으로 학생을 교육하고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교육을 해 왔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특히 수학과에서는 교육과정의 개정의 의미가 현장에서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 채 마치 수학과에도 교육과정이 있었던가를 의심할 정도로 학교 현장에서 수학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도 별로 바뀌지 않고, 내용도 거의 같았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방법도 별로 다를 것이 없었으며 단편적인 지식과 문제 풀이의 기능을 반복하여 암기하듯 교수·학습이 이루어져 왔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학은 여전히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어 교육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을 배려하고 학생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수학 성적을 높이 평가해 왔다. 하지만, 수학이 입시 준비의 도구의 위치에서 보다 수학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그 중요성을 인정받으려면 수학과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학 교육의 본질이 논리적인 사고력과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있기 때문이다.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은 수학의 기본적

인 개념, 원리, 법칙을 토대로 탐구하고 예측하며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수학을 통한 정보를 처리하고 교환하는 능력, 실생활이나 다른 교과 영역에서 수학적 지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구성하고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 창의력,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성향, 사고의 유연성, 자신감 등의 수학적 힘(mathematical power)을 기르게 하는 데 있다. 수학의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 실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하는 데 수학과와 목표를 두었다. 그러므로 수학 교육을 통해서 수학과 교육과정 나아가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업 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방법을 연구하고 탐구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의 정신을 학생들에게 심어 주고 요구하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알고 수업에 임해야 한다. 수학과와 교육과정을 알고 수업에 임해야만 수학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과 학

■ 글 / 김현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사)

1.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과학 교과서의 특징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는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자기 주도적 학습과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이라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편찬되었다. 고등 학교 1학년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마지막 학년이며, 초·중학교에서 배운 과학 지식과 탐구 활동을 최종으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단계이므로 과학 교과서는 기본적인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중학교 과학과 고등 학교 심화 선택 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찬되었다.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제6차의 내용 체제와 같이 지식과 탐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에는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의 4분야로 나누어 각 영역의 내용이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제를 설정하였고, 여기에 탐구와 환경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단위 수는 2단위 감소하여 학습 내용을 종전보다 30% 정도 감축하였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종합적인 탐구 학습 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탐구를 탐구 과정과 탐구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고, 탐구 과정은 기초 탐구와 통합 탐구로 나누었다. 기초 탐구는 가장 기초적인 탐구 요소를, 통합 탐구는 기초 탐구 요소가 복합적으로 포함된 보다 고차원적인 탐구 요소를 바탕으로 탐구하는 과정이다. 탐구 활동은 탐구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유형을 나타낸 것으로, 토의, 조사, 견학, 과제 연구 등을 포함시켜, 가능하다면 다양한 탐구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학 교과서는 기본 개념 학습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생활과 관련된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연 현상과 과학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 주위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과학과 교육과정의 큰 특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이다. 이를 반영하여 과학 교과서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학습해야 할 기본 필수 내용으로 구성된 기본 과정과 학생의 능력에 따라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심화·보충 과정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천편일률적인 체제를 가졌던 과거의 교과서와 달리 개편 과학 교과서는 단원명, 단원의 배열, 체제 등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고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집필자의 독창성을 발휘하여 편찬되었다.

2. 책간 체제와 내용 비교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의 교과서 구성 체제는 계절, 실험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 단원을 배열하도록 하고 있다. 단원명이나 체제는 창의적으로 정하되, 그 특성에 따라 출판사 및 집필자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교과서 선택 및 교수·학습 방법은 현장 교사가 재구성하였으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 제6차와 제7차 고등 학교 과학 교육과정 내용 비교

구 분	제6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과목명	공통 과학	과학(국민 공통 기본 교과)
내용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 물질, 힘, 에너지, 생명, 지구, 환경 • 탐구 : 분류, 측정, 예상, 실험, 조사·토의, 자료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 탐구, 환경 • 탐구 : 탐구 과정(기초 탐구, 통합 탐구), 탐구 활동
내 용	• 현대 과학과 기술	• 삭제

〈표 1〉 출판사별 단위 구성

출판사	단 원 구 성	참 고
가	• 기본 과정 • 보충 활동 • 심화 활동 • 마무리 학습 • 퍼즐 퍼즐 퍼즐 • 단위 정리 학습 • 자율 탐구 • 부록	
나	• 일러 두기 • 들어가면서 • 기본 과정 • 정리하기 • 더 생각해 보기 • 과학이 세상을 바꾼다 • 부록	
다	• 들어가기 • 기본 과정 • 보충 학습 • 심화 학습 • 마무리하기 • 연구 문제 • 모듈 과제 • 단위 종합 문제 • 과학과 직업 • 부록	
라	• 단위 길잡이 • 기본 과정 • 과학 기술 사회 • 나의 실력 확인하기 • 되짚어보기 • 더 알아보기 • 단위 마무리 • 과학과 직업 • 과학과 사회 • 부록	
마	• 단위 도입 • 기본 과정 • 되돌아보기 • 나아가기 • 중단원 정리 문제 • 개념도 • 부록	
바	• 생각해 보기 • 기본 과정 • 과학 마당 • 보충 학습 • 심화 학습 • 단위 평가 • 단위 정리 • 부록	
사	• 생각해 보기 • 기본 과정 • 내용 정리 • 단위 마무리 문제 • 보충 학습 • 심화 학습 • 참고 더 알아보기 • 부록	

나. 단위 구성의 다양화

제 6 차 교육과정에 의한 공통 과학 교과서는 대부분 ‘본문, 보조 자료(익힘 문제, 종합 문제, 풀이 등)’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제 7 차 교육과정에 의한 과학 교과서는 기본 과정, 정리, 종합 문제 등을 포함하여 활동거리, 읽을거리, 생각거리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여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과서로 탈바꿈하였다.

〈표 1〉은 출판사별 단위 구성을 정리한 것이다.

다. 단위 소재목의 다양화

제 6 차 과학 교과서에서는 주로 과학 개념을 단원의 소재목으로 사용했으나, 제 7 차 과학 교과서는 실생활 관련 소재나 평상시 가질 수 있는 질문 등으로 소재목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표 2〉와 같다.

라. 일상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구성

일상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구성의 예는 〈표 3〉과 같다.

3. 교과서 활용 방법

고등 학교 1 학년은 그 동안의 학습을 마무리하고 장차 학생이 진로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고등 학교 1 학년 과학은 초·중학교 과학과 심화 선택 과목인 물리 I·II, 화학 I·II, 생물 I·II, 지구 과학 I·II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찬되었으므로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교과서를 활용하면 교수·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과학 교과서는 기초·기본 교육에 충실하기 위해 탐구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념을 도입하고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과학적 소양과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주제에서 과학을 탐구하는데 필요한 기초 탐구 요소 및 통합 탐구 요

〈표 2〉 ‘환경’ 영역 중에서 ‘온실 효과’에 관한 각 출판사의 소단원 제목

출판사	소 단 원 제 목	참 고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 효과란 무엇일까? • 어떤 기체가 온실 효과를 일으킬까? • 온실 효과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 효과는 왜 일어날까? • 온실 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환경 단원 중에서 온실 효과 소단원 없음.
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 효과 • 더워지는 지구 	제6차 교과서와 유사
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온난화의 원인 • 지구 온난화에 의한 환경 변화와 대책 	
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가 달보다 따뜻한 이유는? • 달에 온실을 설치하면? • 온실 기체의 대기 중 농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 지구는 점점 더워지는가? 	
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 효과의 원인 •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와 해수면의 상승 • 온실 효과를 증대시키는 기체들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 효과란 무엇일까? • 지구의 온실 효과는 어떻게 일어날까? • 지구는 왜 점점 더워질까? 	

〈표 3〉 일상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구성의 예

출판사	생 활 과 관 련 된 내 용	참 고
가	• 역사 속의 과학 • 과학과 생활 • 직업의 세계	과학에서 과학·기술·사회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음.
나	• 생활 속으로 • 그 때 그 현장 • 현장 학습	
다	• 과학과 직업 • 과학과 스포츠 • 과학과 생활	
라	• 생활 속의 과학 • 나의 과학 작품 • 과학 기술 사회	
마	• 과학 기술 사회	
바	• 생활과 과학 • 과학 마당	
사	• 생활과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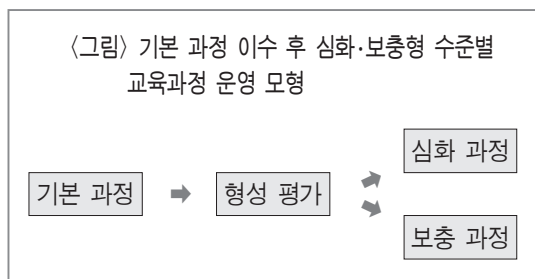
소를 골고루 학습하여 기본 개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과서는 하나의 중요한 학습 자료가므로 학교의 실정, 학생의 수준 등을 고려하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년별 내용을 반영하

여 교사가 나름대로 재구성하여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과학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기본 과정과 더불어 거의 모든 책에서 보충 과정과 심화 과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본 취지는 기본 과정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심화 과정 및 보충 과정은 기본 과정을 이수한 후에 학생의 기본 과정 성취 여부를 고려하여 학생이나 교사가 선택하여 교수·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충 학습은 기본 과정의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 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심화 과정은 기본 과정을 충분히 이수한 학생들이 발전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심화 과정에서 심화 선택 교과와 내용은 다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과학 교과서에서는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생활 속에서 더 좋은 학습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과학적 원리를 더 쉽게 이해하고 일상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교과서에는 다양한 인터넷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 외에 학생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게 자료의 조사, 탐구 활동에 정보 통신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여섯째, 탐구 활동은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실생활에서 보다 많은 문제 상황을 접하게 되며, 보다 많은 유용

한 정보를 접하게 된다. 따라서, 과학 전람회, 연구 발표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가정

■ 글 / 윤기숙 (교육인적자원부 장학관)

1. 제7차 고등 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특징

가. 과목의 성격

고 등 학교 ‘기술·가정’은 초등 학교 5~6학년의 ‘실과’, 중학교의 ‘기술·가정’에 이어 국민 공통 기본 교육의 마지막 학년에 해당되는 교과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고등 학교 기술·가정 교과는 국민 공통 기본 과목인 ‘기술·가정’, 일반 선택 과목인 ‘정보 사회와 컴퓨터’, 심화 선택 과목인 ‘농업 과학’, ‘공업 기술’, ‘기업 경영’, ‘해양 과학’, ‘가정 과학’ 등이다.

‘기술·가정’은 제6차 교육과정의 ‘기술’과 ‘가정’ 내용 중 남녀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할 내용을 선정하여 통합한 과목이다.

현대 사회는 남녀의 역할이 성에 의해 구분되지 않고 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가정 생활에서도 여성의 취업 증가로 남녀의 성 역할이 변화되었다. 즉, 원만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는 남녀 모두 가정 생활의 의미를 알고 서로 노력해야 한다. 건전한 가정은 건전한 사회와 국가가 되는 기초이다. 따라서, 머지않은 장래에 가정을 이루게 될 남녀 학생들에게 가정 생활에 필수적인 내용을 이수하게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취지로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학생들이 남녀 공통 필수로 이수하던 ‘기술’과 ‘가정’ 과목을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 학교까지 연장하여 남녀 학생이 ‘기술·가정’을 필수로 이수하게 된 것이다.

나. ‘기술·가정’의 내용

‘기술·가정’ 교과는 학생들이 교과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을 가족과 일의 이해, 생활 기술, 생활 자원과 환경의 관리 등 3개 대영역으로 분류하고 6년(5학년~10학년)에 걸쳐 나→가정(우리)→사회→국가의 단계로 내용을 심화시키고 있다. 즉, 초등 학교 5, 6학년의 실과에서는 주로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을 다루고, 중학교에서는 실 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고등 학교에서는 남녀 학생이 장래 가정과 직업 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관련 분야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기르는 내용을 다루고, 나아가 11~12학년에서의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였다.

○ 가정 생활의 설계

가족, 가정 경제, 가정 관리 등을 포함하여 미래의 가정 생활에 대한 종합적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혼관, 직업관 등 가정 생활에 대한 인식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배우자의 선택, 결혼관, 부모 됨의 의미 등을 바르게 지도함으로써 남녀 학생에게 가정 생활에 대한 적극적, 협조적,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여 장래 건강한 가정 생활의 기초를 이루도록 하였다.

○ 가정 생활의 실제

손님 초대와 행사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하고, 생활 용품을 제작해 보고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의·식·주에 관한 다양한 실습 경험을 통하여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 에너지와 수송 기술

에너지원의 종류와 이용 분야를 이해하고 동력의 발생 원리를 이해하여 자동차를 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설 기술의 기초

건설 구조물의 종류와 시공 원리, 건설 기술의 특성을 이해한 후 간단한 구조물 모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였다.

2. 교과서의 체제 비교

2002 학년도에 보급된 기술·가정 교과서는 6종이다. 2003 학년도에는 재검정을 통과한 또다른 6종이 보급될 예정이다. 금년도에 보급된 6종은 단원의 전개 순서나 단원명, 과목의 성격과 특징, 교과서 활용 안내 등 기본적인 틀을 동일하게 유지하였지만 단원 내용의 전개와 내용의 정리 방법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 공통점

○ 단원의 순서와 단원명을 교육과정대로 구성하였다. 즉, 가정 영역은 1~2단원에, 기술 영역은 3~4단원에 배치하고 단원명을 1. 가정 생활의 설계, 2. 가정 생활의 실제, 3. 에너지와 수송 기술, 4. 건설 기술의 기초로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 책의 서두에 이 책의 구성 및 특징,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하여 학생들이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사용 지도서나 참고서에 수록하였던 기술·가정의 성격과 특징을 앞부분에 다루어 과목의 특징을 알도록 하였다.

나. 차이점

○ 활동 주제에 대한 다양한 안내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즉,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제시, 만화, 삽화, 사진, 그림, 읽을거리, 참고 자료, 용어 정리, 인터넷 안내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충 학습, 심화 학습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이나 개인차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단원이 끝나면 단원을 정리하고 학습 목표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였다. 중단원이 끝나면 탐구하기, 활동 과제, 보충 학습, 심화 학습, 개념 익히기, 되짚어보기, 탐구 문제, 내용 정리를 위한 평가 등의 방법으로 정리한 후, 대단원이 끝나면 단원 학습 정리, 단원 요약, 단원 확인 학습 문제, 단원 종합 평가 등의 방법으로 학습 목표 달성도를 확인하고 있다. 평가 방법도 형식적으로 선다형의 문제나 주관식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퍼즐, 탐구 과제, 인터넷 활용 과제, 수행 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출판사마다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으며 6개 출판사의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30 쪽의 <표 1>과 같다.

3. 교과서의 활용 방안

‘기술·가정’은 ‘기술’과 ‘가정’이 통합되어 고등 학교에서 처음으로 이수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기술과와 가정과의 교사 구성, 학생들의 반응과 적응, 실습실이나 교구 등의 물적 여건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기술·가정’ 자격을 소지한 교사가 없어서 영역별로 나누어 지도하는 경우에도 학기당 3단위라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교과서를 기본 자료로 하여 교육과정을 현장에 맞게 재구성하여 지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참고 자료, 타 출판사의 교과서 등을 참고하여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재구성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재구성 시에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 채택한 교과서와 타 교과서와의 비교

○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교과서 간에는 서로 다른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사용된 아이콘의 의미, 집필 의도와 특징, 교과서 활용 방법 등을 머리말에 안내하였으므로 교과서를 재구성하기 전에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 교사는 채택 교과서 외의 비채택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등의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교과서를 재구성한다.

나. 교과서의 재구성

○ 각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현장 상황이 다양하므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근거로 단원 학습 내용의 비중, 지도 순서, 실습 과제의 선택 등 실제로 지도할 형태의 교과서로 재구성해야 한다.

○ 활동(실습) 내용은 실생활과 관련지어 재구성한다. 남녀 학생들 모두 관심을 갖고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활

〈표 1〉 출판사 간 특징 비교

(가나다순)

출판사	단원 도입	전개(자기 주도적 학습 자료)	정리 및 평가 자료
교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원-단원 소개글(들여가기 전에), 관련 사진, 중단원명 제시 • 중단원-학습 목표 제시, 준비 활동(단원 관련 문제를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해 보자, 읽을거리, 도움말, 인터넷 활용, 비디오 활용, 조사해 보자, 토론해 보자, 직접해 보자, 현장 학습, 역할극, 응용, 보충 학습, 심화 학습, 진로 탐색, 부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원-이 절의 요약, 탐구 과제 • 대단원-수행 과제
교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원-단원 소개('중학교 과정에서 우리는', '이 단원에서는',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등), 중단원명 제시 • 중단원-일상 생활 경험의 사례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조사), 용어 설명, 자료실, 인터넷 탐구, 탐구 문제, 읽을거리, 보충 학습, 심화 학습, 참고 자료, 진로 탐구, 실습, 문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원-check(용어 확인, 되짚어보기, 생각해 보기) • 대단원-단원 정리, 익힘 문제
금성출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원-연계 학습도, 중단원명, 단원 안내 제시 • 중단원-학습 목표 제시, 이야기 소개(생각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 활동(조사, 토의, 발표, 체험), 용어 설명, 학습 정보실(보충 학습), 클릭 인터넷, 생활 속에서, 실습, 선택 실습, 직업의 세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원-탐구 과제 • 대단원-단원 마무리(문제, 퍼즐 등)
대한교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원-관련 사진, 중단원명, 단원 소개 등 제시 • 중단원-관련 사진이나 만화, 중단원 소개(다가가기), 학습 목표 제시(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설명, 의문 제시, 정보 상자, 인터넷, 이야기 소개, 수행 활동, 안전 사항 제시, 보충 학습, 심화 학습, 열린 교실(직업 안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원-단원 학습 정리, 단원 총괄 평가
지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원-관련 사진, 단원 안내, 중단원명 제시 • 중단원-관련 사진, 학습 목표 제시, 단원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삽화, 해보기, 자료실, 용어 설명, 탐구 과제, 생각넓히기, 읽을거리, 심화 학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원-마무리 학습(확인해 보기, 용어 확인) • 대단원-단원 학습 정리, 문제(문제, 퍼즐, 인터넷 여행 등)
천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원-관련 사진, 학습 목표와 목적, 중단원명 및 학습 내용, 초·중등 경험(기억 속으로) 등 제시 • 중단원-관련 사진과 일상 생활의 이야기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사전, 열린 탐구, 자료실, 21세기 여행, 체험 활동, 인터넷 사이트, 보충 설명, 넓게 보기, 사례 제시, 깊게 보기, 보충 학습, 심화 학습, 부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원-학습 내용 확인 • 대단원-종합 문제

동 내용을 과감히 실생활의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학생들에게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각자(또는 모듈별로)의 흥미와 관심 분야의 것을 소재로 삼아 실습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재구성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 지도의 실제

○ ‘기술·가정’은 실생활과 밀접한 과목이므로 모든 단원을 지도할 때에는 반드시 실생활과 연관지어 지도한다.

○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ICT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ICT 활용이 오히려 비효과적인 단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히 적용해야 한다.

라. 평 가

○ 단순하고 지엽적인 내용의 평가는 지양한다. ‘기술·가정’의 내용 중 특히 실습 관련 내용은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내용이 많다. 단순히 채택한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출제한다면 객관성, 타당성이 약하게 된다.

○ 수행 평가를 할 때에는 가능한 한 가정 학습은 피한다. 특히, 실기 내용은 과제를 가능한 한 학교에서 해결해야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된다.

체 육

■ 글 / 최성식(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관)

일 반적으로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교수·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매체로서 선수 학습과 사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까지의 체육 교과서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매우 단편 지식만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 내용 및 외형 체제에 많은 개선 사항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 체육은 움직임 육구의 실현 및 체육 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는 내재적 가치와 체력 및 건강의 유지·증진, 정서 순화, 사회성 함양이라는 외재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공헌하는 교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또,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이 완성되는 단계로서,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보다 발전, 심화시켜 새롭고 흥미로운 내용을 통한 다양한 운동을 경험함으로써 고등 학교 2, 3학년의 일반 선택 과목인 ‘체육과 건강’과 심화 선택 과목인 ‘체육 이론’, ‘체육 실기’를 개인의 운동 적성과 성취 의욕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교과서는 육상, 체조, 수영, 개인 및 단체 운동, 무용, 보건, 체력 운동, 이론 등의 8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는 36개 단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이론편의 경우에는 교과서에 제시된 여러 가지 활동 과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 조사, 토의 등을 통하여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적용에 중점을 두었으며, 보건편은 환경 문제와 정신 건강 및 성의식에 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하여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 발달시키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실기편은 학교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역별로 한 가지 종목을 선택하여 지도하며, 내용은 운동 기능의 과학적인 원리를 기초로 하여 기초 기능 및 응용 기능을 학습하고 더불어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등을 토대로 정리 및 평가하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1. 제 7차 체육 교과서의 특징

새로운 교과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향하고 교과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수 학습, 탐구 학습, 자기 평가, 동료 평가 등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이나 향상도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또, 학습 내용 체계의 일원화 및 적정화를 통하여 체육 교과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을 최저 필수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정선함으로써 학습 분량을 최적화하도록 하였으며, 실기편은 각 학교 및 교사, 학생들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실기 영역 중에서 한 가지 종목만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론편은 기본적인 세부 영역을 학습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새 교과서는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지침의 구체화에도 중점을 두었다. 즉, 최근의 교수·학습 이론 및 과학적 기초 지식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교육적 경험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육과의 효율적인 평가에 중점을 두고 평가의 기본 방향, 다양한 평가의 방법, 평가의 활용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평가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1학년 2종 교과서 체제 비교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 교과서는 교과서 집필자들이 내용 선정에 있어 다소 융통성을 두었으며, 4×6 배판으로 하여 다양한 편집 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고등 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2종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보진재, 교학사, 두산, 금성출판사의 체육 도서 체제를 비교해 보고, 이에 따른 교과서 활용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가. 단원의 구성

고등 학교 1학년 교과서는 크게 이론, 실기, 보건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책의 서두에 머리말과 찾아보기, 인용 및 참고자료로 지면을 할애하였다. 각 도서별 지면 할애율은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단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쪽수는 300 쪽을 전후하여 편성하였으며, 내용 비율은 실기 영역이 약 70~80%를 차지하고, 보건(9.1~15.4%), 이론(10.0~13.0%) 순으로 지면을 할애하였다. 특이한 현상으로는 금성출판사의 경우 심화 선택이라는 영역을 설정하여 최근 생활 체육으로 활성화고 있는 5개 실기 종목을 추가로 설정함으로

〈표 1〉 도서별 지면 할애율 비교

〈가나다순〉

구 분	교학사		금성출판사		두 산		보진재	
	쪽 수	비 율	쪽 수	비 율	쪽 수	비 율	쪽 수	비 율
머리말, 차례	7	2.4	5	1.7	7	2.3	7	2.3
실 기	202	68.9	243	84.7	225	74.0	216	69.5
이 론	38	13.0	30	10.5	33	10.8	35	11.3
보 건	41	14.0	26	9.1	36	11.8	48	15.4
찾아보기, 인용	5	1.7	3	1.0	3	1.0	5	1.6
전체 쪽수	293	—	307	—	304	—	311	—

써 지면의 85%를 실기 영역에 비중을 두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론 영역이 보건 영역에 비하여 지면 할애율이 적은 이유로는 체육 이론에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스포츠 과학 분야가 각 실기 영역의 기초 분야에 포함되어 서술하였기 때문이며, 고등 학교 2, 3학년에 일반 선택 과목의 체육과 건강, 심화 선택 과목에서 체육 이론 과목이 설정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수치로 미루어 볼 때, 전체 책의 구성은 영역별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두고 편성을 하였으며,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마지막 학년으로서 체육 교과와 일반적 지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실기 교과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세부 단위

전체 단원의 세부 단원을 살펴보면 34 쪽의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난 각 출판사별 세부 단원을 살펴보면, 실기 영역은 보진재, 교학사, 두산 등은 모두 7개 분야를 선택하였으며, 금성출판사는 보다 세부적으로 11개 분야를 설정하여 수록하였다. 이론 영역은 모든 교과서에서 현대 생활에서의 체육의 역할, 체육의 전문성 교육을 위한 체육과 진로, 현대 생활에서의

필요한 여가 생활과 건강 증진의 영역을 포함하였으며, 보건 영역 또한 환경 보건, 정신 건강, 올바른 성교육을 위한 지침을 수록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현대 생활에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세부 단원의 경우에도 내용상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단위별 내용의 구성 체계

내용의 구성을 비교함에 있어, 단위별 구성을 비교하는 것은 각 교과서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체 구성을 단원의 도입 방법, 본문, 보충 및 심화, 정리, 평가 부분으로 나누어서 비교한 결과는 34 쪽의 〈표 3〉과 같다.

내용을 살펴보면 단원의 도입은 대부분 학습 목표를 제시하여 그 단위에서 주제를 명시하여 주고 있으며, 보충·심화 부분은 좌우단과 하단 부분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보진재는 각 면을 2단으로 구성, 주단과 보조단으로 구성하여 주단에는 주요 교과 내용을, 보조단에는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시하였다. 선수 학습란을 통하여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다시 상기시켰으며, 교사가 알려 주는

〈표 2〉 영역별 세부 단위 비교

〈가나다순〉

구 분	교 학 사	금성출판사	두 산	보 진 재
실 기	1. 체력 운동 2. 육 상 3. 체 조 4. 수 영 5. 무 용 6. 개인 운동 7. 단체 운동	1. 운동의 필요성과 가치 2. 체력 운동 3. 육 상 4. 체 조 5. 수 영 6. 투기 운동 7. 대인 운동 8. 계절 운동 9. 기록 운동 10. 구기 운동 11. 무 용	1. 육 상 2. 체 조 3. 수 영 4. 단체 운동 5. 개인 운동 6. 무 용 7. 체력 운동	1. 체력 운동 2. 체 조 3. 육 상 4. 수 영 5. 개인 운동 6. 단체 운동 7. 무 용
이 론	1. 현대 생활과 체육 2. 체육의 전망과 진로 3. 여가 생활과 건강	1. 현대 생활과 체육 2. 체육과 진로 3. 여가 생활과 건강 증진	1. 체육과 현대 생활 2. 여가 생활과 건강 3. 체육과 진로	1. 현대 생활과 체육 2. 체육과 진로 3. 여가 생활과 건강 증진
보 건	1. 환경 보건 2. 정신 건강 3. 올바른 성의식	1. 환경 보건 2. 정신 건강 3. 성과 건강	1. 환경 보건 2. 정신 건강 3. 성과 건강	1. 환경 보건 2. 정신 건강 3. 올바른 성의식

〈표 3〉 단원의 체제 비교

〈가나다순〉

구 분	교 학 사	금성출판사	두 산	보 진 재
단원의 도입	• 학습 목표	• 학습 목표	• 학습 목표	• 학습 목표
보충 및 심화	• 심화 학습 • 보 충 • 체험 학습 • 해보기 • 탐 구	• 선수 학습 • 생각열기 • 자료실 • 조 사 • 보 충	• 보충·심화 • 점검해 보자 • 토 의	• 선수 학습 • 스스로 생각해 보자 • 탐구 과제 • 조사 탐구 활동
정 리	• 학습 정리	• 정리 및 탐구	• 정리 및 평가 • 학습 정리 • 연구 문제 • 활동 과제	• 학습 정리
평 가	• 학습 평가	• 자기 평가 • 동료 평가	• 자율 평가	• 스스로 평가해 보자

과학적 원리란을 이용하여 해당 단원에서 배
워야 할 과학적 원리를 제시하고, 조사 탐구
활동을 통해 학습을 정리하도록 하였으며, 학
습 내용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

을 제시하였다.

교학사는 보충, 체험 학습, 해보기, 탐구 등
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학습 활동 내용을 제
시하였고, 심화 학습란을 통하여 학습 내용과

연관된 내용을 추가로 제시하여 학습 내용의 심도를 증가시켰다. 또한, 학습 정리 및 체험 학습을 통하여 그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최종적으로 다시 학습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더불어 단위 중간에 개인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습 평가를 제시하였다.

두산은 보충·심화를 통하여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토의 및 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리 및 평가를 이용하여 학습 정리 및 자율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금성출판사는 선수 학습, 자료실, 보충 형식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더불어 생각열기와 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학습 활동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정리 및 탐구를 통하여 학습을 조사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를 이용하는 방법을 평가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전체적으로 컬러 사진과 그림에 의한 설명으로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실기 부분에서는 과학적 원리와 연속된 실기 동작을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기능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라. 제 언

앞에서 간단히 교과서 내용 구성과 체제를 비교해 보았다. 그 내용으로 보아 전체적인 구성 형식은 비슷하나 세부적인 내용은 형식과 내용이 다양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 제 6차 교육과정과 비교해서는 교과서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가 따로 필요 없을 만큼 내용이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종목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운동 기능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응용 기능, 연습법, 전술 등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점이다.

음 악

■ 글 / 김대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사)

1. 제 7차 교과서의 특징

가. 새 교과서의 편찬 중점

음악 교과서는 제 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에 따라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점에 기준을 두어 편찬하였다.

첫째, 제 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둘째, 음악과의 성격과 목표에 부합하며,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에 적합한 교과서가 되도록 하였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충실하면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 탄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음악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음악과 생활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계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기능·태도 영역에 유의하고, 창의력, 사고력 배양을 강조하였다. 다양한 유형의 음악과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의 이해력과 창의적인 음악적 표현력, 음악적 통찰력을 기르고, 음악에 대한 애호심과 긍정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생활이나 학생의 경험과 관련이 되는 소재를 도입하여 생활과의 관련 속에서 학생의 흥미, 관심, 요구를 반영하여 음악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능력을 중심으로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였다. 전통 음악은 학년 수준에 적절한 필수 학습 내용과 활동을 선정하고 우리 음악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음악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여섯째,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가 되도록 하였다.

학습자 스스로 활동을 구성하는 것을 강조하고, 학습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개별화가 가능한 교과서가 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의 음악적 능력, 적성, 흥미에 따라 활동을 선택하는 학습 과제 및 내용 구성이 되도록 하였다.

나. 새 교과서 구성의 특징

(1) 내용의 선정 및 조직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제작되는 고등학교 교과서는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이해, 활동(가창, 기악, 창작, 감상) 내용이 제재 악곡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 조직하도록 하였으며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심화, 확대될 수 있도록 계열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단원을 구성하는 제재 악곡은 예술적인 가치가 높은 것으로 선정하되,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포함하며,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생활 음악, 대중 음악 등 다양한 내용을 폭넓게 다루었다. 특히, 국악과 관련된 제재곡을 확대하여 우리 나라의 전통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다양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재 악곡의 배열은 각 교과서마다 특색 있게 구성되었으나, 음악적 개념이나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하거나, 악곡의 특성과 계절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조직하였다. 또한, 이해 영역의 내용은 별도로 분리하여 학습하는 것을 탈피하고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 활동 영역의 제재곡에서 통합적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단원의 구성

단원의 구성은 주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제재 악곡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가창곡뿐만 아니라 기악곡, 감상곡, 참고곡, 창작 활동, 이해 및 참고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여 관련 내용을 폭넓고 깊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재 악곡은 지금까지 가창곡 위주의 단원 구성에서 탈피하여, 감상곡 중심의 단원 구성 또는 기악곡 중심의 단원 구성, 창작 활동 중심의 단원 구성 등 제재 악곡의 특성과 활동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제재 악곡의 횡적 배열은 학습의 연계성 및 효율성, 난이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표 1〉 교과서 내용 구성의 유의점

구 분		내 용 구 성
이해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의 구성 요소와 개념의 이해를 통한 사고력 향상에 중점 •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에서 통합적으로 학습되도록 제시
활동 영역	전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별로 운영하거나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시 • 창의적 표현, 사고, 수용 능력 신장에 중점
	가 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의 특성과 그 분위기를 살려 창의적으로 표현 • 특히 합창과 중창 활동에 중점
	기 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에서 학습한 리듬 악기 및 가락 악기의 연계·심화 학습
	창 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그룹별 음악 창작 및 노래, 연주 • 학생의 독창적인 음악 창작 및 표현 강조
	감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에 대하여 흥미 있고 즐겨 들을 수 있는 태도 육성 • 음악에 대하여 감상·분석·토의를 통한 음악에 대한 이해 향상
국 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실제적인 내용 제시 • 지역의 전문 인적 자원 및 음악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반주 악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의 예술성과 학생의 발달 수준에 따른 난이도 고려 제시

(3) 내용의 수준과 범위

교과서 내용의 수준과 범위는 고등 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중학교에서 이수한 내용이 연계되도록 하되, 교실에서의 교수·학습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율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론 중심의 학습을 탈피하여 실음에 의한 음악적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실생활에서의 활용을 고려하였다.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표 1〉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였다.

2. 책간 체제와 내용 비교

제 6 차 교육과정에서 고등 학교 음악과 교과서는 9 종이었으나 제 7 차 교육과정에서는 현재 5 종(재검정 합격 교과서를 포함하면 8 종)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5 종 교과서를 중심으로 각 교과서의 특징과 내용 구성을 비교해 보면 〈표 2〉와 같다.

3. 교과서 활용의 유의점

음악 수업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되느냐 하는 것은 교사가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계획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의 목표나 내용이 모든 지역의 학생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수준이나 지역적 특성, 기타 학교 행사 등을 고려하여 학교 나름대로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위 수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교과서와 지도서는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모범이 되는 교수·학습 자료 중의 하

〈표 2〉 교과서별 특징과 내용 구성

〈가나다순〉

출판사	구분	단원 구성	제재곡(감상곡) 수	특징
대한교과서(주)		학사 일정, 계절 등을 고려, 8개 단원으로 구성 1. 새로운 시작 2. 아름다운 자연 3. 영원한 마음의 고향 8. 추억과 향수 그리고 미래	제재곡 27 곡 감상곡 22 곡 실기곡 11 곡 참고곡 27 곡	-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재곡 선정 - 단원을 각 활동 영역이 유기적으로 관련되도록 구성 - 실기 영역의 확대 - 기악 학습시 수준별, 단계별 학습 제시 - 대중 음악 이해 확대 - 전통 음악 비중 확대 - 사진 자료, 참고 악보, 그림, 인터넷 사이트 등을 다양하게 제시
도서 출판 태성		가창 제재곡을 중심으로 기악, 창작, 감상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다양한 참고곡 제시)	제재곡 29 곡 감상곡 17 곡 참고곡 35 곡	- 각 활동 영역이 유기적으로 관련되도록 구성 - 다양한 평가 방법 제시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제시 - 멀티미디어 학습 활동 강조
박영사		가창 제재곡을 중심으로 기악, 창작, 감상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다양한 참고곡 제시)	제재곡 26 곡 감상곡 23 곡 참고곡 6 곡 참고 자료 22개	- 예술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가 높은 제재곡 제시 - 통합적 학습이 되도록 구성 - 다양한 감상곡 제시 - 반주 악보 수록 - 기악 능력 향상 - 다양한 자료 사용 권장 - 6차보다 학습 내용 30% 감축
세광음악출판사		가창 제재곡을 중심으로 기악, 창작, 감상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다양한 참고곡 제시)	제재곡 32 곡 제재곡 18 곡 감상(음악사 이야기, 음악여행)	- 제재곡을 중심으로 여러 활동 영역을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 - 기악, 창작, 감상 학습 강화 - ‘음악 여행’을 제시하여 음악을 역사적, 개념적으로 체계 있게 이해하도록 함. - 다양한 참고 자료 제시 - 디자인 및 선명도 고려 가독성 향상
현대음악출판사		음악적 개념을 주제로 하는 9개 단원으로 구성 1. 자연과 음악 2. 문학과 음악 3. 소리와 음악 9. 역사 속의 음악	제재곡 26 곡 참고곡 15 곡 감상곡 38 곡 (음악사)	- 다양한 국악곡 제시 - 다양한 음악 문화(음악사) 소개 - 각 활동 영역이 유기적으로 관련되도록 구성 - 난이도 중심의 계열성 고려 - 그룹 활동 확대(협동성, 단결성, 사회성 신장) - 창작 활동 강화(서양 음악, 국악 등)

나이다. 그러므로 학습 내용 및 학습 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창의적인 수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는 수업을 전개함에 있어

서 교과서와 지도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과서에 제시되는 내용도 교사가 그 순서와 내용을 학습자의 특성, 학교의 실정에 따라 재조직하여 지도할 수 있다. 교사는 필요하다면, 교과서의 소재를 바꾸어 지도할 수도 있고, 순서를 바꾸어 지도할 수도 있다. 즉, 학교의 행사를 고려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제재곡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으며 학생들의 음악적 수준에 따라 가르칠 내용의 조정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통 음악을 좀더 체계적으로 가르칠 목적이라면 전통 음악에 대한 제재곡을 모아 몇 주에 걸쳐 지도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 지역에서 널리 불려지는 전래 민요가 있고 그것이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 것이라면 굳이 교과서의 악곡을 고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도서에 제시된 연간 교수·학습 계획표는 예시적인 자료로서 학교의 행사 등 실정을 고려하고, 교사의 교육적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구성하여 교사 나름대로의 연간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미 술

■ 글 / 박은영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사)

1.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미술 교과서의 특징

제 7차 미술 교육과정에 의한 미술 교과 교육은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

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고, 아울러 미술 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미술 교과 내용은 교과의 특성과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미적 체험’, ‘표현’, ‘감상’으로 이루어진다. ‘미적 체험’은 자연과 조형물의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하며, 다양한 문화 속에서 미술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표현’은 의도한 것을 창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감상’은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의 미적 가치를 판단하고, 시대와 양식에 따른 미술품의 특성과 배경을 이해하며 미술 문화를 존중하도록 하였다.

2002 학년도부터 적용된 고등 학교 미술 교과서(5종)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우선, 제7차 고등 학교 교육과정의 성격, 구성 방침 및 편제, 시간 배당 기준을 토대로 미술 교과의 성격과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 제시되어 있는 지침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둘째는 우리 나라 전통 미술이 각 영역에서 고루 다루어지도록 작품을 선정하여 제시하였으며,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작품 정보를 최신의 공인된 자료에 의해 표기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셋째는 교과서의 단원 선정을 계절 및 학교 행사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나 지역, 행사 등 학교 실정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음을 밝혔고, 넷째는 미술의 고유 영역뿐 아니라 컴퓨터, 사진, 영상 등 정보 매체를 적절히 활용한 자료를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과서의 각 영역을 회화, 조소, 디자인, 감상, 서예 등으로 분리하여 편성하기보다 미적 체험, 표현, 감상으로 통합하여 제시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융통성 있는 교과 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실기뿐만 아니라 연구 보고서, 포트폴리오 제작, 토론법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응용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교육의 결과뿐만 아니라 교육의 과정도 중시하는 다양한 수행 평가 방법의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2. 미술 교과서별 체제와 내용 비교

미술 교과서별 체제와 내용을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3. 미술 교과서별 활용상 특성

교과서 활용에 관해서는 5종의 교과서가 나름대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한 공통점 외에 각 출판사별 교과서 특성을 통하여 활용시의 유의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학사’는 학습자 중심의 생활과 연계된 내용을 선정하였으며, 문장의 서술을 간단·명료하게 진술함으로써 교육 현장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읽을거리 등 미술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부록에서는 재료 및 용구의 사용법, 인명 해설 등의 내용을 제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금성출판사’는 발상에서 결과까지의 과정이 연계되어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구

성하였으며,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향유하는 수준을 중심으로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기 부담을 줄였고, 창의적 사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평가·관리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10 학년을 국민 공통 교과로서의 미술 교육의 마지막 단계로 설정하여 문화인으로서 알아야 할 미술의 교양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대한교과서’는 각 단원을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최소 필수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폭넓게 구성하였고, 종전의 표현 활동 위주에서 미적 체험 활동과 감상 활동을 강조하여 생활 속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향유하며, 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국 전통 문화 교육은 물론 창의력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사려 깊게 제시되었다.

‘시공사’는 미적 정서의 함양과 생활 속에서 미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자연과 인간, 환경과 재 활용, 공공 미술과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 예술제를 스스로 준비하며 디자인의 원리를 깨닫게 하는 단위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의 방향을 유도하고, 7, 8, 9학년 과정의 반복보다 다양한 자료와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여 표현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였다.

‘천재교육’은 개발 방향의 중점을 자기 발견의 기회, 창의적 사고와 표현,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 세계적 문화 시민 의식의 배양에 두었다. 또, 적은 수업에서도 큰 학습 효과를 얻기 위한 독특한 사고의 발견과 인정, 표현 의도의 존중, 다양한 물질적 특성의 체험과 느낌의 변별력의 인정, 표현 방법의 자

〈표 1〉 미술 교과서별 체제와 내용

〈가나다순〉

교육과정		교 학 사	금 성 출 판 사
영역	내용 요소		
미적 체험	자연과 조형물 의 미적 가치 이해	• 자연과 조형물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 발견 • 발견한 것을 생활에서 활용 • 생활에서 미 술의 기능 • 생활에서 미술 활용 방법	• 자연과 조형물의 미적 가치 • 미의 원리와 질서 • 조형 요소와 원리 • 감성 • 미적 질서
	미술과 문화의 관계 이해	• 미술의 정의 • 미술과 영향을 주고받는 문 화 • 전통미 • 전통 미술에서의 선의 의미 와 아름다움 • 아르누보 미술의 특징	• 미술과 문화 • 시대의 사상과 종교 • 사 회, 문화와의 관계 • 미술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 민족의 미의식 • 전통미와 현대미
표현	주제 표현	• 발상 주제 • 심상 표현 • 판화의 특징, 판의 구조에 따른 종류 • 모노타이프 • 관 념 산수 • 진경 산수 • 시각 전달 디자인 • 영 상 디자인 • 패션 디자인 • 공예 • 공업 디자인 • 새로운 표현·발상 방법 • 화가들 의 필치 • 전통적 표현 기법 • 준법 • 점법	• 창의적 발상 과정 • 재현적 발상 • 마음 의 표현 • 디자인적인 생각 • 발상과 전개 • 감정의 표현 • 민화의 상징성 • 삶의 모 습 표현 • 시각 전달 디자인과 전시 디스플 레이 • 현대 조형 서예 • 인체의 입체 표현
	표현 방법	• 염색 기법 • 선 • 인물의 성격, 표정, 자 세 • 구성 원리 • 원근 • 착시 • 색 • 형 관찰 방법 • 천연 염료 • 화학 염료 • 전 각 재료와 용구 • 서양의 정물화 흐름 • 초 현실주의 외 23	• 거리의 미술 • 도구 디자인시 고려할 요소 •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 • 전통 미술의 활 용 • 시간과 움직임의 표현 • 공간의 연출 • 개성 있는 의상 • 사진 • 광고 만들기
	조형 요소와 원리		• 콜라주 • 오브제 • 설치 미술 • 조각에서 의 강조와 생략 • 주변의 물건으로 작품 제 작 • 단순한 도형으로 구성 외 21
	표현 재료와 용구		
감상	미술품 감상	• 서로의 작품 감상 • 미술 감상 방법 • 작 품 감상 관점 • 인터넷 활용	• 미술과 시대 정신 • 시대의 대변인 • 사 회적, 문화적 배경
	미술 문화 유산 이해	• 우리 나라 미술사 • 동양 미술사(중국, 인 도) • 서양 미술사	• 미술과 종교의 관계 • 미술의 사회적 기능 • 기하학적 추상과 서정적 추상 외
부 록		• 서양 근·현대 미술의 흐름도 • 교과서에 나온 인명 사전 외	• 작품 제작 과정과 미술 학습 자기 평가표 • 박물관, 미술관 찾아보기

교육과정		대 한 교 과 서	시 공 사
영역	내용 요소		
미적 체험	자연과 조형물 의 미적 가치 이해	• 자연과 조형물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 발견, 활용 • 조형 요소 • 조형 원리	• 자연의 형과 색 • 조형적 질서 • 자연미 와 조형미의 미적 가치 비교 • 자연 친화적 조형물 • 자연물 자체를 예술품화 • 자연을 재료로 이용 • 설치 미술, 대지 미술
	미술과 문화의 관계 이해	• 미술의 정의 • 미술 문화와 생활 • 전통 미술의 특징	• 미술의 사회적 기능 • 공공 미술의 개념과 역할 • 환경 디자인의 개념과 역할 • 미술 과 관련된 직업 • 미술과 과학의 관계 • 멀 티미디어 시대의 미술

표현	주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상화의 정의, 종류 만화의 유형 애니메이션의 원리와 제작 기법 그 밖의 판화 직접 붙여 만들기 환경과 조소 영상 디자인의 목적 디자인의 분야 일러스트레이션과 포스터 디자인과 상징 디자인과 컴퓨터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전통 공예 행사 디자인 몬드리안의 추상화 과정 전통 회화 표현 기법 붓의 표현 효과 먹의 표현 효과 산업 디자인 과정 전각도 잡는 법 선 현대 조소의 재료 전각 용구 동양화와 서양화의 특징 비교 판화의 에디션 번호 자연과 디자인 외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념 미술의 정의 움직임이 있는 조형물 민화 따라 그리기 종이 공예의 특성 교내 예술제 광고하기 가장 행렬에 필요한 소품과 의상 만들기 연극을 위한 공간 만화의 종류 사진 예술 계란 낙하 실험에 따른 포장 디자인 계획 다양한 기법 실험 착시 현상 설명 쪽 물들이는 과정 부조 벽면 장식을 테라코타로 만들기 인동 덩쿨로 바구니 엮는 과정 바구니 바닥 엮기 종이 공예의 기본 형태 현실에서 현실 밖으로의 표현 방법 형태적 변형을 시도한 추상화 제작 과정 개념적 의미에 관심을 둔 상상화 제작 과정 일상의 사물로 다양한 모양을 차용 카메라의 구조 셔터 속도의 차이 한글 흘림체의 필법 초형인 새기기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이용한 창의적인 사고 육면체를 통한 조형 연습 전통 자연 염료와 색 오방색의 종류 육면체만들기 자연의 재료로 만든 생활 용품 외 21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용구		
감상	미술품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상 단계 활용(서술, 분석, 해석,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관점의 미술품 분석 미술품 분석의 기초 그림읽기
	미술 문화 유산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미술과 종교 우리 나라 미술사 다른 나라 미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나라 건축물의 특징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유물의 특징 우리 미술 문화 유산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 조사 박물관과 미술관 관람 방법 감상 보고서 작성
부 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을 활용한 작품 감상 	

교육과정		천 재 교 육
영역	내용 요소	
미적 체험	자연과 조형물의 미적 가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적 지각의 의미 미적 교감 자연의 기하학적 질서 자연 현상의 응용 의식주에서의 미적 체험
	미술과 문화의 관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문화의 미적 가치 문화 환경과 조형미 문화적 다양성과 표현의 차이 우리 고장의 전통 문화의 조형적 가치 영상 소비 문화 시대의 문화적 역할
표현	주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현의 의미 건축과 환경 미술 전통 공예의 정의 상상과 추상의 방법 산수화의 여러 가지 준법 난초 치기 순서 해서 기본획 쓰기 전각 제작 과정 석판화 제작 과정 새로운 기법과 표현 다양한 재료와 기법 빛을 이용한 방법 컴퓨터를 사용한 방법 애니메이션 제작 방법 홈페이지 구성 시각 전달 과정 디자인의 일관성 외 21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용구	
감상	미술품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상의 주체 서로의 작품 감상
	미술 문화 유산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나라 미술사 동양 서양

유로운 확대와 형식의 해체, 새로운 매체의 탐색 등을 도모하였다.

4. 미술 교육 자료 활용

그 동안 학교 현장의 가장 큰 요구는 국가 수준에서 미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양질의 자료를 확보해 달라는 것이었다.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현장의 욕구가 얼마만큼은 해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학교마다 제공된 5종의 고등 학교 미술 교과서뿐 아니라,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처음 발행된 고등 학교 선택 교과인 ‘미술과 생활’ 교과서 및 지도서도 고등 학교는 물론 중학교 미술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확보해도 좋을 자료로 생각된다. 또, 이미 에듀넷에 탑재되기 시작한 초등 학교와 중학교뿐 아니라 내년에 제작될 고등 학교 수준의 미술과 멀티 자료도 미술 교육 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영 어

■ 글 / 황인기 (교육인적자원부 장학관)

1. 영어 교과서의 특징

가.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영어 교과서 편찬 방향

- (1) 개인차를 고려한 학생 중심의 교과서
- (2) 의사 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교과서
- (3) 활동과 과업 중심의 교과서
- (4) 심화·보충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 (5)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는 교과서
- (6)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서
- (7) 국가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하는 교과서

나. 교과용 도서별 종류

- (1) 초등 학교 영어는 1종 도서로 교과서, 지도서, 보완 교재(CD-ROM 타이틀, 녹음 자료)로 구성됨.
- (2) 중등 학교 교과용 도서는 2종(검인정) 도서로 중학교 1, 2학년 15종, 고등 학교 15종임.

2. 영어 교과서 체제와 내용

가. 초등 학교 영어 교과서(1종 도서)

내용 구성

- (1) Look and Listen
- (2) Look and Speak
- (3) Listen and Repeat
- (4) Let's Sing/Chant
- (5) Let's Read
- (6) Let's Write
- (7) Let's Play
- (8) Let's Role-play
- (9) Activity
- (10) Let's Review

〈녹음 테이프〉

- (1) 교과서에 따른 부속 자료로 학생용 녹음 테이프를 제작
- (2) 단원별로 구성하고 60분짜리 테이프가 3, 4학년은 3개, 5, 6학년은 4개

- (3) 학생용 CD-ROM 타이틀과 연계
- (4) 영어를 상용하는 교양 있는 사람과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발음을 녹음
- (5)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기 주도 학습용으로 활용토록 제작
- (6)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흥미 있고 다양하게 제작
- (7) 녹음 상태가 깨끗하고 견고하게 제작

〈CD-ROM 타이틀〉

- (1) 학생용과 교사용을 따로 제작하되 내용을 차별하여 제작
- (2) 녹음 테이프와 내용이 연계되도록 제작
- (3) 단원별로 구성하되 음향, 영상, 애니메이션, 발음 등은 선명하고, 교수·학습 활동에 효율적이며 흥미 있게 제작
- (4) 사용자가 원하는 학습으로의 접속과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 사용자 아이콘 및 기능 버튼 등은 간결하게 특성을 살려 제작
- (5) 학생이 가정에서 자기 주도 학습용으로 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고, 능력 및 수준에 따라 심화·보충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

나. 중등 학교 영어 교과서(2종 도서) 내용 구성

제7차 교과서는 4도 인쇄와 그에 따른 다양한 편집으로 6차와는 다른 외양과 디자인을 가지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진일보하였다. 또, 글의 소재와 종류에서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활동과 과업의 과감한 도입을 보여 주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언어의 4 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대한 균형 있는 습득을 위하여

기능별로 세분화된 항목 설정

- 예 Listen & Get Ready, Listen & Check, Listen & Do
- (2) 제6차 교육과정에서 이해 기능(듣기-읽기)과 표현 기능(말하기-쓰기)의 순서로 배열되던 것과는 달리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음성 언어(듣기-말하기)와 문자 언어(읽기-쓰기)의 순서로 배열
 - (3) 읽기 활동과 읽기 지도 설정

- 예 Before Reading - While Reading - After Reading 명시
- (4) 문법 정리 부분 도입, 어휘 설명 및 확인
 - (5) 활동과 과업 중심의 학습을 강조
 - 예 Group Activity, Let's Have Fun, Go for it, 게임, 모둠 활동
 - (6) 다양한 학습 도움 자료 제시
 - 예 Culture Tip, Quiz, 본문 활동 자료, 심화 학습 자료, 진단 평가, 형성 평가 등
 - (7) 심화·보충 학습 자료 제시
 - (8) 부록에서는 script와 어휘 해설

다. 영어 교과서의 내용 및 조직

- (1) 내용의 선정
 - (가) 실용성에 바탕을 두고 언어의 4기능을 통합적이고 균형 있게 습득
 - (나) 의사 소통을 위한 영어 사용의 유창성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
 - (다) 국제적 안목과 외국 문화 이해를 통한 올바른 가치관을 기르는 데 도움
 - (2) 내용의 조직
 - (가) 성취 기준에서 제시한 언어의 4기능 내용을 효과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조직한다.
- 문법 중심의 내용을 지양하고 의사 소

통 기능 중심의 내용이 되도록 조직

— 의사 소통 기능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언어/의사 소통 기능을 나선형으로 조직

(나)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학생 활동 중심과 의사 소통 중심으로 조직한다.

(다) 학습 내용은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어야 하며, 교사의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활용을 고려하여 조직한다.

(라) 보충 학습 과제, 심화 학습 과제는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라. 영어 교과서의 교수·학습 방법

(1) 학습 내용은 학생의 의사 소통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간의 활동을 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 노래, 과업 등의 학생 활동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탐구적인 교수·학습 활동이 전개될 수 있게 한다.

(2) 모든 언어 재료는 이해, 사고, 기억 등의 인지 과정과 시청각의 지각성을 고려하여 최대의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의 효율적 이용에 유념한다.

(3) 새로 도입되는 어휘는 특정 단계나 단원에 편중되지 않게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본 어휘표에 없는 것은 빈도수가 높고 유용한 어휘를 사용하도록 한다.

(4) 발음 지도는 소리와 의미,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익혀 자연스러운 발화가 되게 지도할 수 있게 하고, 발음 부호는 문자의 식별에 익숙해진 연후에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저학년에서의 학습 부담

을 줄인다.

(5) 각 단원은 의사 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게 창의적으로 구성하되, 학습 목표, 내용 제시, 내용 전개, 마무리 활동, 보충 학습 과제, 심화 학습 과제 등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단원의 수와 각 단원의 학습 분량은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에 따라 무리없는 진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창의성을 살려 결정한다.

(6) 각 단위에는 삽화, 사진, 그래픽 등과 여백을 충분히 활용하여 학습의 흥미를 높이고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게 하며, 전체적으로 학습 부담이 경감되도록 구성한다.

(7) 학습 내용에는 필요한 경우, 국어나 영어로 간단한 설명이나 해설, 지시, 힌트, 보충 학습 자료, 참고 사항 등을 삽입하여 자율 학습이 가능하게 도와 주도록 한다.

(8) 활자의 크기, 활자체, 행간, 자간, 여백, 색도 처리 등은 영어 자모의 특수성과 영어 학습의 효과를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사용한다.

(9) 부록에는 듣기 자료 대본, 어휘 목록표, 필요한 그림 사진, 어휘 및 숙어의 해설, 심화 학습 자료, 진단 평가 자료, 형성 평가 자료 등을 많이 실어 자율 학습에 도움이 되게 한다.

마. 영어 교과서 자료 제시의 방향

(1) 듣기 자료는 실생활에 필요한 쉽고 간결한 단문 위주의 대화체 영어를 주로 하여 학생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짧게 제시한다.

(2) 읽기 자료의 형식은 설명문, 대화문,

보고문, 논설문, 일기, 편지, 광고문 등 다양하게 선택하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쉬운 내용을 위주로 하고, 글 전체의 의미 파악이 쉽게 되도록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 (3) 말하기 자료는 실생활에서의 상황 중심으로 조직하되, 실제적 구두 훈련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걸쳐 연계성을 가져 의사 소통 기능을 포괄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 (4) 쓰기 자료는 이미 배운 내용을 주로 취급하고, 일상적인 표현의 실용성을 고려하여 학생이 직접 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작문의 과정을 중시한다.
- (5) 새로운 어휘는 가급적 문장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제시하되, 유의적 반복 학습이 되도록 적절히 분포시킨다. 언어 표현은 자연스럽고 정확하며 실제적인 것으로 하고, 철자법, 발음 기호, 강세 표시, 문장 부호, 로마자 표기법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하여 정확하게 표시하며 전후의 모순이 없도록 한다.

3. 영어 교과서 활용 방안

첫째, 교과서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활용해야 한다. 교과서는 학습 활동의 초기 단계에는 주로 흥미 유발과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한다. 학습의 전개, 발전 단계에서는 교과서 자체를 학습 활동의 자료나 구체적인 도구로 사용하여 학습자의 언어 사용을 촉진시키며, 특히 아동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단계에서 필수적이다. 그리고 학습의 정리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 학습을 반복하고 점검할 수 있는 도

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배운 내용을 상기시키고 기억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여기고 학습의 모든 운명을 거는 무모한 일이 없어야 한다. 교사는 교과서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좋은 교재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원이나 단원 내 자료에 대한 취사 선택은 물론 단원의 순서를 바꾸거나 학생 활동이 용이하도록 자료를 고치거나 첨가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교수법이야말로 학생들이 흥미롭게 학습에 임하도록 이끈다는 점과 함께 일방적인 교사 중심의 수업 방법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려는 끊임없는 교사의 관심과 정성만이 최선의 길이다.

셋째, 학생들은 교과서가 모범적인 영어 학습 교재 중의 하나임을 알고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어 신문, 잡지, 노래, 영화, 방송, 인터넷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좋은 영어 학습 자료가 교실 수업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과 탐구 『경상북도의 생활』 활용 사례

글 / 이규호 (포항 대보초등학교 교감)

I. 들어가며

교육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용 도서 편찬 기본 방향¹⁾으로, ‘㉠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교과서, ㉡ 활동 중심의 문제 해결형 교과서, ㉢ 수준별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 ㉣ 제재(소단원) 간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추구하여 가능한 한 한 주제(중단원) 내외 2~3개 제재가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과 활동으로 통합되고 연계된 교과서, ㉤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여 편집상 혁신을 이루고 멀티미디어 학습과의 관련성을 제고하며, 지역 안에서의 세계화 시각을 반영하는 등 동심원 확대법의 원칙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교과서’ 등을 제시하였다.

교과서는 전국의 모든 학교(학생)를 대상으로 개발되는 것이므로, 어떤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내용이 많고 다른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내용이 적을 수도 있으며, 한 학교에서는 내용이 너무 쉽다고 할 수 있고 그 옆의 학교에서는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분명히 학습 내용의 양을 줄였고 수준도 하향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적은 내용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교과서의 내용량과 난이도의 수준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그 학교의 실정(학생들의 특성 등)에 맞추어 그 학교만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렇게 만든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데 교과서가 활용된다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는 학생의 활동을 강조하는 교과서가 되었다. 따라서, 교과서가 이렇게 개발된 데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은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학생 수가 바라는 대로 줄어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가르치겠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 수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어야겠지만, 활동이란 개별적인 것도 있고 소집단, 대집단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도 있으며, 집단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교과서대로 가르치는 교육이 전개된다면 우리 교육의 앞날은 암담하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의 내용이 많다는 지적은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모든 학생이 필수

적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오해인 경우가 많으며, 이제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과 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교과서를 선택적으로 재구성하여 가르치는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교과서 『경상 북도의 생활』 4-1을 활용하는 방법과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몇 가지 기본 전제들

1.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역화²⁾

사회과 교육과정 지역화는 크게 내용의 지역화와 방법의 지역화로 나눌 수 있는데, 내용의 지역화는 곧 ‘지역’에 대한 학습으로서의 지역화(About the Region)이다.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우리 고장, 우리 지역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지역화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과 교육과정을 지역화하는 경우, 그 교재는 우리 고장, 우리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및 사회적 사실과 현상 전체를 체계화하여 담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지역화’는 곧 우리 고장,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고장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살기 좋은 고장과 지역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가치 태도의 함양이라는 목적(For the region)의 추구로 이어지게 된다. 이 유형의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주로 3학년과 4학년 1학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회과 탐구 『경상 북도의 생활』은 이를 위한 좋은 자료이다.

2. 『사회』 교과서와 『사회과 탐구』 교과서의 구성³⁾

4학년 1학기에 적용되는 지역 교과서 『경상 북도의 생활』은 『사회』 교과서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지역 자료를 담은 학습 자료로 편찬하였으며, 내용과 방법을 함께 지역화하여 학습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제별 선택 학습이나 단원 정리 학습 등 심화·보충 과정은 『사회』 교과서에만 제시하였다. 그러나 4학년 2학기부터의 『사회과 탐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 체제면에서 『사회』 교과서와 차별화되어 있다.

가. 『사회』 교과서는 교육 과정의 ‘기본 과정’에 나타난 핵심 개념의 이해를 위한 문제 해결 활동과 그에 따른 본문 내용 및 필수적 자료로 구성하였다.

나. 『사회과 탐구』 교과서는 각 제재별로 기본 과정의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 자료와 활동 아이디어(활동지), 보충·심화 활동 및 그에 수반되는 자료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4학년 1학기 교과서의 경우 『사회』 교과서를 통해 수준별 교육 과정을 반영한다. 심화·보충 과정은 『사회』 교과서의 주제와 단원별로 반영하며 주제, 단원 학습을 마친 아동에게 다음의 세 수준의 활동을 제시하고 흥미와 능력 수준에 따라 선택하게 한다.

3수준	• 고차적 사고력 신장과 흥미, 관심의 시·공간적 확대를 추구하는 활동
2수준	• 기본적 지식의 이해와 적용, 분석적 사고를 목표로 하며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는 활동
1수준	• 기본적 지식의 이해를 확인하고 정착시키는 활동

또한, 단원 끝 부분의 확인 학습과 선택 학습 활동은 단원 내용의 종합 및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고 각 수준에 상응하는 활동명을 제시하며, 3 수준의 심화 활동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심화 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된다.

3수준	심화 활동	선택 학습	우리 힘으로 해결해요!
2수준	보충 활동		재미있어요!
1수준		확인 학습	무엇을 배웠나요?

다. 단원별로 이루어지는 심화·보충 과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 구성 방식에 따라 구성한다.

- (1) 확인 학습과 선택 학습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 (2) 확인 학습은 모든 학생에게 필수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며 보충 과정의 반영으로 개별 학습에 의해 수행하게 한다.
- (3) 선택 학습은 보충 과정과 심화 과정의 두 과정을 반영하는 두 수준의 활동으로 구성하여 제시한다.(보충 과정 : 재미있어요 !, 심화 과정 : 우리 힘으로 해결해요 !)
- (4) 확인 학습은 1 쪽 정도, 선택 학습은 각각 2 쪽 정도의 지면을 할애하여 구성한다.

Ⅲ. 활용의 실제

1.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역화

가. 기본 계획

- (1) 교과 목표 - 〈생략〉
- (2) 학년 목표
 - (가) 경상 북도의 자연 환경과 그에 따른 주민들의 유통·생산 활동의 모습을 파악하여, 자연 환경과 주민 생활 모습과의 관계 및 지역 간의 상호 의존 관계를 이해하게 하며, 지역 사회 주민들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파악하게 한다.
 - (나) 옛 도읍지의 문화재를 통하여 우리 나라 역사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박물관의 기능을 중심으로 문화재의 중요성과 보존·계승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 (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사회 변화에 따른 가정 생활의 특징을 이해한다.
 - (라) 여러 가지 자료로 우리 도의 현상을 조사하여 지도, 연표, 그래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고,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 능력을 기른다.
 - (마) 우리 도의 일상 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습관화하고 지역의 공동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 (3) 지도 중점
 - (가) 우리 도의 자연과 생활 모습의 특징 알기

(나) 우리 도의 자원과 생산 활동과의 관계, 물자 유통 및 상호 의존 관계 알기

(다) 지방 자치에 관한 학습 강화

(라) 우리 나라 왕조의 변천 과정 파악(우리 도의 명칭 변천 파악)

(마) 문화 유산 보존, 계승, 발전의 자세 알기

(4) 영역별 내용 - <생략>

나. 수준별 활동 목표 및 내용 - <생략>

다. 연간 지도 계획(1 학기 - 17 주분 중 3월 4 주분만 게재)

월	주	차시	누가 시수	단원명, 주제명, 제재명	국가 수준 교과서 쪽	사회과 탐구 쪽 (경상 북도의 생활)
3	1	1	1	1. 우리 시·도의 모습 단원 도입 및 계획	2~5	6~7
		2-3	3	① 지도에 나타난 우리 시·도의 모습 ① 지도를 알아보자.	6~13	8~15
	2	4-5	5	② 지도를 이용하여 배우자.	14~19	16~22
		6	6	㉞ 선택 학습(심화·보충 학습)	20~21	—
	3	7-8	8	② 우리 시·도의 자연 환경과 생활 ① 우리 시·도의 사계절	22~25	23~29
		9-10	10	② 자연 재해의 극복	26~31	30~35
	4	11	11	㉞ 선택 학습(심화·보충 학습)	32~33	—

2. 사회과 탐구 『경상 북도의 생활』의 활용상의 유의점

가. 교사용 지도서를 참조하여 교재 연구를 충분히 하고 교과서를 분석하여 그 교실에 적절한 『경상 북도의 생활』의 투입을 결정한다.

나. 학생들이 주요 사실이나 개념을 찾기보다는 참여와 활동을 강조하는 수업을 전개해야 한다.

다. 『경상 북도의 생활』은 제 6 차 교육과정기에서와 같이 주교과서로 사용될 수 없으며, 교과서를 지원하는 보조 교과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여 자료 및 『사회』 교과서의 활동 내용과 관련이 있는 지역화 학습 등의 부가적 활동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수업 시간에는 『사회』 교과서와 『경상 북도의 생활』이 언제나 함께 사용되는 읽기 자료, 활동을 위한 자료로 쓰여져야 한다.

라. 『경상 북도의 생활』은 현장 학습 지침서로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로 ‘활동’의 형태로 안내되고, 활동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어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 수준별 학습은 『사회』 교과서의 선택 학습 및 단원 정리 학습을 통해, 그리고 『경상 북도의 생활』 자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 구체적인 활용 사례

가. 『경상 북도의 생활』 활용 방법⁴⁾

『경상 북도의 생활』 4-1의 활용은 『사회』 교과서에 의해 안내되는 탐구와 문제 해결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학습 자료집이며, 지역 탐구의 성격을 지니므로 교과서에 의해 안내되는 탐구나 문제 해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경상 북도의 생활』의 내용은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거나 익숙하게 상상할 수 있는 실제적 상황, 사례 문제를 학습 문제 또는 소재로 선정하였으므로 협동 학습, 토의 학습에서 강조되는 학생 간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특히,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과는 장기 과제와 협동 학습이 학습 내용 못지않게 방법상 중요한 요인이므로 과제 제시는 장기, 중기, 단기 과제별로 제시하고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4-1 지역화 자료를 지도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단원명 : 1 경상 북도의 모습
- ☐ 주제명 : 경상 북도의 자연 환경과 생활
- ☐ 학습 목표 : 경상 북도의 사계절 (8/18)
- ☐ 관련 자료 : 『사회』 교과서 (24~25 쪽), 『경상 북도의 생활』 (24~29 쪽)
- ☐ 『사회』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문제

- ◎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의 기후를 조사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자.
- ◎ 우리 시·도의 계절 변화가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 위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 북도의 생활』 자료를 제시한다.

☐ 교재 연구의 방향

- (1) 경상 북도의 기후-기온과 강수량을 조사하되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은 특정한 한해의 것을 조사하기보다는 최근 5~10 년간의 것을 조사한다. (원칙적으로는 30 년간을 단위로 한 ‘평균 기온’, ‘평균 강수량’으로 하여야 함.)
- (2) 안동과 영덕의 기온과 강수량(25 쪽)도 특정한 해를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요즈음은 예기치 못한 국지적인 집중 호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 (3) 『경상 북도의 생활』에 제시된 두 지역(안동, 영덕)만을 가지고 자료로 삼기보다는 기상 측정시 가능한 포항, 안동, 영덕, 영주, 울진, 춘향, 문경, 의성, 구미, 영천, 대구 등 11 곳의 기후를 조사하여 자기 고장과 가까운 곳의 기후 자료를 가지고 내륙 지방과 해안 지방을 비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기후를 자세히 알아보거나 인근 기상대를 찾아가서 자료를 제공받는다.)
- (4) 제시된 도표의 수치는 변화의 추이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5) 『경상 북도의 생활』 27~29 쪽에 제시된 사계절 축제 자료는 계절의 변화가 우리 생활

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알기 위해 계절별, 월별로 제시하다 보니 각 시·군의 축제를 골고루 소개하지 못했으므로 이 자료는 지도 교사가 그 지역의 사계절별로 개척되는 행사를 소개하거나 계절별 절기를 제시하여 본 자료는 참고에 그치도록 한다.


□ 교수·학습 과정안

단 계	학 습 활 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 유발 ○ 암호 풀이 게임하기 (지도서 ××페이지 참고, 자료 ○○설명) ○ 전시 학습 상기하기 ○ 학습 문제 제시 및 목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도의 기후 알아보기 	5'	◎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전시를 상기시킨다. ◎ 전체 학습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활동 과제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1: 우리 도의 기온의 특징 알아보기 —과제 2: 우리 도의 강수량의 특징 알아보기 —과제 3: 계절의 변화에 따른 생활 변화 알아보기 —과제 4: 사계절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 조사하기 ○ 학습 방법 확인 학습 활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된 4 가지 과제 중에서 원하는 과제를 선택하기 —같은 과제끼리 모으기 —과제 해결 방법 토의하기 ○ 미리 조사해 온 내용과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도에 나타낼 항목 토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1: 우리 도의 기온의 특징 알아보기 (p.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온이 가장 높을 때와 그 때의 최고 온도 •기온이 가장 낮을 때와 그 때의 최저 온도 —활동 2: 우리 도의 강수량의 특징 알아보기 (p.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수량이 가장 많을 때와 그 때의 강수량 •강수량이 가장 적을 때와 그 때의 강수량 —활동 3: 계절의 변화에 따른 생활 변화 알아보기 (p. 26) ○ 위도가 같은 우리 고장과의 기온과 강수량 비교 (p.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4: 사계절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 조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항의 사계절 축제와 우리 도의 축제 •우리 도에서 기후와 관련된 축제 조사 	25'	☆ PPT 자료 제시 ◎ 아동 스스로 과제 선택을 고르게 한다. ☆ 사회과 부도 ☆ 사회과 학습 백지도 ☆ 그래프 ☆ 학습지 ◎ 우리 고장 또는 인근 고장의 기후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활동 경과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도의 기후와 강수량 알아보기 —스피드 게임으로 기후의 특징 알기 —우리 도의 기후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 —학습 활동이 끝난 학생 형성 평가하기 ○ 완성한 학습 결과를 확인하기 ○ 차시 예고 	10'	학습지 1, 2, 3, 4

Ⅳ. 나오며

교과서는 모든 학생들이 갖추고 있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료의 하나로 생각하고,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르치기보다는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지도 내용을 축소하고 교과서 이외의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관계되는 다양한 학습 자료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의 제7차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성패는 각 교실에서 직접 학생과 대면하여 그들의 학습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의 교수·학습 개선 의욕과 실천 의지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도교육청 수준에서 심혈을 기울여 사회과 탐구 본질 구현에 필요한 교재 연구, 다양한 교수·학습 기법과 발문, 수업에 필요한 자료와 활동 아이디어 창출 등이 교사의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발되어 주어지는 사회과 탐구도 활용 가치가 반감될 것이다. 『경상 북도의 생활』 자료 역시 완벽하지 않기에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부단하게 고쳐 가고 덧붙여 가는 ‘만들어 가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경상 북도 교육청 (2001), 교육 경북 제 125 호
- 교육부 (1999),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 교육부 (2001), 초등 학교 교사용 지도서 『사회』 4-1

1) 교육부 (2001), 초등 학교 교사용 지도서 『사회』 4-1. p. 20

2) 상계서, p. 43

3) 교육부 (1999),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p. 50~54

4) 변상호 (2001), 제 7 차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학습 지도, 교육 경북 제 125 호, 경상 북도 교육청 P. 62~64

교과서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

■ 글 / 김정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교과서 연구 목적은 사실 관계의 유·무, 진·위, 다·소를 분석하고, 질적 구조를 평가하여 전범(典範)은 일반화시키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찾으려는 것이다. 먼저, 교과서 연구 관점과 판단 기준을 본 뒤에 분석할 사항을 예시하고자 한다.

1. 교과서 연구의 관점과 판단 기준

교과서 연구에는 심리학적 관점, 과학 철학적 관점, 교육학적 관점이 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주제가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교수·학습이라는 교육 상황을 중심으로 상호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모두 묶어서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심리학적 관점은 학습자가 사물을 인식해 나가는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그 쟁점은 학습을 능동적 인식에 따른 주관적 의미 형성 과정으로 보는 구성주의 인식론과, 학습자와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는 객관적 진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객관주의 인식론 간의 옹고·그림에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은 자기 주도적 학습과 창의적 사고를 강조하는 점에서

볼 때 교과서 구성과 교수·학습 설계에 구성주의 관점을 배경으로 한 듯하다.

과학 철학은 지식의 존재 의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지식을 절대적인 진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잠정적인 가설로 볼 것인가를 쟁점으로 한다. 잠정적인 가설로 본다면 구성주의 인식론과 연계되고, 절대 진리로 보는 관점은 객관주의 인식론과 관련된다. 그리고 교육학적 관점은 학습을 통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는 인간상과 사회상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가치 판단을 말한다. 이 교육적 관점은 교과서 내용과 인식 과정을 모두 아울러 왜, 무엇을 위하여 교육하는가를 밝히려고 한다.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Sowell(2000 : 162)이 제안하는 내용 선정 기준인 ‘내용의 타당성과 중요성, 학습 가능성, 적절성, 일관성’을 사용해 볼 수 있다.

○ 타당성과 중요성

교과서 내용을 교육 목표에 비추어 평가하는 준거이다. 타당성이란, 교과서 내용은 교

과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와 학습자의 필요와 관심, 사회적인 문제 등에 비추어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올바르게 진술된 것을 말한다. 학습자의 일상적인 관심사보다는 교과 내용의 원리나 일반화된 지식을 제시하는 것과 사회 문제의 경우 다중이 관련되는 문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타당한 편이다. 그리고 중요성이란, 학습자가 교과서를 활용하여 학습을 할 때 의미 있는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성은 어디까지나 학습의 주체인 학생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교과에 배경 학문 논리 체계상 중요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교과 교육과 배경 학문 교육을 가름하는 중요한 경계선이라 할 수 있다.

○ 학습 가능성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도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는 내용을 실은 교과서는 학습 가능성을 무시한, 저자를 위한 교과서이지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관점은 교과서 저자가 대상 학생의 지적 발달 단계와 실제 수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 단계에 맞는 내용을 가르쳐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지식(先知識)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익혀 가는 지식의 축적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 적절성

학습자의 필요와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필요와 관심사는 학습자의 나이와 주위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므로 교과서는 이를 반영하여 개인과 환경에 맞는 내용을 선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전국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특정 지역이나 개인 성향에 가까운 문제를 도입한다면 이는

내용의 적절성이 약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 일관성

교과서 내용이 사회·문화 현상의 실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을 말한다. 어느 교과에 교과서라 하여도 학습자의 삶과 관련되는 모든 문화 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는 정합성이 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는 같은 상황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본 것이므로 서로 정합성을 유지한다. 교육은 사회가 새로운 성원을 사회화하며 동시에 개인에게 잠재력을 발휘토록 하는 기회를 주는 공공 활동이다. 따라서, 교육 내용은 사회적 실재를 일관성 있게 반영하여 학습자가 배울 수 있도록 선정해야 타당성과 적절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이 관점이 서로 정합성을 이루지 못하는 교과서가 있다면, 그것은 근원적인 문제점을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교과서 구성 모형 연구 방법

교과서 모형이란 것은 교과서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양상(repeating pattern)을 추출하여 추상화시킨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교과서 모형은 보통 구성 체제에 따라 지식 중심형, 탐구 중심형, 사고 중심형으로 나눌 수 있다 (Chiappetta, E.L 등, 1991).

가. 지식 중심의 구성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교과 지식인 경우는 학생이 정보·사실·개념·원리·법칙·이론 등을 암기토록 교과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사실, 개념, 원리 및 법칙을 제시한다.

- 가설, 이론, 및 모형을 제시한다.
- 학생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기억하기를 요구한다.

나. 탐구 중심의 구성

교과 교육의 목표를 무엇을 발견하는 데에 두고 학생의 사고와 행동을 자극하려는 경우를 탐구 중심이라 한다. 이 유형의 교과서는 과학 학습을 하면서 학생이 관찰, 측정, 분류, 추론, 기록, 추정(계산), 실험 등과 같은 과학적 탐구 과정과 방법을 익히고 실제로 해 보도록 내용을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성향을 보이는 내용을 이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

- 학생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도록 한다.
- 학생이 추정하는 과제를 준다.
- 학생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합당한 근거를 들어 대답하도록 한다.
- 사고 과정이나 활동에 학생이 참여토록 한다.

다. 사고 과정 중심의 구성

이 유형의 교과서는 과학자가 어떻게 연구를 하며 과학적 지식을 발견하는지를 보여 주며 사고와 추론 및 반성 등을 강조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과학자가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를 기술한다.
 - 과학의 객관성을 강조하고, 가정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 과학자가 연역적·귀납적 추론을 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 인과 관계를 제시한다.
 - 증거와 증명에 대해 토론한다.
- 어느 교과서든지 이 중 어느 한 유형에만

속하여 다른 것을 배척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는 가려 낼 수 있다. 우리 나라 교과서는 주로 지식 중심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으나, 제 7 차 교육과정은 탐구형 교과서를 강조하여 사고·탐구로 전환되고 있다.

3. 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 방법

교과서 내용은 구성 체제와 목표 진술, 내용 요소 등 구체적인 부문별로 나누어 연구할 수 있다.

○ 내용 구성

논리 전개 방식을 기준으로 연역형·귀납형, 설명형·탐구 과정과 목표를 중심으로 수렴형과 발산형, 내용 중심과 탐구 중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목표 진술

학습자 중심으로 목표를 진술하는 경우에도 그 중심 요소와 학습 활동 양상에 따라 목표 진술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 중심 요소가 단원 전체 내용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문인가?
- 단원 내용의 포괄성은 어느 정도인가?: 포괄성보다 세부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진술하면 환원주의 오류에 빠져 전체를 놓칠 수 있고, 포괄성을 너무 강조하면 학습 활동 자체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
- 학습 활동이 얼마나 다양한가?: 블룸의 목표 분류론에 따른 활동 요소를 분석해 보면 학습의 다양성 정도를 알 수 있다.
- 목표와 내용 및 방법의 정합성은 있는가?

○ 문장 진술

문장은 어법에 맞는지, 전개 과정이 논리적인지, 중심 내용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 질문 내용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과 지식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사고를 유도하는 질문이 필요하다.

○ 내용 요소

교과서에 제시한 내용 요소의 위계와 범위는 적절한지를 분석한다.

○ 학습 활동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얼마나 필요한 활동인가를 분석한다.

○ 그림·사진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와 별 관계 없는 장식용 및 그 자체가 하나의 텍스트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의 삽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인물의 성향

교과서에 소개한 인물의 의의

○ 평가 문제

단원 중간이나 끝부분에 제시하는 평가 문제가 요구하는 대답에 따라 학습 내용 확인형, 새로운 지식 창출형으로 나눈다.

○ 난도(難度) 분석

교과서 난도는 학생의 가독성이나 이해도에 따라 결정되며, 난도 발생의 유형은 크게 우연적 난해성, 논적 난해성, 상황적 난해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주요 변인은 어휘, 내용 자체, 문장 진술 방식 등이다.

- 어휘(우연적 난도) : 어휘(용어, 개념)는 문장을 이루는 요소인데,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난도가 결정된다. 문

장을 어렵게 구성하거나, 한자어로 된 어휘를 한글로만 표기하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 내용 자체(본질적 난도) : 누구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개념과 생활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한다. 선개념과 연결되지 않는 개념이나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내용, 인지 발달 수준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자체가 교과서를 어렵게 만든다. 주로 배경 학문의 이론 체계를 그대로 도입하여 교과서 분량과 학습 시간에 맞추어 줄이는 과정에서 어려운 전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 글의 구성성 문제(논리적 난도) : 교과서 문장을 학생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친숙한 소재를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않거나 전개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지나치게 생략해 버리는 경우 또는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면 문장 진술과 관계 없이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우리 교과서는 많은 내용 요소를 적은 분량에 담기 위하여 요약형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서 논리적 난도를 유발하게 된다.

○ 논리적 오류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오류는 사실 오류(주로 인명, 지명, 통계 등), 개념 오류(개념 정의는 다양하지만 그 기본 요소의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론 오류 등 단일 부분 오류와 요소와 요소 간의 관계 진술의 오류 등이 있다. 개념이나 이론의 오류 여부는 학설상 견해 차이가 있으므로 통설에 따

라 판단해야 한다.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못하기 쉬운 예는 다음과 같은 점이다.

- 주장의 불명료성 : 주장의 근거를 댈 수가 없는 것인데, 예를 들어, ‘우리는 지나친 소비를 그만두어야 한다. 정부가 국가 경제를 망쳤다. 한국 사회는 시민 사회가 아니다.’와 같은 주장은 ‘지나친 소비, 경제를 망쳤다, 시민 사회’ 등의 어구로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
- 신뢰할 수 없는 근거의 유형 : 이의 주요 유형은 ‘과잉 일반화, 인과적 관계의 과잉 단순화, 신뢰할 수 있는 근거 결여, 편향된 정보, 감정에 호소’ 하는 편이다. 이 유형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호 배타적인 범주로 나눌 수는 없다.
- 과잉 일반화 : 과잉 일반화는 일반화를 이끌어 낸 사실을 지나치게 뛰어넘어서 일반화를 할 때 생긴다. 예를 들어, ‘학생이 학교보다 학원 강의를 신뢰한다. 수업 중에 잠자는 학생이 많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공교육은 붕괴되었다.’는 주장은 과잉 일반화된 것이다. 실증 연구를 할 때 소수의 표본에서 얻은 결과를 일반적인 원리인 듯 주장하거나, 이상과 같이 편중된 부분적인 사례를 들어 전체 상황을 추론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일이다.
- 인과 관계의 과잉 단순화 : 인과 관계의 과잉 일반화 예를 보면, ‘공교육 실패 원인은 정부가 한 잘못된 교육 개혁 정책이다.’와 같은 진술이다. 이 진술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 정책이 공교육 실패의 일차적(근본적) 원인

은 아니다. 한국 공교육 문제는 전통적인 교육 문화와 사회 변동 간의 부조화, 제도 취지와 구성원 의식 간의 차이 등 여러 부문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 개혁 정책(원인)을 공교육 붕괴(결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진실이나 더 중요한 원인이 빠져 있기 때문에 과잉 단순화라 할 수 있다.

- 자료원의 신뢰도 저하 : 주장의 근거를 신뢰롭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경우는 정보원이 신뢰성을 결여한 경우이다. 따라서, 정보를 어디서 얻었으며, 정보원은 신뢰로운가를 따지는 일이 중요하다.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정보원이 드러나지 않았거나 편향된 정보를 제시할 경우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의 오류를 분석하여 그 대안을 찾는 것이 교과서 연구의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김광수(1997), 논리와 비판적 사고, 철학과 현실사
- 김정호 외(1998), 교과서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Chiappetta, E.L., Fillman, D.A. and Sethna, G.H. (1991), A Method to quantify majority themes of scientific literacy in science textbook, J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713-725
- Sowell, E. J.(2000), Curriculum—An Integrative Introduction. Prentice Hall, Inc

일본의 새 교육과정 시행과 주 5일제

■ 글 / 김용만(동경한국학교 교장)

1. 새 학습 지도 요령과 이와 관련된 교육 개혁

금년 4월부터 시작된 일본 신학년도의 교육계의 큰 이벤트는 역시 새 교육과정(學習指導要領)의 시행과 주 5일제의 전면 실시이다.

새 학습 지도 요령은 교육 내용을 기초·기본 중심으로 선정하여 기초 학력을 충실히 익힐 것을 전제로 하여, ①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배우며,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문제 해결 능력과 자질, ② 스스로 행동하고 남과 협조하여 생활할 수 있는 풍부한 인간성, ③ 건강과 체력 등 능률하게 살아갈 능력을 기를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첫째, 풍부한 인간성과 사회성, 국제 사회에서 살아갈 일본인으로서의 자각과 육성, 둘째, 스스로 공부하고 사고하는 능력 육성, 셋째, 여유 있는 교육 활동의 전개 속에서 기초, 기본을 확실히 익히면서 개성을 살리는 교육에 충실할 것, 넷째, 각 학교가 창의성을 살려 특색 있는 교육,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 것에 교육의 중점을 두고 있다.

문부성은 이런 요지의 학습 지도 요령의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심성 교육'의 충실과 '기본 학력'의 향상을 교육 개혁의 슬로건으로 내걸고, 새 학습 지도 요령의 목표 실현과 연계시키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학습 지도 요령을 주 5일제 완전 실시와 연계하여 개정하였지만, 학습 지도 요령 개정과 함께 심성 교육의 충실과 기본 학력의 향상이라는 새로운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심성교육(心の教育)의 충실이란, 지금의 학생들에게 사회 체험이나 자연 체험, 생활 경험의 회박화, 가정과 지역의 교육력 저하 등에 의하여 생기는 최악의 판단이나 규범 의식, 남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 충분치 못하고 대인 관계 능력을 몸에 익히지 못한 면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 가정, 지역 사회가 연대하여 아동의 풍부한 인간성을 길러 주는 심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심성 교육을 위하여 도덕 교육을 강화하여 아동의 문제 행동 등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아동 자신이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도덕

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는 체험 활동 등을 통하여 학생의 마음을 변화하도록 하여 도덕적 가치를 자각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개정된 학습 지도 요령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기도 하지만, 문부성은 학생용 책자 ‘심성 노트’란 것을 제작하여 전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학생들이 도덕적 가치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는 기회를 얻게 하였다. 또, 지역의 인생 경험이 풍부한 인사나 다양한 전문 분야의 사회인을 심성 지도 교사로 학교에 배치토록 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풍부한 체험 활동 추진을 위해 추진 지역, 추진 학교를 지정하여 타교의 모델이 되게 하고 있다.

기본 학력의 향상은 일본 학생들이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한 학습 의욕, 스스로 조사하고 판단하는 능력,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식·기능뿐 아니라 학습 의욕이나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을 모두 학력의 범주에 넣어, 이것을 학생들에게 육성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기본 학력은 새 학습 지도 요령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① 개별 지도나 수준별 그룹 지도를 통한 기초, 기본의 습득, ② 학습에서 관찰·실험, 조사·연구, 발표·토론 등 체험적·문제 해결적 학습 중시를 통한 학습 의욕, 사고력 등의 육성, ③ 고교에서의 선택 학습 폭의 확대 실시를 통한 능력·적성·흥미·관심, 진로 희망에 따라 보다 심화되고 수준 높은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 등과 관련이 있다.

문부과학성은 이 ‘기본 학력 향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2002년 1월 17일 ‘학습의 길잡이(学びのすすめ)’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인수 지도, 수준별 지도 등 개별화 지도를 통하여 기초·기본의 확실한 정착이나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사고·판단하는 능력을 기른다.

② 학습 지도안은 최저 기준이므로 이해가 빠른 학생을 위해 발전적인 학습으로 그 능력을 키워 나간다.

③ 통합 학습 시간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배우는 즐거움을 실감하는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여, 장래 학생들이 새로운 과제에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과 의욕을 기른다.

④ 방과 후나 아침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보충 학습이나 독서 등을 권장하고 지원하며, 적절한 숙제나 과제 등으로 가정 학습을 충실히 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 습관을 기른다.

⑤ 학력 향상의 프론티어 사업 등을 계획하여 기본 학력 향상을 위한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고 그 성과를 적절히 평가한다.

이상의 ‘심성 교육’과 ‘기본 학력’을 2개 축으로 한 교육 개혁안은 새 학습 지도 요령의 시행에 맞추어, 이의 완벽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으로 나온 것인데, 학습 지도 요령 개정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나 학력 저하 우려 등과 같은 변화된 사회의 요구에 따라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나라의 제 6, 7차 교육과정에서 등장한 레퍼토리라 별로 새로울 것이 없지만, 근래 주 5일제 수업 완전 실시에 따른 학력 저하, 공사립 간의 학력 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면서 낸 대책들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새 학습 지도 요령이나 이를 보완하는 교육 개혁안은, 함께 시작되는

주 5일제 완전 실시와 톱니바퀴처럼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2. 주 5일제의 실시 추진 과정과 문부과학성의 노력

주 5일제, 즉 주휴 2일제는 지난 15년간 일본의 중앙과 지방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투입해 가면서 완전 실시를 향해 왔다. 즉, 1987년의 교육과정심의회 답신에서 ‘학교 주 5일제를 점진적으로 도입……’을 제안한 이래, 학교,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당사자와 각계의 반대, 반발을 이해와 설득, 협력자 회의와 실험 학교 등에서의 조사 연구 보고서 등을 통한 설득력 있는 입증 과정을 거쳤다. 월 1회의 토요 휴무(1992년), 월 2회의 토요 휴무(1995년. 단, 교원은 제외) 등의 과정을 거쳐 오다가 완전 실시를 결정하게 된 것은 1996년 7월에 제출된 중앙교육심의회 제1차 답신 ‘21세기를 전망한 일본 교육의 본질에 대하여’에서이다. 그 답신에서는 지금부터의 학교 교육의 기본을 ‘여유로움’ 속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등 ‘살아가는 능력(生きる力)’을 육성하는 데 두고, 교육 내용의 엄선, 심성 교육이나 개성을 살리는 교육의 추진, ‘통합적 학습의 시간’ 도입 등을 제시하면서 주 5일제 학교의 완전 도입을 제안했다. 교육과정심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1998년 7월, 주 5일제의 완전 실시에 대응한 교육과정의 기준 개정에 대해 답신하고, 동년 중에 새 학습 지도 요령이 결정되었다.

문부과학성은 주 5일제 완전 실시의 취지를 “학생들이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는 시간 비중을 높여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을 늘리고, ‘여유로움’ 속에서 학교·가정·

지역 사회가 일체가 되어 학생들의 사회 체험이나 자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시켜,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나 풍부한 인간성, 능률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건강이나 체력 등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주 5일제 완전 실시에 따른 제반 조치 즉,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과 충실한 체험 활동 운영, 지역 사회를 향해 열린 학교 만들기, 학급 경영 및 학생 지도, 교원의 근무 시간, 교직원의 연수 등 학교가 해야 할 일과,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의 학생의 활동 편의 도모, 가정 교육의 역할, 체험 활동의 충실, 학생 이용 시설 확보, 학생의 안전 보호, 지역 전체에서 학생을 위한 환경 조성, 민간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정보 제공 장려, 관계 기관간의 협조 등 가정과 지역 사회가 할 일에 대한 조치를 각 산하 기관, 단체에 통지했다.

처음에 주 5일제 완전 실시를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때는 여유로움 또는 여유 있는 교육, 풍부한 인간성 육성이 분위기의 주류를 이루어 그 쪽으로 치우쳐 학습 지도 요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 시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막상 이들의 완전 시행에 이르게 되니까 학력 저하, 기본 시설이나 조건 미비, 공사립 간의 격차 확대 등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문부성은 궤도 수정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문부성은 일본 사회 전체에 토요 휴무가 일반화되는 변화 속에서, 그 변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학교 주 5일제 완전 실시를 위해 15년의 세월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막대한 에너지 소모로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아직도 사립 학교의 불참, 가정과 사회의 소극적 대응 등의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지금

도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3. 주휴 2일제에 대한 논란

그러나 완전 주 5일제 실시를 전후하여 ‘주휴 2일’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이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 심화 문제를 꼽는다. 문부성이 새 학습 지도 요령의 내용을 30% 삭감하고 교과서의 내용량도 그만큼 줄이도록 한 조치는 주휴 2일에 따른 수업 일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전기의 학습 지도 요령 시기부터 줄곧 주장해 온 ‘여유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학력 저하를 가져와 ‘분수도 풀지 못하는 대학생’까지 낳게 되었다고 하는 등, 학력 저하에 대한 깊은 우려의 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이에 대응하여 문부 과학성 교육과정 행정팀들이 2000년 9월, 학습 지도 요령의 성격에 대해(그 내용이)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는 내용을 가르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2001년 1월에는 오노(小野元之) 사무차관이 “‘여유로움’은 ‘해이함’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제시했고, 그로부터 1년 뒤인 금년 1월에는 도야마(遠山郭子) 문부과학상이 학력 향상의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교과서의 내용을 초과한 수업이나 보습, 숙제를 장려하는 요지의 ‘학습의 길잡이’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여러 외각 인사들을 동원하여 지식, 또는 수험을 위한 지식은 지식이 아니고, 이 해나 사고의 배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식이라며, 지금부터는 학습 스킬을 중

심으로 자율적인 학습을 유발시킬 것과 지식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활동의 장을 설치할 것을 내세워 일반적으로 학력 저하라고 할 때에 그 학력 속에 포함되는 지식과는 다른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학력 저하가 실제로는 저하가 아니라고 하지만, 학력 저하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결말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신 학습 지도 요령의 취지에 쫓아 내용량이 30% 축소된, 기초·기본에 충실한 초·중학교 교과서가 4월부터 사용되면서 학력 저하 문제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문부성은 차기 검정부터는 발전된 학습(기초·기본 내용을 보충·심화한 것)에 관련된 기술을 인정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주 5일제 수업(주휴 2일제)을 하더라도 학력 저하가 있을 수 없다는 일관된 추진에서 차츰 그 궤도를 수정하고 있다.

또 휴무 토요일에 학생들이 지낼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의 부족, 학교의 치밀한 프로그램 제공도 충분치 않아 토요일을 학생들이 방황하는 토요일로 만들고 있다는 의견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토요일에 공부를 시키기 위하여 쥬쿠(塾: 학원)에 보내기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이 늘고, 학원 사업이 계속 번창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들은 학교 교육을 위기로 몰아넣어 공교육 위기론이 다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학력 저하와 함께 또 하나 큰 문제로 등장한 것이 학교 간의 격차 문제이다. 금년 4월 현재, 주 5일제가 완전 실시 되었다고 해도 ‘완전 실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립 학교의 실시율은 55%에 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도시권의 사립 중·고등학교의 실시율은 30~40%에 지나지 않아, 학력의 격차가 점점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 않아

도 공·사립 간의 격차가 큰데, 주 5일제는 그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이 뻔하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는 않다. 과거부터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학력이라는 것과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증시하는 학력과는 다르다고 보고, 주휴 2일제를 통하여 학생들이 체득하는 학력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학교라는 장소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취득되는 지식(學校知라고 하는 이도 있음.)과 일상 생활의 체험 속에서 쌓이게 되는 지식(生活知)을 놓고, 후자에 비중을 두는 이들은 주휴 2일제를 한없이 찬양하고 있다. 가감 승제법을 잘 몰라도 물건 사고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니 일상 생활에서 많은 것을 익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일상 생활 속의 놀이와 체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다만, 이런 체험도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서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주 5일제에 대한 우리의 준비

일본 문부과학성이 주 5일제를 준비하기 시작하여 완전 시행까지 15년이 걸렸으나 아직도 사립, 소·중학교의 55%가 실시를 하지 않거나 유보하고 있고, 학부모 중에는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학생들이 주휴 2일간 지낼 사회·문화 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의 미비함을 들어 약 30%의 학부모가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가 주 5일제를 시행하려면 준비

하고 계획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 부문은 주 5일제에 관한 한 맨 마지막 차를 타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주 5일제의 조기 실시가 좋을지 어떨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교육 부문이 앞장 서 나갈 일은 아닐 것이다. 사회의 다른 모든 부문에서 주 5일제가 정착될 때 교육 부문이 따라가야 시행 착오 없는 주 5일제 시행이 될 것이라 본다.

필자가 근무하는 동경한국학교의 학부모들은 이웃 일본 학교의 주 5일제의 완전 실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토요일 등교를 희망하고,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3개 국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심의 언어 교육,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습득 활용 교육, 국제화 사회에서 살아갈 바람직한 세계인이 되면서도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가지도록 하는 민족 교육에 더욱 힘써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의 학부모들의 바람도 아직은 주휴 2일이 아닌 현행 주 6일 수업제가 아닌가 짐작해 본다.

다만,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학교 주 5일제에 대비하여 정부 수준에서의 법규 정비, 교육과정 개정, 사회·문화적 기반 시설 정비, 학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힘을 기울여, 다가올 주 5일제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 주휴 2일 동안에 학생들이 체험하는 것들이 단순한 놀이나 무의도적 경험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 속에 하게 되는 경험, 즉 의도적인 체험 학습이 되도록 수많은 대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험해 보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

실업계 전문 교과서 질 개선을 위한 편찬 패러다임의 전환

■ 글 / 허 강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사무국장)

I. 들어가는 말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실업계 전문 교과서(1종) 편찬 추진은 1999년부터 시작하여 2002년도에 완결 단계에 있다. 그동안 전문 교과서의 편찬은 편찬자인 대학교, 연구 기관, 관련 학회 등에서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되는 실업계 전문 교과서는 그 목적을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 목표 달성에 적합하고, 질 높은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는 데 두고 있다. 그리고 편찬 기본 방향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질 높은 교과용 도서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하기 편리한 교과용 도서 편찬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편찬 목적이나 편찬 기본 방향에 따라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편찬 기간에 교육인적자원부, 편찬자, 발행자는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교과서 편찬에 참여해 본 사람은 교과서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토

로한다. 또한, 교과서를 편찬한 후에는 무엇이 부족했으며 그 내용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고 아쉬워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질 좋은 교과서 편찬을 향한 집념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교과서 편찬에 참여해서 경험한 여러 가지 내용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위시하여 관계 기관에서 사고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교과서 편찬과 관련된 일반적인 항목은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편찬자에 속하는 교과서 관련 사항은 좀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지적하려고 한다.

II. 질 개선을 위한 편찬 패러다임의 전환

1. 전문 교과목은 통폐합 쪽으로 가야 한다.

제 7차 교육과정상 전문 교과목 수가 많다는 생각을 한다. 필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유사 교과목의 학습 내용이 중복이 심하고, 두 번째는 학습 내용이 고등 학교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세분화, 전문화되었으며,

셋째 교수·학습상 새 기초·기본 지식(new basic)의 정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개편될 교육과정상 전문 교과목 수가 계열별·학과별로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계열별, 학과별 교육 내용이나 수준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와 관련된다. 가령, 어느 학과에서 학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과목과 학습 내용으로 짜여지는 것(교과목 설계)이 바람직하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학습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수준을 낮추는 등 오늘날 비대해진 교과목 수를 슬림주의를 적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어느 학과에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과목을 선정하는 것은 교과목을 통폐합하는 전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필수적으로 선정되는 학습 내용에는 기초·기본 지식으로 짜여지게 한다.

한편, 전문 교과목의 조직은 산업 현장(기업체 등 고용 기관)에서 요구하는 직업 수행 능력 등에 부합되는 학습 내용(직무 분석 내용)으로 정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직무 분석에 의한 교육 내용을 결정하고, 또 교과서로 도입을 하자는 뜻이다. 우리가 무한 경쟁의 국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과서 편찬 분야(먼저 할 것은 교과목 통폐합)에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수정·보완 및 개편은 엄격하게 구분 추진되어야 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5항에서 ‘개편’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 또는 부분 개정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교과서나 지도서의 총 쪽수의 3분의 1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개편’의 개념에 속하는 교과목을 개편하는 것은 동 규정 제27조(개편)에 의거 당연히 개편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한 교과서가 동 규정 제2조 6항(수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정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는 개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사례이다. 이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낭비 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정 개념에 속하는 교과목은 수정으로 한정시키는 게 당연하다 하겠다.

3. ‘교과서 편찬의 이론과 실제’ 세미나를 열도록 한다.

질 좋은 교과서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실시해 온 편찬 업무를 피드백하는 등 편찬 업무의 개선을 위한 새 사고와 활동이 있어야 한다. 즉,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1종 도서 편찬 추진 계획’에만 의존하거나 만족하지 말고 질 좋은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연구·협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실업계 각 계열별, 교과목별로 위탁 기관이 선정된 다음, 그 기관에서의 편찬 업무는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데, 이 과정에 교육 당국의 참여가 있으면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가령, ‘집필상의 유의점’ 중 공통 사항과 교과별(전문 교과목) 구성 체제, 내용 조직 등을 사무적으로 지시만 하지 말고, 연구·협의라는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론 중심형이나 이론·실습 통합형이나에 따

라 내용 선정이나 조직, 체제 등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편찬의 쟁점 사항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같은 것들을 편찬자(집필자)와 합동해서 연구·협의(조정)하자는 뜻이다.

그 동안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수많은 전문 교과서가 편찬·발행되었으나 제 1차 때부터 제 6차 때까지 발행된 교과서를 보면, 내용 선정 및 구성 체제 등에 변화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교과서가 그 이전에 나온 교과서와 비교할 때 여러 면에서 차별화되어 있는 것은 교육 당국의 행정 지도에 그 원인도 있으나 편찬자(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가 편집 체제 개발 등에 노력한 측면도 있으며 후자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질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편찬 기관(집필자), 발행사 등이 한데 모여 교과서 개발에 대한 기초 이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진화 기법(생산 실무 등)에 이르기까지 연구·협의할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교과서의 기능 중 정보 전달 기능의 중요성도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교과서의 기능도 심도 있는 토론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모임은 교육 당국이 주도하고, 이 분야에 학식과 실무가 밝은 교과서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을 제언한다.

이 같은 교과서 편찬 연수 사업은 우리의 교육과 우리 민족의 훗날을 위한 일이므로, 이런 모임을 개최하는 일에 교과서 편찬 관계자는 모두 환영할 것으로 믿는다.

4. 교과서 편찬은 개성화, 다양화 쪽이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과서 편찬 때마다 ‘집필상의 유의점’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 있어 규제적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적 사항을 교과서 개편 때마다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를 한다. 이런 규제 사항이 없으면 교과서의 내용상, 체제상 불균형이 야기되어 통일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집필상의 유의점’의 유의(留意) 사항, 즉 사전적 의미는 ‘잊지 않고 새겨 둬’, ‘마음에 둬.’으로 규제 개념이 다분히 있다 하겠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집필상의 유의점’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의점’ 안에는 새 교과서관에 바탕을 둔 ‘개방적인 것’, ‘개성적인 것’, ‘다양성 있는 것’ 등의 유의점이 포함되어있으면 한다. 유의점이 많으면 통일이 강조되고 특성 없는 ‘유사한 교과서’가 만들어진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제 3차 교육과정기 때(1977) 공고한 고등학교 1종 교과서의 ‘집필상의 유의점’과 20년이 지난 제 7차 교육과정 때(1999) 공고한 ‘집필상의 유의점’을 비교하면 내용상 커다란 변화가 없다. 이것은 20여년 간 1종 교과서 편찬(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없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의 키워드는 말할 나위 없이 변화의 흐름이다. 따라서, 교과서 개발도 이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개성화·다양화 등으로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과서 편찬 제도는 이 시대 흐름의 순기능 쪽으로 방향을 잡고, 또 교육 당국의 편수 요원도 교과서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사고를 순기능 쪽으로 향하게 하여 개성 있고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도 다른 선진국이 개발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 ‘특징 있는 전문 교과서’와 같은 성격의 ‘국가 전문 교과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 집필자는 새 교과서관을 실천해야 한다.

교과서 편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집필자이다. 그런데 교육 당국이 기대하는 그만한 자질의 집필자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집필자의 선정 기준은 ‘해당 교과과목의 교과 교육을 전공하고, 현장 교육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7차 교육과정의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적격자를 선정한다 해도 편찬 기관의 업무 분담 중 핵심 사항인 ‘연구·집필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보장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집필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새 교과서관의 실천을 위해 좋은 원고를 집필하게 하는 일이다.

집필자를 잘못 만나면 교과서 편찬의 연구·기획을 아무리 잘 해도 뒤따르는 업무에 어려움이 닥친다. 여기에는 연구·기획 분야 담당자뿐만 아니라 심의·검토 분야 담당자까지 어려움이 연계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집필자는 교과서에 대한 이해와 집필 기법 등에

경험이 있으며, 다른 편찬 관련자로부터 검증 받은 자라야 새 교과서관에 부응되는 ‘선진 교과서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집필 등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인적 사항, 집필 경력 사항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차기에 활용하도록 하는 집필 인력 풀제를 실시하는 게 좋을 것이다. 여기에는 해당 교과서 편찬자(기획·연구·집필·심의·검토) 모두를 입력해 놓을 필요가 있다.

집필자는 먼저 학습 내용의 중심인 텍스트(text)의 표현이 공정해야 하고 이해가 쉬워야 한다. ‘목표’ 진술이 애매하거나 핵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보충·심화 학습’의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여 텍스트와 차별화하지 못하는 등의 집필자가 있으면 편찬 업무가 어려워진다. 또한, ‘읽을거리’가 수준이 낮거나 본문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을 집필하였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골칫거리가 된다.

‘단원 종합 문제’ 중 평가 형식을 주관식으로 열거해서 객관식을 무시해 버리는 등 평가 문항 개발 기법에 자신이 없는 집필진도 문제이다. ‘실험 실습’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본문만 집필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원고는 ‘목표’, ‘내용’ 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

‘탐구 활동’은 체험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문항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주관식으로 ‘~에 대해 알아보자’, ‘~에 대해 설명하여라’, ‘~에 대해 조사하여 보자’ 등으로 제시하는 게 허다하다. 그 밖에도 ‘실습 과제’ 내용이 참신하지 못하거나 과거의 교과서 게재 소재를 그대로 옮겨 온 무책임한 사례도 있다. 이상과 같은 불만족스러운 원고는 집필자를 잘못 선정하였기 때문에 겪

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새 교과서관을 실천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집필에 앞서 평가의 개념과 목적 및 교육적 의의, 평가 문항의 유형과 출제 방법, 평가 문항의 양호도 검증 방법 등의 이론과 실무를 습득하게 하는 일이다.

6. 편찬자는 경쟁력 있는 교과서 개발을 위해 체제 연구를 선행해야 한다.

전문 교과서의 체제는 제1차 때부터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또한, 편차(編次)에 특별히 차별화된 변화를 강구한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되는 전문 교과서의 체제가 현격하게 변화를 가져 왔다. 이것은 제7차에 따른 초·중등 학교 1종과 특히 중등 학교 2종 교과서의 체제 변화에 뒤따른 전위(轉位) 현상과 함께 편찬자(한국직업능력개발원)가 ‘편집 디자인 체제 개발 기초 연구’와 ‘메뉴얼’을 개발함으로써 이것이 결정적으로 교과서 적용에 기반이 되었으며, 대한교과서(주)가 이것을 편집에 활용함으로써 새 모습(체제)으로 탄생한 것이다. 그 밖에도 1종 도서(실고 전문 교과서)를 발행하는 교학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등에서도 기존의 2종 교과서 제작 기법을 1종 실업계 전문 교과서에 적용함으로써 과거의 전문 교과서와 다른 새 체제로 변모된 것이다.

교과서의 외적 체제는 교과용 도서를 저작, 검정, 인정, 발행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체제 요인을 상세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교육 당국이 교과

서 제도에 대해 긍정적 사고와 질 향상을 위해 얼마나 그 체제 요인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느냐 하는 정책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실업계 전문 교과서가 질적으로 우수해지고, 또 보통 교과(1, 2종)의 교과서처럼 경쟁력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체제 요인은 과감히 떨쳐 버리고 긍정적인 체제 요인은 하루 빨리 살려 나가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음에 체제 요인 중 몇 가지를 예시하기로 한다.

○ 판 형

판형은 일률적으로 4×6 배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크라운판, 4×6 배판, 국배판 등으로 다양화·대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 초·중등 교과서가 거의 4×6 배판으로 통일되는 것은 관리면(생산·유통 등)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각 교과 특성면으로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 지 질

본문 지질은 경제성만을 너무 따지지 말고 중질지(70g/m²)에서 모조지 또는 그 이상의 고급지로 상향되는 게 바람직하다.

○ 색 도

2~4도로 크게 개선되었다. 가능하면 전문 교과서는 4도쇄가 사물의 재현성 효과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서 체

너무 고정화된 서체 사용(본문: 신명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서체 및 글자의 크기(포인

트)를 과감하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특유의 서체 전형성 개발에 힘써야 한다.

○ 판면을 및 제목 글자 크기

제7차 교육과정 때부터는 과거에 비해 판면에 조금은 여유가 생겼다. 가독성 및 조형성 등의 향상을 위해 타이포그래피의 다양성을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 본문 제목 등의 서체와 글자 크기는 그 사용 폭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제한은 가독성과 조형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제한을 풀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프랑스 교과서에서는 사용 폭이 40 단계까지 자유롭다.

○ 쪽 수

우리 나라 교육 당국에서는 자기 주도 학습형 교과서의 개발을 주창하고 있으면서도 교과서 쪽수를 사전에 결정해 놓고 있다. 교육 당국은 교과서의 개성화 및 다양화,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형 지향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쪽수를 사전에 확정하지 말고 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7. 교과서 편집 디자인이 도입되어야 한다.


산업자원부가 밝힌 2002년 산업 정책 골간은 ‘일등 유일 전략(Number One and Only)’으로 요약된다. 이것저것 손대는 잡화상을 탈피, ‘일등 상품, 일류 기술’로 승부해 2010년 세계 10대 기술 강국에 진입한다는 마스터플랜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교과용 도서도 현재에 머물러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이다. 따라서, ‘일등 내용, 일류 교과서’라는 목표 아래 질 좋은 교과서 편찬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려면 내용 선정·조직과 함께 편집 디자인의 과감한 기법 도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포맷, 타이포그래피, 사진 및 삽화의 수준 향상 등 아트디렉션 개발에 힘써야 한다. 물론 질 좋은 교과서 개발에 수요자 중심으로, 또한 직업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 체제 개발(편집 디자인)을 지향하는 사고는 당연한 일이다.

Ⅲ. 맺는 말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되는 전문 교과서는 과거의 교과서와는 크게 달라진 형태로 탄생되고 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이 제도 개선을 선도하고, 편찬자, 발행자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업계 전문 교과서의 질이 향상되고 개성 있는 다양한 교과서로 또다시 발전하려면, 내용 조직, 선정에서부터 편집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 향상에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겠으며, 교과서 연구 개발 체제도 그 기능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좋은 교과서는 결국 수요자가 만드는 것이기에 공급자는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와 실정을 잘 파악하는 일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대만의 교육 개혁과 교과서 정책

— 제 2 차 한국·대만 국제 학술대회를 다녀와서 —

■ 글 / 안 천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I. 서론

대만은 우리 나라와 너무도 가까운 나라였다. 생각하면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일제 침략을 맞은 국난 시기에 혈맹 관계로 싸운 우방국이었고, 6·25 전쟁시에 우리를 측면 지원한 너무도 고마운 나라였다. 그러나 우리는 10년 전인 1992년에 별안간 단교를 하고는 교류가 끊겼다.

금번에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에서는 56명이라는 많은 회원이 나름대로 중대한 결심을 하고 대만으로 학술 여행을 다녀왔다. 떠나기 전에 방문한 주한 대만 대표부의 외교관은 비행기표를 구하기가 어렵다며 20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말할 정도였는데, 단교 상태의 어려움을 뚫고 56명의 학회 핵심부가 모두 대만을 찾아간 것은 사실상 단호한 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흔쾌히 합류한 회원님들이나, 우리를 마치 칙사 대접하듯 극진히 환대한 대만국립교육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에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학회는 대만으로의 어려

운 여행을 시행하게 되었는가? 그 까닭은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워야 할 나라인 대만과 단교가 됨으로써 우리는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인 대만의 교육을 너무 잊게 되었다는 상황 인식에서 대만 연구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학회에서는 제 1차로 2001년 12월 1일에 서울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제 1 차 한국·대만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서, 서울의 화교 중고등 학교 담도경 주임과 주한 대만 대표부의 진축삼 참사관, 황향승 외교관을 발표자로 한 심도 있는 예비 학술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는 56명의 회원들이 직접 2002년 2월 23일에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제 2 차 한국·대만 국제 학술 대회를 시행하고는 24일부터 3박 4일의 대만 학술 여행을 실시하였다.

물론 짧은 시간에 심도 있는 연구와 통찰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 학회원들은 하나같이 성공적인 학술 여행이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대만 교육과 교과서 등의 연구에 진력할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 글은 우리 학회의 짧은 여행에서 얻은

회원님들의 감동을 대표하여 학회장으로서 쓰는 바, 부족한 부분이나 오류가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에 의해서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짧은 10년을 잊고, 대만에 대해서 우리의 어두워진 안목을 바로잡는 기초 자료로는 충분하다는 생각을 조심스레 가져 본다.

Ⅱ. 대만의 거대한 교육 개혁 현장

1. 국립교육연구원의 탄생

현재 대만의 교육계는 핵심부가 근본적 개혁의 길을 걷고 있다. 물론 교육 연구 부문이 중심이었지만, 우리들의 방문은 엄청난 교육 개혁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행운의 여행이기도 했다.

그간 대만의 교과서 정책을 세우고,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주체 기관은 국립편역관이었다. 단교 이전에 한국인들이 대만의 교과 교육을 연구하려면 국립편역관을 방문하여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것이 급변에 국립교육연구원에 흡수 통합된 것이다. 3월 6일에 국립교육연구원이 개원되었으므로 국립편역관은 이제 역사 속의 기관이 되었다.

생각하면 거대한 교육 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대만은 어쩌면 우리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은 약 10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였던 기관이 현재 다섯 개의 기관으로 갈라졌다. 그것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한국교육방송원(EBS) 등으로 나뉘는데 반하여, 대만은 나뉘어 있던 여러 기관을 합해서 하나로 만든 것이니 정말 정반대로 바뀐 10년간이었다.

구조 개혁의 구호만 요란한 우리 정부와 말없이 실천한 대만의 모습을 비교하며, 대만의 국립교육연구원이 앞으로 동북아의 교육 중심지는 바로 타이베이로 될 것이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모든 것이 강한 충격으로 와닿았다.

2. 국립교육연구원의 업무

대만에 새로 생긴 국립교육연구원에는 4개 연구소와 1개 교육자원센터를 포함하는 5개의 중심 기능 부서가 포함되어 있다. 말하자면, 모든 부문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제각기 쪼개져 분파된 연구소를 유기적으로 묶은 거대한 종합 연구원의 형태를 갖춘 것이다. 국립교육연구원의 상세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교육정책제도연구소 : 대만 교육의 전체적 행정 체제를 연구하는 연구소로서, 교육 정책 이론, 교육 제도 이론, 교육 발전 지표, 교육 정책 문제, 교육 제도 문제 등을 연구한다. 현재 우리의 한국 교육개발원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이다.

나. 교육생태연구소 : 대만 교육의 바람직한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서, 여러 학습 자료를 만들고, 가정 교육과 학교 환경, 학생 문화, 교육과 사회 관계 등을 연구한다. 한국에는 없다고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에 관한 연구소인데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

다. 교육과정 및 교학발전연구소 : 과거의 국립편역관이 흡수 통합된 것으로서,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개발 업무에 대해 연구하고, 학습 지도의 기초 연구를 수

행한다.

라. 교육평가연구소 : 위의 '다' 내용과 함께 한국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인 교육 평가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연구한다.

마 교육인력연구발전센터 : 교사 연수 센터가 바로 국립교육연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우리와는 아주 다르다. 한국에는 각 시·도 교육청이 교육연수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그 운영 내용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다는 지적이 큰데, 대만의 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3. 대만 교육 개혁의 특징

대만의 교육 개혁 현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사실 한국에서는 그간 교육 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하여 예산만 낭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 기초 연구의 강화 : 대만에서는 정책 시행과 교육 실천에 앞서 체계 있는 교육 연구가 선행되고 있음을 확실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선행 연구가 거의 없이 외국의 것, 특히 미국의 것을 갖다가 대강 엮어서 외형적 실적 위주로 시행한 전례가 많았던 그간의 안일한 한국 교육 흐름은 고쳐져야 할 것이다.

나. 유기적 연구 체제 : 대만에 있어서는 왜 중심된 4개 연구소를 하나로 묶어서 거대한 연구원을 만들었을까? 거대한 종합 대학만한 연구원을 짓고서 4개 연구소가

긴밀한 유기적 연구 체제를 구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착상임에 분명하다.

다. 실질적 교사 연수 : 대만의 교사연수센터를 4개 연구소와 직결시켜서 하나로 묶어 놓은 것도 매우 탁월한 제도라고 본다. 현재 한국의 교원연수원은 적지 않은 곳이 선배 교장이나 장학사의 경험담이나 듣고, 연수를 위한 연수로서의 내실 없는 형식적 연수를 하고 있는데, 첨단 이론 연구소와 직결된 대만의 제도가 왜 나왔나를 깊게 유념해 볼 필요가 있겠다.

3. 대만의 교과서 정책

1. 교육과정 및 교학발전연구소(국립편역관)

대만의 교과서 정책이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3월 6일부터 국립교육연구원의 교육과정 및 교학발전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의 기본 골격은 과거의 국립편역관 체제를 수용한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과거 국립편역관의 업무를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그런데 국립편역관은 한국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는 일보다 대단히 방대하고 체계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가. 순수 학문조 : 인문 사회조와 자연 과학조로 나뉘어져 순수 학문에 대한 편찬과 번역 업무를 수행한다.

나. 대학 교재조 : 한국에서는 대학 교재를 완전히 개방 체제로 운영하여 사설 출판사에 맡기는 제도인데, 대학 교재도 직접 다룬다.

다. 전문 대학 및 직업 학교조 : 직업 학교나 전문 대학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교과서도 취급한다.

라. 중소학 교과서조 : 중학교와 초등 학교의 교과서를 편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한국의 교과서 업무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문이 되겠다.

마. 중국 문헌제작물 심의위원회 : 대만에서 만들어지는 국내 저작물의 편집 심의를 실시한다.

바. 세계 학술저작 번역위원회 : 대만에서 만들어지는 외국 학술 번역물의 제작에 관한 편집 심의를 실시한다.

사. 출판조 : 각종 출판 업무를 다룬다.

2. 교과서 제도 현황

국립편역관에서 교과서를 만드는 제도는 크게 한국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 간 검정제와 국정제를 병용해 왔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검정제로 대폭 전환하고 있다.

Ⅳ. 대만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 현재 국민 중소학 9년 일관제 교육과정의 잠정안이 마련되어 실험 기간을 거치고 있다. 한국의 초등 학교와 중학교에 해당하는 기간을 하나로 묶어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 대만의 어문 교육은 대만의 국가 내부적 사정이 복잡함을 반영하는 듯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본국 어문이란 학습 영역을 크게 국어문, 閩남어문, 객가 어문, 원주민 어문으로 나뉘서 시행할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교육과정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 영어 교육은 5학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6학년 교육과정은 잠정안을 쓰고 있을 정도로 실시가 최근에 이뤄지고 있다. 과거부터 생활 영어 교육이 강했던 나라인데도, 매우 신중하게 실시되고 있음이 이채롭다.

▶ 건강 체육 영역, 수학 영역, 사회 영역은 한국과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 생활 과정, 예술과 인문 학습, 자연과 생활 기술, 종합 활동 등 한국과 다른 것이 있어서 참고할 사항이라고 하겠다. 실과와 과학이 합해진 형태, 예술과 인문 학습이 합해진 것은 한국에서는 전혀 없던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 신 교육과정의 중점 지도 사항으로서 資訊 교육, 환경 교육, 兩性(남녀 평등) 교육, 인권 교육, 생애 발전 교육, 가정 교육의 여섯 가지를 들고 있는 바, 유의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대만은 여성 지위가 매우 높은 나라인데 남녀 평등을 강조함이 이채롭고, 인권 교육이나 가정 교육을 강조함은 대만의 사회 심층을 헤아리는 강조점이라고 생각된다.

▶ 대만 교과서는 각 과목 전체를 일관하여 말하기가 곤란하나 한국의 상황과 비슷한 점이 많고, 나름대로 진지하게 연구한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제한된 짧은 본 지면을 통해서 상세히 말하기는 곤란하고, 모든 학년에 걸쳐서 주교과서가 있고 습작책이 따로 만들어진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Ⅴ. 초·중학교 현장 방문

대만 교육부에서 소개해 준 북투 국민소학

교와 타이베이 시립 신민국민 중학교의 방문은, 학교 현장의 방문을 통해서 대만 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교육은 아무리 정책이 잘 수립되고, 교과서가 잘 만들어졌다 해도 그 실천 현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분명 대만의 학교는 생생히 살아 있었다.

첫째로, 교사의 교권이 확실하게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리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잘 만들어져도 교권이 무너진 곳에서는 좋은 교육 실천이 어렵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교사 권익 체제가 확립된 대만의 모습은 의미가 아주 큰 것이었다.

둘째로, 학교 환경을 지역 사회와 연계시킴으로써 지역 문화가 생생하게 살아 있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100년 된 초등 학교의 역사가 고스란히 사진 자료부터 남아 있음은 물론이고, 주위에 옛부터의 선배가 그대로 살고 있는 타이베이 대도시가 새롭게 느껴졌다.

셋째로, 우리가 방문했던 온천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는 온천 박물관이 만들어져 있어 지역 문화 생태 학습의 현장으로 활용되는 등의 의미 있는 교육 현장이 있었다.

넷째로, 학부모와의 연계 관계가 원활하고 유기적으로 맺어져 학교 학습 실천이 총체적으로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섯째로, 교사나 학부모는 물론이고 학생들 모두가 진지하게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간 성실하게 교육에 임했다는 것을 학교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여섯째로, 초등 학교에서 어린이 악단이 한국 민요인 ‘도라지’를 연주하면서 손님맞이에 임하는 모습이나, 중학교에서 모든 방문객에게 대만 전통의 입춘서나 말띠 해를 상징하

는 말모양 장식을 선사하고 대보름 특별 음식을 대접한 것은 철저한 생활 문화 교육이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그리고 국립편역관에서 방문객 전원에게 전통적 용무늬 문진을 선사한 것도 대만은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살리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일곱째로, 질서 청결 교육이 확고하게 이뤄짐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것은 8만 평 넓이의 중정 기념당에서 대보름 등불놀이를 수많은 인파 속에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질서를 지키며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소란없이 엄숙하게 대보름 행사를 실시하는 것을 보고 학교 교육이 그대로 사회에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Ⅶ. 맺는 말

주마간산의 짧은 대만 교육 여행에서 본바를 쓴 것이지만 우리 나라 교육 개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끊어진 대만과의 관계는 정부 차원이 아니라도 민간 차원에서 다시금 복원되어야 하겠으며, 중국 대륙과의 힘겨운 대결 속에서도 매우 질 높은 교육을 실천하는 대만에게서 배울 것은, 교과서나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보는 엄숙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교육을 참되고 진실되게 접근하지 않는 한, 이웃의 작은 강국 대만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리라 본다. 우리는 교육 앞에 보다 진지하고 겸손해져야 하겠다. [2]

과학 교과서의 발달 양상의 연구와 진전

■ 1월 / 문찬희(전 서울 잠신중학교 교장)

제 3 차 교육과정기는 편수 업무가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던 시기였다. 특히, 그 후반기에 해당하는 1977년부터 1981년 사이는 변화의 소용돌이가 더욱더 심했다. 그 소용돌이의 핵심은 편수국 파동으로 인한 편수국의 개편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고시로 인한 편수 제도의 변화에 있었다. 이 시기에 고등 학교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교과서와 지도서의 검정이 있었다. 그러나 과학과 편수 담당자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책은 중학교 과학 교과서와 국민 학교 탐구 생활이었다.

공동 작업으로 태어나는 중학교 과학 교과서

제 3 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 교과서는 1977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편찬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한국과학교과서 편찬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검정에서 합격한 교과서들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었다. 그런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중학교 과학 교과서 및 지도서는 1종 도서로 분류되었다. 그리하여 문교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연구소에 위탁하여 중학교 과학 교과서와 지도서를 연구 개발하게 되었다. 제 3 차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 교과서가 다시 개발되게 된 것이다.

1종 도서를 개발하는 과정은 어느 교과나 마찬가지이지만, 노력을 집중하는 단계나 강도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과학과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특징으로는 무엇보다 문교부의 과학과 편수 담당자들과 개발 기관의 연구진, 집필진, 협의진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작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과학과가 공동 작업에 중점을 두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과학 교과용 도서 연구진과 집필진은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공주사범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및 청주교육대학 등 20여 명의 교수들과 경북학생과학관과 서울시 교육연구원의 장학사 3명, 그리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를 비롯한 서울 시내 중학교와 고등

학교의 교사 8명 등 전국적인 대규모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집필진만도 20여 명이 되었는데 그 집필 원고는 각양각색이었다. 문장 표현이나 말투의 차이도 컸지만 단원의 도입에서 본문의 전개, 실험 안내와 결과 종합 등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교과서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체제 통일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수정하고 다듬는 것은 일의 양은 많지만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었다. 심지어는 한 단원에서 취급된 내용과 같은 내용이 다른 단원에서 중복되어 진술된 경우도 있었고, 과학 개념을 도입하는 곳과 이를 사용하는 곳의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의 조정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등 각 분야의 집필진과 연구진들이 함께 모여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성질의 것이었다. 공동 작업을 통하지 않고 집필자에게 거듭하여 수정하게 하는 것은 별 효과도 없으면서 집필자를 괴롭히며 시간만 허비하는 일이었다.

공동 회의나 작업은 서울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의 사무실이나 자료실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장시간 앉아서 작업하기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직장 업무와 가정 사정 때문에 교과서 작업에 노력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또, 직장에 출근하였다가 교과서 작업장으로 출장을 오고, 일이 궂도에 오를 만하면 점심 식사하러 밖으로 나가야 하고, 또 일이 잡힐 만하면 집으로 돌아가니 일에 능률이 오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한 곳에서 먹고 자고 일하면서 쉴 수 있는 여관을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것도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도록 연구·집필진의 집과 직장에서 떨어지면서도 참석할 사람들이 오는 길의 중간쯤 되는 곳을 찾아 보니 유성의 값싼 여관을 작업장으로 택하게 되었다.

어느 교과서나 바르고 정확하게 잘 만들어야 하겠지만, 저작권이 문교부에 있는 1종 도서의 교과서 내용에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계획에서 발행까지 전 과정에 문교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므로 문교부의 역할과 책임이 클 뿐만 아니라, 1종 도서의 성격상 교육계나 언론계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교과용 도서의 정본이 나오기까지는 문교부의 심의와 실험을 통한 수정 과정이 있으나 심의본이나 실험본이 나온 후에 많은 수정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문교부 과학 편수 담당자들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동 작업에 참여하여 바르고 학생에게 맞는 좋은 교과서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내용의 수준, 실험의 적절성, 과학적 개념의 학습 위계, 단원 전개 형태나 문장 등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니 원줄기는 살아 있는데도 겉만 보았을 때에는 초고가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공동 작업에 참여한 집필자의 마음이 편할 까닭이 없었다.

특히, 한 분야의 전문 학자로 자리를 굳히고 있는 노 교수들의 심정은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편수 담당자는 자기의 의견뿐만 아니라 일선 교사들이 말하기 어려워하는 내용까지 말해야 했다. 편수 담당자는 집필자와 교사의 중간에 서서, 고쳐야 할 내용이 있으면 이것은 과학 전문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단지 배우는 학생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고치자는 의견이라든가, 단순히 체제 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등 집필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수정을 유도해야 했다. 그러나 작업 과정에서는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

며, 그 도가 심한 경우는 잠시 작업을 중단하고 분위기를 바꾸어야 할 필요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이 공동 작업의 방법에 대하여 약간의 견해차가 있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1종 도서 개발을 연구 기관에 위탁했으면 나중에 검토하면 될 것을 문교부의 편수 담당자가 많은 작업에 왜 일일이 참여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는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 약간의 수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잡지와는 다르다. 교과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 순서를 정하고, 수준을 조정하고, 일관된 논리와 체제로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기에 초기 단계에서 큰 줄거리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것이 바로 연구·개발 기관이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문교부와 1종 도서 연구·개발 기관 간의 업무 분장은 되어 있었으나 그 해석은 행정에 더 중점을 두느냐 내용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개발 기관의 참여 요청도 있었지만, 당시 과학과 편수 담당자의 자부심과 내용 지향적 업무 태도 및 무거운 책임감이 도서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원인으로 생각된다.

한편, 과학과 공동 작업에는 편수 담당자 한 사람만 참석하지 않고 세 사람 모두가 참여하느냐 하는 견해도 있었다. 가르치려면 배우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책을 쓰는 사람은 그 책의 내용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중학교 과학이고 통합 과학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과학 교과서의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의 내용을 모두 알고 일을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과학과 각 분야의 사람이 모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무튼 과학 교과서는 수차례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교과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갔다. 지금도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동 작업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과학 책을 휴지로 만든 상흔

제3차 교육과정 후반기에 교과서는 아니지만 1종 도서 개발 절차에 따라 발간된 책으로 탐구 생활이 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한 배경으로 전 국민의 과학화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의 몇몇 부처들이 과학 기술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당시 과학기술처에서도 과학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초·중·고의 과학 기술과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고 등, 기초 과학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문교부와 파기처 간에 미묘한 업무의 중복과 혼선까지 일어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기초 과학이 강조되는 시기에 문교부 장관은 초·중·고등 학교 학생을 위한 과학 잡지의 발행 계획을 대통령 연두 순시 때 보고하고 그 업무를 추진할 것을 명하였다. 주간이나 월간의 과학 신문, 또는 과학 잡지를 발행하려던 당초의 계획은 많은 검토와 논의를 거쳐, 1년에 두 번씩 방학 때마다 국민 학교용 책과 중학교용 책을 학년별로 발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내용은 전인 교육과 방학 생활 안내의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과학 60%, 그 외의 내용 40%로 구성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교

육연구담당관실이 중심이 되어 이 업무를 추진하고 과학 교육 담당관실을 비롯한 편수 관련 담당관실에서는 주로 내용 개발 업무를 협조하였다. 그러나 1년 후부터는 과학 내용이 반 이상이라는 이유로 과학교육 담당관실이 탐구 생활 개발 업무를 맡게 되었다.

1979년 초에 시작된 과학지 발간 계획은 3월 초가 되어서야 국민 학교와 중학교의 방학책을 겸한 과학책 발간으로 계획이 확정되었다. 국·공립 중학교 방학 생활은 대한교련에서, 사립 중학교 방학 생활은 사립학교 교장회에서 개발하여 참고서 자율협회의 심사를 받아 발간하게 되었고, 국민 학교 탐구 생활은 1종 도서 개발 절차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개발하게 되었다. 초·중학교의 방학은 대개 7월 하순에 시작되지만, 7월 중순에 방학을 하는 특수한 경우도 염두에 두어야 했다. 더욱이 교통이 불편하던 당시의 산간 벽지의 국민 학교까지 장마철 이전에 탐구 생활을 보급하려면, 6월 하순에는 인쇄에 들어가야만 했다. 발간 계획이 확정된 후 3개월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발간 세부 계획을 세워 검토하고, 내용을 개발하고 삽화와 사진을 제작하고, 2차례의 심의와 수정 과정을 거치려면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였다. 장학실장과 담당관들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탐구 생활 개발 업무는 문교부 일이라며 편수 담당자들이 한국교육개발원에 나가 개발 업무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였다.

탐구 생활은 읽고 조사하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만드는 등 폭넓고 자유로운 활동을 통하여 자연과 함께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편찬하려 하였다. 한편, 탐구 생활의 구체적인 활동이나 내용은 학교에서 배웠거나 배울 내용과 관련은 있지만 교과서와 같은 활동이나 내용을 중복하여 다루지는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편찬 취지에 맞으면서 학생의 수준에도 맞는 활동이나 읽을거리를 찾고 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였던 원고들이 국민 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맞지 않아 이를 수정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대체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더 어려운 일은 삽화였다. 삽화가는 부족한 예산에 맞추어 구하였지만, 정작 과학과 관련된 삽화의 내용을 삽화가가 그릴 수 있도록 간단히 전달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관련자들이 한 곳에 모여 집중적으로 공동 작업을 해야 했다. 아침부터 밤늦도록 여관방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집이 서둘러면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두 번째 탐구 생활 개발부터는 미리미리 공급 시기를 고려하여 개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역시 시간에 쫓기면서 여관에서의 집중 작업을 하는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었다. 돌이켜 생각해

“

**교육의 성패는 곧 국민적 공감대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협조 없이는 그 어떤 훌륭한 교육과정도,
교과서도, 교사도, 학습 자료도 한낱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

보면, 탐구 생활은 여관방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일일이 만들어 보고, 참고 문헌을 조사, 검토하고 생각하여 구성한 탐구 생활의 과학 내용은 학생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조사하고 관찰하면서 과학적 탐구 방법을 익혀 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활동 과정이지 결과나 답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날씨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날씨를 바르게 관찰하고 이를 기록하며 표를 해석하는 활동이지 조사 기간 동안에 맑은 날은 며칠이고 비 온 날은 며칠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탐구하는 활동이나 생각하는 과정이 없이 문제의 답만 기록하는 것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과학적 태도나 습관 형성에 해가 될 뿐이다.

그런데 탐구 생활을 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탐구 생활의 답이 학교 앞 문방구점에 나돌게 되었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 많은 사람이 온갖 어려움을 겪고 나서도 그나마 바라던 형태의 탐구 생활을 개발하였다고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노력은 허사가 되고, 개발하고 배부하는 데 투자한 그 많은 돈도 소득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였다.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상흔에 의하여 탐구 생활은 휴지나 다름없게 되는 것 같았으며, 더욱이 자라나던 과학의 어린 싹이 여지없이 짓밟히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업자에게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1980년 겨울 방학 탐구 생활부터는 뒤표지에 ‘이 책에 대한 해답집 및 해설서의 발행을 금함.’이라는 경고문까지 게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두운 곳을 찾아 집요하게 피어나는 독버섯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교육의 성패를 논할 때, 흔히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교사 아니면 시설이나 학습 자료 등을 이야기한다. 물론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탐구 생활의 해답집은 나에게 교육의 성패를 가름하는 다른 한 요인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조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있어도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한낱 폐휴지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2

〈1977~1982년 과학(물리과) 편수관〉

미술 교과서의 확대와 그리고 역사

■ 편 / 이태식(전 중산중학교 교장)

나의 편수 업무 시작 문교부행

1977년 6월은 교과서 검인정 사건, 이른바 편수 파동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다. 그 때 필자는 성산 여중(지금의 성산중)에서 교감을 하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두 번째 근무를 하고 있었다(1차는 증등 교육과 미술과 장학사). 1977년 7월, 정식 발령을 받기도 전에 약 한 달 전부터 오전에는 교육위원회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문교부로 출근하여 늦도록 일했다.

1977년 정부는 편수국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공개 채용 형식으로 선발했는데 미술, 영어 등 몇 과목은 응시자가 많았지만 책임자가 없어[점수 미달(?)] 안 뽑고 교육감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고 들었다. 필자도 전동기 장학사와 함께 장기성 학무국장이 “추천해 달라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이장학사를 보내고 싶다.”고 하시며 권하셨고, 사체과 이충세 과장이 만류하는 속에 문교부행을 갈등 속에 결심하게 되었다.

텅 빈 책상 위에 첫출근하는 날

미발령 중 오후만 출장 근무를 하다 보니 간단히 몇몇 윗분께만 인사를 하고 박용진 수석 편수관(직제가 아닌 통상 칭호) 지시로 책상에 앉으니 볼펜, 연필, 지우개, 깡지 몇 장을 주면서 교과용 도서 1종(국정 교과서)과 2종(검인정 교과서)의 개발 계획과 집필상의 유의점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무엇이 1종인지도 몰라 어리둥절했다. 무슨 참고 자료나 전임자 서류라도 있을까 해서 책상과 캐비닛을 뒤져도 도서나 서류는커녕 깨끗이 청소를 했는지 종이 한 장도 없었다. 모든 서류가 사건 발발 후 없어(압수)졌다고 한다. 도리 없이 서울 미대 동문 선배이신 전임 이종학 편수관님을 찾아뵙고 상담,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이후 계속 지도를 받았다. 전화도 수없이 했었다. 인문고 미술·서예는 전처럼 2종이고, 실고는 1종, 초등 학교는 종전처럼 1종(국정)이었지만 중학교는 의무 교육 연장을 대비해 이

때 처음으로 초등 학교처럼 1종(국정)화가 되었고 이들 초·중등 학교의 교과서 내용, 체재 등을 어떻게 훌륭히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교과용 도서 개발의 중대한 핵심 목표였다. 따라서, 마치 옷 입을 때에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하듯 집필상 유의점이나 개발 계획은 대단히 중대한 작업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기획과 기본 원고는 담당 편수관이 작성하지만 아무리 고심하여 신중하게 단어 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작성했다 하더라도 전체 편수관 회의에서 타 과목 편수관의 의견까지 듣고 토의 끝에 집필 유의점이 탄생되었다.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

학생들의 인격 변화와 교육 현장에서 애용되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힘 있는 교과서, 그리고 교과서다운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으며 그러한 노력 중 몇 가지만 적어 본다.

● 교과서의 역사적 변혁 의지

미술 교과서는 도판 인쇄가 잘 나오도록 모조지를 아트지로 바꾸고, 다양한 재료와 기법이 소개되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좋은 교과서가 될 수는 없다. 조국의 근대화 작업으로 자주 국방과 자립 경제가 절실했던 시기였던 만큼 국력 배양과 평화 통일, 민족 증흥 등을 도모키 위해 주체 의식의 고양,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교육, 전통 존중의 민족 문화 창조, 도덕적인 한국인 교육, 언행과 인격 변화에 기여할 내용 등의 보통 교육 교과서가 필요했다. 미술 대학에 갈 기능 위주의 미술가 후보 준비 교육 교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역사적 대변혁을 도모했다.

● 한국화 그리기 실기 교육의 시작

그 때까지는 미술부 활동이 아닌 일반 학생들의 교실 수업에서 한국화 그리기 수업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감히 혁명적 변화라 할 수 있을 만큼 강화했다. 미술 교과서 편찬 기저 기본 방침 3개 중 하나가 전통 미술 교육 강화였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처럼 늘 외치면서도 광복 후 제일 안 되고 있는 분야가 한국화 그리기였다. 원인은 우선 지도 교사들이 중·고 학생 시절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교대, 사대, 미대에서도 양화 위주의 교육을 받았으며 교과서 저자도 한국화 전공이 거의 없었다는 것, 또 한국화 그리기나 서예는 아예 안 해도 되고 번거롭고 가르치기도 힘든 것으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내 전공 아닌 것도 지도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안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현장에 도움을 주는 교과서, 그리고 일선 선생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 없다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해서 가짜 학생 작품을 진짜인 것으로 게재하고 눈으로만 그리는 한국화를 손으로 그리게 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학년에 걸쳐 전혀 없던 초등 학교 한국화 채색화 학생 작품을 초등 학교 2학년부터 전학년에 많이 수록했다. 시간 배당도 그리기 시간의

반 이상을 할애해도 좋다는 것을 연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중·고등 학교에서도 일반 교실 수업에서 나온 학생 작품은 거의 없던 실정이었는데 학생 작품을 처음으로 상당 분량 수록하였다. 검인정 2종 도서에서도 기성 작가의 작품을 대부분 수록, 감상에 그치던 것과는 달리 대학생이나 중등 미술부 학생들이 만든 작품이 일반 교실 수업에서 나온 일반 학생 작품으로 소개되는 가짜(?) 작품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국화 그리기 교육이 거의 없었던 현실에서 불가피한 시작이었다.

● 한국화 그리기 예시 작품과 사군자화

일선 현장 교실에서 교육이 제일 안 되고 있는 영역이 한국화 그리기요 서예였다. 한국화 그리기 실기 교육이 안 이루어졌던 이유 중 대단히 중대한 이유의 하나는 바로 한국화 그리기 예시 작품이 학교급별, 학년별로 학생들 눈과 손높이에 맞는 학생 작품이어야 하는데 엉뚱한 어른들 작품이고 주제나 내용, 표현 방법도 학생들이 양화 중심의 그리기에서 다루어 온 생활 주변 정물, 풍경, 인물, 수채화 접근 단계이며 흥미 관심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 보기에 생소한 주제와 내용, 기법의 엉뚱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질감을 주는 어른 작품들이 예화로 제시되고 한국화 그리기 기초나 입문 과정이 사군자화인 양 저학년일수록 힘든 사군자화나 수묵화가 교과서에 등장하니 황당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사실 사군자화는 가장 정선된 섬세하고 간결한 표현, 엄청난 필력을 요구하는 격높은 그림이다. 미술 대학에서는 필력을 기르기 위해 지필묵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군자화로 시작할 수 있겠으나 초·중등 교실에서는 절대로 입문 과정일 수 없는 겹주는 무식이 자행되어 왔었다. 그나마 사군자화나 수묵화를 한 번이라도 그려 보라고 한 교과서는 일부였다. 아예 그것도 해 볼 수 없는 교과서가 흔했다. 그래서 한국화 그리기의 시작은 한국화 용구나 재료의 특성과 다루는 요령만을 익히면 수채화를 접근하던 방식대로 관심 있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해 보게 했고, 각 영역마다 학생들 작품을 예시하여 친근감을 주고 거부감 없이 해 보고 싶게 할 수 있었다.

● 동양화, 서양화 명칭을 한국화, 양화로 통일

명칭 사용은 학계에서도 수년간 의견이 분분했다. 검증되고 확립된 것만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집필 규정도 있었지만 오히려 교과서에서 용어 정립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교과서, 지도서에 한국화, 양화로 통일했다. 문화 공보부에 협조를 얻어 언론 보도도 그렇게 하도록 했다. 한복, 양복처럼 자연스럽게 정착되길 바랐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어느 2종 교과서에서 ‘동양화’란 용어가 재생된 듯한데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이 국화라 하고 일본도 일본화라고 하는데 유독 우리만 동양화, 서양화로 써서야 되겠는가? 일제 강점기 시절 애용한 용어인 듯[조선 미술 문화 말살 정책의 일환(?)]싶다.

● 교과서가 홍보물인가, 생존 작가 이름 못 쓰게 해

교과서는 저자나 어느 특정 작가의 홍보물일 수 없다(교과서 집필상의 일반적 유의점에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생존 인물 기사 제한’ 조항이 있음.). 그런데 이전까지의 교과서에는 저자 자신과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 또는 검인정 교과서 심사 위원이 될지도 모른다는 속셈으로 특정 작가의 작품이나 이름을 등장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일류 작가로 공인된 것도 아니면서 소개하고 싶은 특색 있는 한 작품을 수록하고, 작가 이름이 소개되었다 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그 작가 이름과 연대를 외게 하고 시험에 출제하는 등 낯 빠진 일도 있었기에 불가피하게 생존 작가 작품을 수록해야 한다면 하되 이름 대신 ‘생존 작가’라고만 설명하게 하였으며 작품 속에 쓰여 있는 이름도 알 수 없도록 지우게 했다. 그랬더니 낙관이나 사인도 작품의 일부라고 시비를 거는 저자도 있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묵살했다. 심지어는 2종 도서 검정 심사 때 저자를 알 수 없게 백표지 심사본을 제출케 했는데 작품 속에 이름을 안 지우고 도판 밑에 ‘생존 작가’ 대신 ‘저자 작품’이라고 해서 심사 위원으로 하여금 출원자가 누구인지 알게 머리를 쓴 저자도 있었다. 전통 미술 교육을 강화했더니 실기는 도외시하고 감상 영역에서만 강화한 저자도 있었다.

● 서예 실기 학습 꼭 해야 하는 교육과정 무시

초등 학교 4, 5, 6 학년의 고학년부터 중학교, 인문고 미술 시간의 10%(실고는 더 많음.)를 할애하여 서예를 가르치도록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무시, 아예 제일 값싼 서예책을 구입조차 안 하는 학교가 허다했다. 현장에서 알아보면 장학사도 교장도 교감도 연구부장도 교육과정상 서예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서 교육의 질과 수준은 지도 교사의 의지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란 말이 진리인 듯하다. 편수 업무 담당자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치고 교육과정, 교과서, 지도서에 아무리 명시해도 소용 없는 이런 현상은 너무 안타깝고 환멸을 느끼는 일이기도 했다. 앞으로는 확인 장학 지도를 한때 장학 편수실에서 했듯이 교육과정과 편수 업무를 수행한 교과서, 지도서 만든 곳에서 해야 될 것 같다.

● 영역 쟁탈전(?)

학교급별 미술 시간 배당은 전 과목 편수관들의 엄청난 영역 쟁탈전으로 치열한 공방이 있기 마련이지만 학년별 미술 시간 배당도 1시간 내지 2시간이라고 한 것은 모두 1시간씩 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아예 중 3은 1시간으로 양보하고 다른 학년에서 2시간 확보를 고정화함으로써 사실상 시간을 늘리는 일도 했다. 시간의 변동은 학생들에게는 물론 교사들의 티오(정원)가 오가는 엄청난 사항이었다.

● 선도

한국화, 양화의 용어 정립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 항공 우주국 부서가 생기기 전에 1종 교과서에 로켓 발사 장면의 학생 작품을 그려 놓고 그 약자를 소개했다든지, 시민들 사이에 남산 타워 혹은 서울 타워 두 가지로 불려지던 시절, 세계화 의미에서 남산 타워보다 서울

타위로 고정 소개한 일 등이 생각난다.

● 인간 교육, 전인 교육 강화

비인간화의 여러 가지 경향을 우려하는 사회상에서 손재주, 기능 위주의 미술 교육에서 심성, 심미, 정서 교육 강화에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교실 청소’라는 제목을 붙일 작품 밑에 ‘우리 교실은 우리 손으로 깨끗이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긴 설명을 붙여 바르고 좋은 행동을 생각해 보게 하는 노력을 하였다.

● 불합격 탈락된 2종 교과용 도서 저자의 소송 사건

미술과 출원 교과서가 1차에서 합격한 것이 최종 2차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이 난 사건이 발생했다. 타 과에서도 하나 있다고 들었지만 당시로서는 전례가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어찌 보면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1차 심사에서는 심사 위원들이 심사 후에 저자에 따라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수정 지시가 내려진다. 즉, 수정을 이행하는 조건부 합격 후보인 셈인데 이 저자는 다른 합격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 이유를 심사 위원들의 수정 지시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1차에 합격하면 수정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설마 불합격이야 되겠는가 생각했을 것이다. 당시의 수정 지시가 얼마나 친절했는가 하면 무엇이 잘못 되었으니 고쳐라가 아니라 상당량은 어떻게 고치면 된다고까지 가르쳐 주었는데도 고친 것보다 안 고친 것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니 2차 심사에서 당연히 불합격되었다. 그 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 해를 바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저자가 이길 수는 없었다. 2차에서 불합격한 것은 처음 있는 사건이었다.


● 종합 청사의 추위·허기와 통금 시간

내 생애에서 잊혀지지 않게 힘들었던 업무라면 대입 예비 고사 접수부터 학력증 발급까지 전국 개별 지원자의 접수 처리 업무(단체 접수는 아주 쉽다.)와 고입 연합 고사 출제 위원장직 5회 등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8년간의 3, 4차 교육과정 개정 교과용 도서 편찬으로 고생한 일은 나를 10년은 더 늙게 만든 것 같다.

광화문 정부 종합 청사는 퇴근 시간이 되면 난방을 중단했다. 당시는 철제 건물이라 금방 냉기가 도는데 추워져도 전열기 사용을 금지하였으므로 눈, 코, 손만 빼고 두꺼운 외투로 감싸고 혼자 일에 몰두하다 보면 통금 시간에 맞추어 집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일수였다. 저녁은 청사 주변에서 해결하기도 했지만 비상용 건빵이 꿀맛이었다. 3일에 한 번도 좋은데 연일 턱을 덜걱거리며 밤을 세웠다. 의견 합의가 힘든 미술과 심의 위원도 문제지만 일정이 촉박하고 연구 개발 위탁 기관과 출판·인쇄소, 연구진, 집필진, 협의진을 잘 만나야 고생을 덜하는데 어느 한 곳에만 문제가 생겨도 담당 편수관은 개발, 집필, 심의, 교정, 실험, 인쇄 등 전과정에서 쫓기는 고생길이다. 릴레이식 일정, 겹치기 일정에서 한 파트의 지

연만도 연쇄 압박을 주는데 여기저기서 자기 주장으로 지연되니 결국 담당자만 다급하여 거의 혼자서 1인 10역을 해야 불을 끌 수 있어 밤샘을 하는 바보짓을 한 것이다. 이렇게 고생을 해도 국정교과서(주)에서 돌아가는 고속 윤전기를 전화로 멈추게 한 일도 생기는 것이다. 위기 극복을 도와 준 국정교과서(주) 직원들이 눈물겹게 고마웠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간 다 보내고 늦게 보내 준 원고본에서도 고칠 내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견되니 담당 편수관이 꿀탕 먹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게다가 도서 지방에는 먼저 운송해야 했는데 교과서 없이 수업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애간장이 타는 편수관과는 달리 개발원의 의견한 태도는 미치도록 미웠고 야속했다. 금후 이런 고통을 안 받도록 제도를 고치거나 개발 일정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재주는 꿈이 피우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속담이 있듯이 권한은 적고 책임은 무한정 크기만 한 교육부 편수 담당자의 고달픈 업무 방식은 꼭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맺는 말

시장 경제 논리에 어긋나는지 모르나 특성 있는 교과서를 경쟁적으로 만들어 선택할 수 있다는 2종 교과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미술 용어의 난립, 대동 소이한 내용 특성은 교사들에게 여러 종류의 교과서 검토, 공통점 분석, 입시 대비 지도 등 힘들게 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다. 3차 교육과정 이전의 교과서는 출원만 하면 거의 다 합격하다 보니 경쟁에 의한 질 향상보다 무책임한 내용도 용납되었고 14종이나 되었지만 전국에서 단 한 학교에서만 채택,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초판 한 번 나가고 내내 수정 없이 쓰이는 경우도 많았으며, 채택은 전국적으로 몇몇 책에 편중될 수밖에 없었다 책이 비슷하다 보니 저자의 유명세, 사제 간의 학연과 지연 등이 작용한 부끄러운 일도 일부 있었다. 작품의 1/3만 소개하고 마치 그것이 전체 작품인 양 오해하게 하는 경우가 생겨 반드시 ‘부분 작품’이라 명시케 했다. 그리고 ‘거위’ 공작물을 ‘오리’라고 제목을 붙인 틀린 내용이 수년간 사용된 적도 있어 교과서는 부단히 검토,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새삼 해 본다. 당시 초·중등 미술 교과서의 정확한 외래어 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 주신 대한교과서(주) 이승구 선생님과 삼화출판사 이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77~1985년 미술과 편수관〉

1 종 교과서로 바뀐 상업계 교과서

■ 편 / 송병선(전 선린인터넷고등학교 교장)

1. 머리말

제 3 차 교육과정기의 중반인 1977년 초 문교부(현 교육인적 자원부) 편수관실의 충격적이고도 불행했던 세칭 검인정 교과서 사건의 후유증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6월 10일자로 공 채 과정에서 각 교과별로 선발된 9 명과 함께 교육연구관 발령 을 받고 부임하였다.

불안정의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업무의 인수 인계도 받지 못한 채, 먼저 발령을 받아 근무하시던 몇 분들과 또한, 교과목별로 새로 충원되어 오시는 분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와 과제를 해결 하기 위해 뜻과 지혜를 모아 빈번한 집단 사고의 협의 과정을 가지며 새로운 창조를 향해 부지런히 연구하고 노력하였다.

이 과정의 일들은 이미 여러 편수관님들께서 「인물로 본 편수 사」(1999년 1월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편) 및 「편수의 뒤 안길」(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편) 또는 「교과서연구」 제 36 호(한국교과서연구재단 발행, 2001년 6월) 등에서 당시의 어려 웠던 상황과 힘들었던 업무 추진 내용을 상세화하였기에 중복되 는 내용을 접으면서, 주어진 제목에 국한해 상업과 교과서 편찬 개발 과정에 관한 내용과 일화들을 엮는 데 중점을 두고 기술하 려 한다.

지난 사반세기 전에 묻어 두었던 교과서 개발에 얹힌 많은 사 연들을 이끌어 내려니 간직해야 할 일, 잊혀져야 할 일들도 함 께 표출되어져서 선택의 흥미스러움도 느껴진다. 특별히 이 서 두에서 꼭 짚고 가야 할 두 가지 특기 사항이 있으니 그 하나 는, 상업계 고등 학교 교육과정에 그 당시 전문 교과목이 30 개 나 되었음에도 상업을 전공한 편수관이 미발령된 채 타 과목을 전공하신 편수관님께서 그 많은 교과서 편찬과 교육과정 개발의 방대한 업무를 차질 없이 담당하고 계셨던 점이다.

전문성과 다양성이 요구되며 상당한 수준의 전공 분야 심화 과정이 있음에도 그 많은 전문 교과목마다 우수한 수준의 교과 서를 개발하시고, 검정 도서의 심사 과정을 담당하시던 열정과 능력에 경의를 표하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는 미래 지향적인 해안으로, 상업과에 필수적인 전자 계산에 관한 5개 과목을 신설한 점이다. 1970년대 초반은 전자 계산에 관한 분야가 불모지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세계 문명의 발전 추세를 예견하시어 전자 계산 일반, 코블 프로그래밍, 포트란 프로그래밍, 어셈블리어 프로그래밍, 전자 계산 실무의 5 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제하여 교과서를 개발하고, 교육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은 참으로 편수관님들의 선견적인 안목과 전문적 식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상업과를 전공하고 또 교육 현장에서 상업에 관한 교과목을 지도했다는 필자의 취임이 상업과 편수 업무 담당자로서는 최초였기에, 상업 교육계에서의 큰 기대에 부응할만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유능한 일꾼으로서 편수 업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긴장되었음은 물론, 더욱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던 것도 솔직한 고백이다.

2. 교과서 편찬

1977년 검인정 교과서 사건 이후 종래 오랫동안 적용해 왔던 ‘교사용 도서 검인정(령)’을 폐지하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1977. 8. 22.)이 제정 공포되면서 교과서 편찬 및 발행 제도가 바뀌었는데, 편찬 발행 형식이 1종 도서(과거의 국정 교과서) 및 2종 도서(과거의 검정 교과서)로 제도화되었다.

1종 도서는 연구 개발형으로 대학교에 부설 연구 기관이나 또는 1종 도서 편찬위원회(연구개발위원회)를 조직한 경우에만 개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전문가들이 다수 공동으로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게 된 발전적인 전환이었다.

한편, 이미 폐지된 ‘교과용 도서 검인정(령)’에 따라 편찬 발행되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던 실업계 고등 학교용 검정 교과서를 1종 도서화하기로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 편찬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 2종 도서로 발행되었던 상업계 고등 학교용 20 교과목의 22권 교과서(상업 계산 교과목은 1, 2, 3)와 인문계 고교 상업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2권을 합친 24권의 교과서를 1978년 1년 동안에 1종으로 편찬하여 1979 학년도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정하여졌다.

아무리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하나 1종 도서 편찬 과정에서 통상 2~3년 이상 소요됨이 정상인데, 1년간의 시한이었으니, 실험 실시의 과정을 생략하더라도, 편찬 과정의 절차를 이행하며 과연 이 방대한 업무 수행을 순조롭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 또한 내용과 수준이 적정하며 양질의 교과서를 편찬할 수 있을까? 하는 등의 걱정이 태산 같았다.

개발 기간이 너무 짧고 또한 많은 교과서인지라 시행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도 우선 집필 경험이 있는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교과서별로 과거 집필자를 나열하고,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대학별로 정리한 다음, 교과서 집필을 하지 않으셨던 유명 교수님의 폭넓은 참여를 적극 권장하기로 하고, 대학별로 부설 연구소에 분산하여 교과서 편찬 업무를 의뢰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서울대학교 부설 경영연구소(소장 심병구 교수님)에 9권(경영 관리, 경영 수학, 상업 계산 1·2·3, 상업 실천, 세무 회계, 부기 I, 부기 II), 고려대학교 부설 기업경영연구소(소장 김동기 교수님)에 7권(상업 대요, 판매 관리, 은행 부기, 한글 타자, 영문 타자, 무역 업무, 사무 관리), 홍익대학교 부설 산업경제연구소(소장 심상필 교수님)에 4권(상업 서예, 문서 사무, 인문계 고등 학교 상업 및 상업 교사용 지도서), 숭전대학교(현 숭실대학교) 전자계산연구소(소장 송후봉 교수님)에 3권(전자 계산 실무, 포트란 프로그래밍, 어셈블리어 프로그래밍), 한국속기교육협회(회장 남상천 님)에 1권(속기)의 집필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직접 방문하여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강의와 연구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후진의 건전한 육성과 우리 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수락해 주신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

교과목별 학습의 기본이 되는 교과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발 편찬의 책임 있는 추진을 위하여 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교과서별로 대표 집필 교수님들의 승낙을 받는 절차를 취하였지만, 너무도 단기간인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난색을 표할 때는 당혹스러운 경우도 없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전공하신 교수 3인 이상의 공동 집필을 원칙적으로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필 분량을 조절할 수 있어 부담을 덜어드리는 이점도 작용되었다.

공동 집필의 장점을 살리고 능률화를 위해, 대표 집필 교수님으로 하여금 공동 집필하실 교수님을 선정하고, 교수님별로 요청을 드려 동의를 구하였다. 특히, 매 교과서마다 반드시 집필진에 교수 2명 이상과 고등 학교 교사로서, 과거 검정 도서 저자를 우선하고, 아니면 교단 현장에서 해당 과목을 지도하고 계신 유능한 선생님 1명 이상을 꼭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필자가 추천하여 합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교과목별로 전공자의 다수 참여를 통해 집필의 방향, 학습의 범위나 수준에 맞는 내용 선정, 미래 지향성 등의 타당도를 검토하고 협의하여 우수한 교과서의 개발 편찬을 이루고자 집필진 외에 연구진 및 협의진을 각 3인 이상(다수를 권장하고, 대학 교수, 고등 학교 교사의 균형 있는 안배 고려) 구성하여 집필 과정에서 자주 협의하고 조정하도록 제도화하였다. 개발 기관이 5 곳에서 24 책에 대한 연구진, 집필진, 협의진의 구성 인원만도 300여 명이 되니 인선의 과정도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들은 전원이 1 과목 이상 집필에 참여해 주시는 방향으로 심병구 소장님께서 깊은 협조를 하여 주셨다. 이러한 결정을 얻기까지 당시 교육부 장기옥 편수국장님의 도움 말씀도 크게 효과적이었다.

교과서 개발을 위해 이와 같은 기초적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는 교육부에서 발행한 ‘집필상의 유의점’을 참고로 하여 집필진들의 합의로,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과목별 단위 구성 내용에 따라 연구 개발 계획으로서의 단위별 집필 세부 계획서(교육과정 상세화)를 작성하여 교육부에 제출한다. 교육부에서는 교과목별 1종 도서 편찬심의(위원회)(11인 이상 21인 이내)를 조직하고 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단위의 배열, 범위, 수준, 분량 등의 타당도를 심의 후 비로소 원고를 집필하게 된다.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공동 집필자 간은 물론 연구진, 협의진의 관계분들과도 긴밀한 협조

로 협의하고 검토하는 유대 강화의 기회가 빈번하여 훌륭한 교과서 편찬이 될 수 있도록 연구소 소장님이나 집필 교수님들께 수차에 걸쳐 지나칠 정도로 협의회 절차를 요구하고 권장하였던 결례를 범하기도 하였다. 집필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시성이 있어 원고 마감에 대한 독촉의 빈도도 잦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정성껏 집필하신 육고를 해당 교과목 1종 도서 편찬심의회 위원님들께 우송하여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내용을 검토할 기회를 드리고, 그 후 심의회를 소집하여 내용상의 난이도, 수준의 문제, 표현 방법의 적정성, 통계자료 등 심지어는 맞춤법까지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할 내용을 3일간 오후 시간에 모여서 계속하여 집필자와 함께 조정하고 협의하여 수정하였다.

원고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 위원과 집필자 간의 교과서 수준의 문제, 난이도 등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한 격론이 벌어지기도 하여 때로는 집필자의 불쾌감마저 야기되기도 하는 진통의 시간 등에는 필자의 중재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은 우수한 양질의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한 사심 없는 교육애의 발현이므로 수정 보완의 요구 내용들이 절충과 합의로 수용되고 가다듬어져 수정 개고본이 완성되고, 다시 1종 도서 편찬심의회에 최종 심의 과정을 거친다.

개고본에 대한 심의도 원고본 심의 때와 같이 다시 내용 전반을 검토하고 또다시 수정 보완의 기회를 가져 완성된 작품을 가쇄본으로 재작한다. 이는 다시 표기법, 정확성 등의 사안을 통한 교정과 종합 검토가 이루어진 후 완벽하다고 확신할 때 비로소 최종 결재 후 인쇄 과정에 넘기게 된다.

최종 결재본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차례 심의회에서 수정 보완 작업이 반복되지만 편수 업무 담당자도 계속하여 여러 번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하루에 한 권씩을 정독하더라도 24일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여러 번 검토해야 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으니 불안감이 앞서고, 대안으로 친교 있는 전문가들에게 사적으로 협조를 간곡히 요청하는 편법도 동원하였다. 1년間に 편찬을 완료해야 하는 과정이어서 집필 기간이 비슷하여 탈고의 시차를 갖도록 권고를 계속하고 있더라도 많은 교과서이므로 막바지 시점에 겹치는 경우가 있게 마련이며, 따라서 교과서별 심의회 심의 기간이 편중될 수밖에 없어 중복하여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보니 두 곳을 왕래하며 쫓기는 시간의 초조함도 피할 수가 없었다.

1978년도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더없이 안타까웠던 것은 상업과를 전공한 필자가 당시에 전자 계산 분야에는 문외한이었으니, 내용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함에 따라 집필자나 심의회 전문가님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분들께 철저한 검토를 여러 차례 정중히 요청하였다. 그러면서도 오자, 탈자 방지 및 띄어쓰기, 맞춤법, 표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내용을 모르면서도 오류 하나라도 찾아내고자 정독해야만 했던 힘든 시간들이 어려웠던 그 시절을 되짚게 한다. 의욕은 앞서면서도 충분치 못한 시간의 아쉬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였지만 불안한 심정으로 결재본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정말 다행스러웠던 것은 상업계 24책이 모두 대한교과서(주)에서 인쇄하게 되었던 바, 당시 당해 회사의 이승구 상무 이사님(현재는 당해 회사 고문)께서 오랫동안 교과서 수정 업무

에 많은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겸비하신 전문가로서 열심히 검토해 주시는 결정적인 도움으로 오류가 없는 교과서를 생산할 수 있었기에, 이승구 고문님의 고마움은 잊을 길이 없다.

실로 다사다난했던 1978년 교과서 개발 편찬에 연관된 일련의 작업들이 그 때를 회상할 때마다 영상처럼 스쳐 가는 추억 속에서 과연 정상적으로 성공적 성취를 이루었던 것인지 보람의 미소와 아쉬움의 위로가 늘 함께 공존하며 흘러간다.


3. 맺는 말

제 3차 교육과정기에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편수 행정의 발자취를 회고하는 영역인데, 1978년 개발한 교과서에 국한하여 언급한 것은, 당해 연도에 그 많은 교과서를 개발 편찬하면서 얻은 여러 사항의 체험기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관적 판단과 지면의 제한성이다.

돌이켜보면, 교과서의 편찬 과정에서 원고 집필 책임 교수님과 또한 공동 집필 교수님 연구실을 방문하여 내용 협의와 원고 독촉을 강행하던 일, 탈고의 지연으로 일정에 쫓기어 초조해하며 불안해하던 일, 원고본이나 개고본의 심의 과정에서 내용의 수준이나 난이도, 범위 등에 대하여 고등 학교 선생님과 집필 교수 간의 협의 및 격론 과정에서의 중재 역할, 정상 근무 시간을 초월하여 늦은 저녁 시간까지 편찬 심의회에서 열심히 수정 보완과 개고를 함께 하던 일, 참신하고도 최선의 학문 내용, 삽화 통계 등 세밀한 부분까지 창의적 요구를 하던 일, 오류 없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경주하던 추진성 등이 추억 속에서 주마등처럼 스쳐 가며 기억된다.

1종 교과서 개발 편찬시마다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에의 공통 분모로 인해,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도 열정적으로 집필과 심의에 협조해 주신 교과서 편찬 당시에 관여했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제 3차 교육과정 말기에 제정된 제 4차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 442호: 1981. 12. 31.)에 의한 상업계 고등 학교 교육과정은 최초로 상업과, 회계과, 무역과, 정보 처리과의 전공별 분과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종전에 있던 전문 교과목 7 과목을 통합 또는 폐지하여 23개 교과목으로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 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한 발전적인 교육과정이 편제되었다.

끝으로 1종 도서 편찬의 발자취를 회고해 볼 때, 당시를 기준으로 절실히 요구되던 사항 중 몇 가지를 지적해 보면, 원고료의 인상, 개발에 소요되는 충분한 기간 확보, 연구 개발을 개방하는 2종 도서화로의 신속한 전환 등이 결론적으로 집약된다. 

〈1977~1983년 상업 담당 편수관〉

교과서 개발의 전환적 모습

■ 권 / 이영복 (혜천대학 교수)

1. 체질 개선에의 지향

과거와 오늘을 통하여 교과서가 왜 중요한 교육 매체인가에 관한 생각은 여전히 변함없는 인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교과서는 여러 유형의 지식 전달 매체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보유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교육 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교수·학습 수단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이르러서도 그런 생각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를테면, 미국의 철학자 도렌(Doren, M. V.)은 자국이 거둔 성공을 교과서에서 찾고 있어 주목된다. 그는 “교과서를 떠나 오늘의 미국은 이룩되지 않았을 것”이라 강조하고, “세계의 구석 구석에서 모여든 미국민이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된 기적은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 설파했던 것이다. 요컨대, 교과서라는 공공(public)의 교육 매체, 그 공분모(common denominator)적인 역할에 힘입어 강대한 나라 미국이 건설되었다는 지적이다. 1967년, 도렌이 천명한 말이지만 지금에 와서도 매우 설득력 있는 증언임에 분명하다. 우리는 여기서 ‘교과서와 국가 발전’이라는 상관 관계를 통해 전통적인 교과서관의 한 축을 들여다보게 된다. 이는 교과서 교육을 사회 발전의 중대 요소로 보고자한 거시적이고도 이상적인 인식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교과서를 이용한 학습 의존도면에서도 특별히 변화된 게 없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최근 매사추세츠의 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교과서야말로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주된 수단이라 전제하고, 학생들의 교내 생활 중 75%, 또 학교 외에서의 탐구 활동 중 90% 정도가 교과서 학습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런 교과서로 말하면, 교수·학습 활동에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보편한 인식 외에 국가·국민 이념에 관한 문제, 현실적으로는 발행권을 둘러싼 경제적 이윤 배분에 관한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제들을 떠안고 있는 교육 출판물이기도 하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과서는 세계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도 많은 질곡과 변화를 겪었던 것 같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제

3차 교육과정기(1973. 2. ~1981. 12.)의 교과서도 그런 변화의 한 흐름 속에 실려 있었던 내력을 읽게 된다. 요컨대, 변화를 지향한 체질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던 구간이 제3차 교육과정기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전시 문교(戰時文教)의 연장선상에 들어 있었던 제1차 교육과정기(1954. 4. ~1963. 2.) 끝에 5·16 세력에 의한 제2차 교육과정기(1963. 2. ~1973. 2.)로 색인을 보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제3차 교육과정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제1, 2차 교육과정들에서도 ‘전면 개편’이 이행되었지만, 제3차의 그것은 강력한 통치권에 의해 보다 강도 높은 제도적 기반을 구축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예컨대, ‘국민교육헌장’ 이념 구현을 통한 ‘국적 있는 교육’의 표방이라든지, 종래의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을 폐지하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1977. 8. 22. 대통령령 제8660호)을 제정·공포함으로써, 그에 따른 1종 및 2종 도서제 실현 등이 가장 뚜렷한 징험일 것이다. 이 같은 환경으로 하여 교과서의 출판·편집에 반영된 기존의 구조들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 때가 제3차 교육과정기였다. 그런가 하면 ‘연구 개발형 교과서’(1종 도서)도 탄생을 보게 되었는데, 이 모두는 광복 후의 교과서사에 있어 일대 전환적인 모색이었고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실현이기도 했다.

2. 국적 있는 교육과 교과서

한 나라의 교육은 곧 그 나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 나라에서 출판된 교과서 역시 자국의 피교육 세대에게 주어지므로 그 나라의 고유한 교육 수단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다. 새삼스러운 되짚음이지만, 제3차 교육과정기에 이행된 교육 정책과 교과서 편찬은 특별히 ‘국적 있는 교육’을 대강령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우리의 기억 속에 1970년대식 상징으로 자리해 있다. 당시의 교육 이념이 외래적인 것이라거나 어떤 탈내셔널리즘적 요소에 대응한 ‘국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당시에 추구했던 교육과정의 기본 방침 중에서 그 배경을 살필 수 있다. 즉, ‘국민적 자질의 함양’이라 하여 민족 주체 의식의 고양,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 문화의 창조, 개인의 발전과 국가 융성과의 조화 등 이렇게 3대 요건으로 골간이 정리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른 준거 논리는 ‘국민교육헌장’ 이념을 구현한다는 데 두고 있었으며, 이는 모든 교육 행위의 상위적 가치 신념 체계로 머리에 얹혀 있었다.

국민교육헌장이 이룩된 배경은 1968년 6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이 권오병 문교부 장관에게 “교육 헌장을 제정해서 생활 윤리를 확립하라.”고 지시한 데 터한다. 이로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1968. 6. 20.)한 다음, 헌장 초안을 확정(1968. 10. 1.)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5일자로 대통령에 의해 공포를 보았다.

이렇게 현실화된 국민교육헌장은 1970학년도부터 사용된 초등 학교 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교의 모든 신·개편 교과서에 일제히 실렸다. 이는 국민 교육의 주지적 이념을 내보인 것일 뿐만 아니라, 교과서 편제에 있어서도 전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교과서를 펼치면 표제지와 속표제면 사이(표제지 이면)에 첫 번째로 노출되던 것이 국민교육헌장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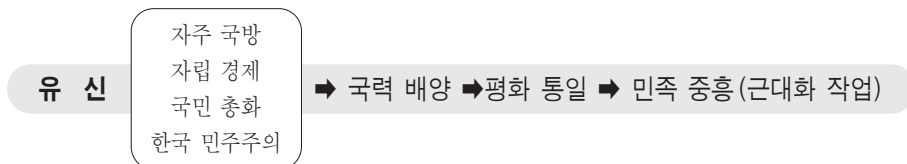
모든 교과목 학습에 전제되는 모근거로 주어졌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무궁화와 태극기를 국민교육헌장 뒤에 넣어 국적 있는 교육으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강하게 투영하고자 했다. 그런 가운데 민족 중흥, 조국, 새마을 운동, 자주 국방, 국민 총화, 승공 등 우리의 기억에 익숙한 단원 명칭이나 시대적 용어들이 다빈도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도 제 3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였다. 그것은 거대한 물줄기로 교과서 교육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데올로기이기도 했다.

그렇게 된 데는 두 가지로 가름되는 시대적 이슈와 연결되고 있었음을 들여다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제 3차 교육과정은 국민교육헌장의 선포에 뒤이은 ‘10월 유신’(1972. 10. 17.)과 직결되어 있었음이 그것이다. 10월 유신의 골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한국적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데 있었다. 이 같은 변혁 지향으로 하여 교과서 교육에도 엄청난 영향을 몰고 올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유신 이념을 국민교육헌장으로 틀화하여 교과서 편찬의 기저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세 가지 사회적 성취—자주 국방, 자립 경제, 국민 총화—를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적 성취를 통해 국가 목표를 추구하고자 했는데, 이는 국력 배양, 평화 통일, 민족 중흥으로 표방되었던 것을 말한다. 이렇듯, 국민교육헌장과 10월 유신은 이념적 교감을 이루면서 교과서 편찬의 주조적 체계로 들어앉아 있었다.

3. 교과서 편찬의 변화

제 3차 교육과정기의 기본 설계는 ‘학문 중심’이었는데, 10월 유신과 국민교육헌장 이념 구현으로 실질적인 정점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역대 교육과정사 중 특이한 구조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체질은 당국이 공표한 ‘교과서 편찬의 기저’라는 문건을 통하여 천명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과용 도서 편찬의 전제



나. 교과용 도서 편찬의 기본 방향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구현(국적 있는 교육의 실시)*

〈자료 : 한국2종교과서발행조합, 「교과서 관계 법규집」(서울 : 한국2종교과서발행조합, 1980.), p. 33〉

이와 같이, 교과서 편찬의 전제는 유신 과업의 수행에 두었으며, 그에 따른 기본 방향도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구현으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편집 및 편찬 체제에 관한 방침도 ‘집필상의 유의점’을 통하여

판형, 면수, 제본 등은 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르고, 활자, 행간, 여백 등은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위의 자료, p. 44)

라고 묶어 두었다. 이 같은 규제 정책은 제 3 차 교육과정기뿐만 아니라, 이후 1980년대 후반 까지 우리의 교육과정·교과서사 속에 실려 있었던 골간이기도 했다.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대립을 경험하고 있는 국토 분단 상황하에서 ‘주지적 교과서’로 체화(體化)시키고자 한 전략이었을 것이다. ‘국시와 국책과의 일치’를 전제하고 있었던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였다.

그런 가운데 제 3 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편찬은 다각적인 면에서 전환적인 모색이 추구되기도 했다. 이를 사안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연구 개발형 교과서’(1 종 도서) 편찬이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1979학년도 사용본부터 적용된 이 모형은 종래의 집필 → 심의 → 출판·보급으로 이어지는 관행을 개선하여 선 연구, 후 개발 개념을 도입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문교부가 연구 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교과서를 개발케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 집필진 등 개발 진용이 구성되었는데, 그들이 거둔 성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들은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상호간의 학문적 견해를 왕성하게 토론하는 등 현안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었다.

둘째는, 교과서 제작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외적 체제 면에서 일부 실업계 및 예능계 교과서, 그리고 사회과 부도 등의 판형을 4X6 배판으로 키우는 사례가 거듭 확대 적용되었는데, 이런 현상은 주목되는 진전이었다. 또, 초등 학교 저학년용(1~3 학년) 교과서는 전면 원색을 실현했고, 1979학년도부터는 중·고등 학교용 모든 교과서에 6 쪽 이내의 원색 화보를 실었던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발전적 변화는 국가의 경제 개발 성과가 반영된 증거라 하겠다.

셋째는, 광복 후 처음으로 교과서 연구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1977년에 초등 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새 교과서 모형 개발 연구」와 1979년에 이룩된 「교과서 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1981년의 「교과서 개선 연구」(이상 한국교육개발원) 등은 주목되는 성과로 꼽힌다. 교과서관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제기된 것도 이 연구들을 통해서였다.

넷째는, 광복 후 최초로 시도된 실험용 교과서 편찬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문교부는 제 3 차 교육과정을 공포(1973. 2. 14.)한 직후 초등 학교 교과서를 30 개 표본 학교에서 현장 평가를 하게 한 다음, 1, 2, 3 학년용은 1973학년도부터, 4, 5, 6 학년용은 1974학년도부터 사용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는 편수국의 아이디어였다. 당시만 해도 편수국에서 직무하던 편수관들은 실질적인 교과서 연구팀(국어 및 교육 자료의 조사 연구)으로서도 많은 일을 해 냈

다. 그들은 ‘문한직(文翰職)’ 관료였지만, 편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남다른 열정을 기울인 사람들이었다. 뒤의 일이지는 하지만 이른바 ‘검인정 사건’이 발생(1977. 3. 24.)하는 등 어려운 일들과 맞물려 편수국이 폐지(1978. 3. 14.)되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

이와 같은 징험들로 보아 제 3차 교육과정기는 우리의 교과서 변천사에 있어 전환적인 모색기였고 또한 여러 이슈들이 분출하던 시대적 변혁 속에 실했던 있음을 알 수 있다.

4. 교과서 편찬의 현장에서

제 3차 교육과정기는 오늘의 ‘제 7차’가 진행되고 있는 노정에서 볼 때, 절반의 실험기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교과서의 신·개편 사정만 해도 제 3차 때의 그것처럼 전면적인 폭을 형성한 시기도 일찍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문 정책의 변혁에 의한 지배적 환경을 들 수 있는데, 그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전면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도 그 구간이었다. 즉, 한글 전용(1970. 3. ~1975. 2.)과 한글·한자 병용(1975. 3. ~) 정책을 잇따라 적용했음이 그것이다. 이로 하여 교과서 출판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일감이 거대 물량으로 밀려들었던 까닭이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교과서 업계에 편집 일꾼들이 대거 채용되었고, 막상 일이 끝나게 되면 일시에 떠나는 이른바 ‘떠도는 후조’ 현상이 관행처럼 굳혀진 것도 그 무렵이었다. 그럴 때 대한교과서의 경우는 자의적인 퇴직자 외에는 전원을 재기용하는 등 그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었다. 기존의 편집팀 외에 50여 명이나 되는 추가 편집 요원들을 한꺼번에 잔류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늘 교과서 개편의 순환에 대비했던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수많은 출판 기업이 존재(2001년 말 현재 1만6천여 개사)하지만, 특별히 주목해 둘 일이 있다. 교과서 회사에서의 ‘교과서적인 정서법’ 추구가 그것이다. 이는 국어학자들의 뒤편이 아니라 편집자들의 땀이 그 현장에서 배어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내로라하는 저명한 필자들의 무게 있는 글도 일단 편집자의 손을 거치게 되면 새롭게 태어나곤 한다.

교과서로 말하면 10교를 상회하는 게 보통이요, 어떤 경우는 교료를 낸 상태에서 처음과 끝을 다시 손보는 사례도 흔했다. 제 3차 교육과정기만 해도 납활자 시대였으므로 편집자들의 고생은 이루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 때문에 그들은 밤을 낮삼아 일했다. 사정이 그러다 보니 문선·조판 일꾼들의 고생은 여북했겠는가. 오늘에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야말로 우리의 교과서사에 있어 숨은 공로자들이었음에 틀림없다.

교과서 업계에 몸담았던 사람이라면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장인’들이 있을 줄 안다. 그 중에서 이승구(전 대한교과서 출판본부장, 사장 역임. 현 동사 고문) 선생은 타고난 교과서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지난날 소속사의 교과서 편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리적 근거 실증주의에 철저했고, 그런 바탕 위에서 일을 밀어 나가는 데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다. 스스로 저술한 「정서법 자료」는 모든 교과서 편집자와 출판계의 ‘교전(敎典)’으로 이바지했던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만들기에 혼신의 열정을 쏟았던 많은 편집자들 또한 이바지함이 컸다.

예컨대 차진승, 이원명 선생 등이 그런 편집자들이다. 잡지를 읽으면서도 습관처럼 문맥을 살피고 오자를 집어 내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의 직무에 남다른 자긍심을 추구하는 가운데 치열한 장인 정신으로 짧은 시절을 불지핀 사람들이었다.

이제 제 3 차 교육과정기가 열린 때로 셈해 본다면 어느덧 30여 년이나 흘렀다. 짧은 적바림에 지나지 않지만, 당시의 교과서 편찬 정황은 이런 저런 사회적 격변 속에서 많은 모색이 있었고, 또한 전환적인 실험이 거듭되었음을 되살필 수 있었다. 제 3 차 교육과정기는 비록 10 년이 채 안 되는 적용 구간으로 존재했으나, 그 절반의 실험이 오늘의 디딤돌로 이어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참고 문헌〉

- 김용만, ‘편수 행정의 발자취 - 사회과 교과서편’, 「교과서연구」(제 35 호), 서울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0. 12.
-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2종교과서협회, 「교과서 개선 연구」, 서울 :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2종교과서협회, 1981.
- 문교부, 「국민 교육 현장 독본」, 서울 : 문교부, 1968.
- 문교부, 「문교 40 년사」, 서울 : 문교부, 1988.
- 신세호·한면희·이종렬, 「교과서 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79.
- 이소영, ‘외국어 교육에서의 교과서 자유 발행 제도’, 「교과서연구」(제 34 호), 서울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1. 12.
- 이승구, ‘제 3 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신·개편과 그 뒷이야기’, 「교과서연구」(제 37 호), 서울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1. 12.
- 이종국, 「대한교과서사 : 1948~1998」,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출판 변천 연구」, 서울 : 일진사, 2001.
- 임종일 엮음, 「연표로 보는 제 3 공화국」, 서울 : 영언문화사, 1993.
- 편집부, ‘국민 교육 현장 해설’, 「청량원」(통권 제 74 호), 서울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청량원사, 1968. 12.
-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 「편수의 뒤안길」(제 3 집),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12.
-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한국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1998.
- 한국2종교과서발행조합, 「교과서 관계 법규집」, 서울 : 한국2종교과서발행조합, 1980.
- 한중하·이양우·안희천, 「중학교 교과서 개선을 위한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82.
- 허강, ‘우리 나라 교과서 연표’, 「교과서연구」(제 19 호, 제 20 호), 서울 : 한국2종교과서협회, 제 19 호 : 1994. 7., 제 20 호 : 1994. 12.
- Doren, M. V., School Book, New York : American Educational Publisher's Institute, 1967.

『교과서연구』는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의 성과·교육 제도·교육 과정·교육 자료 등
교육 현장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연구』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교과서 전문 연구지

『교과서연구』

◆ 원고 내용

- 교과서 및 교육 과정 관련 연구와 교육 현장의 교과 운영 현황과 교과서 활용 방안 등
- 교육 현장과 관련된 교수-학습의 특색 있는 내용 등
- 『교과서연구』를 읽고 느낀 점이나 새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등
-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수필·시·만화 등

◆ 원고 매수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A4 용지 10포인트 4매 기준)

◆ 원고료

-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보내실 곳 : 135-93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1-11 서울빌딩 6층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연구』 편집자 앞
E-mail 주소 : editor@kotri.re.kr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501-9103으로 문의 바람.

교과서와 공교육 살리기

■ 글 / 임철순 (한국일보 논설위원)

내가 초등 학교를 다닌 1950~60 년대의 시골에는 책이 귀했다. 농사일에 바쁘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많은 시골에서 책은 그다지 중요한 물건이 아니었다. 심지어 어느 집에서는 아버지가 아이의 공책을 찢어 담배를 말아 피울 정도였으니 독서 환경이야 더 말할 것도 없겠다. 책이 있는 집도 드물었지만, 눈이 어두운 노인들은 직접 읽기보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하고 듣는 편이었다.

초등 학교 2학년 때였으니 1959년인가 보다. 그 때 충청도 공주의 우리 고향에는 아직도 붓장사가 다니고 있었다. 붓장사가 사랑방에 찾아오자 손자 자랑을 하던 할아버지가 나를 불러 삼국지를 읽게 했던 기억이 난다. 술대접을 받고 있던 붓장사는 한동안 듣고 난 뒤 “손주가 참 숙성하군요.” 하고 말했다. 숙성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칭찬하는 말은 분명한 것 같았다. 학원사에서 나온 그 한 권짜리 삼국지는 하도 읽어 너털너털했다. 우리 집에서 읽는 데다가 다른 집에서도 빌려 가기 때문이었다. 나는 할머니 친구들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삼국지를 읽어 드렸다. 지금 생각하면 글 읽는 습씨가 오죽했으

랴만, 책이 귀하고 오락거리가 별로 없는 시골에서 노인들의 심심풀이거리는 됐을 것이다.

삼국지를 읽은 것은 한글을 배운 뒤의 일이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접한 책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계몽편이라는 한문책이다. 어린 아이들의 수신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그 한문책을 나는 할아버지에게 회초리를 맞아가며 배웠다. 책을 떼었을 때 책거리라 해서 떡을 얻어 먹었던 기억이 난다. 사랑방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내가 외출하시는 할아버지의 지시대로 계몽편을 소리 높여 읽을라 치면 동네 아이들이 집 앞을 지나가면서 흥내를 내곤 했다.

또 하나는 ‘수정용’이라는 책이다. 계몽편이 오래 전에 손으로 만든 고서였다면 수정용은 인쇄 기계로 제작한 신간이었다. 수정용이 무슨 책이나 하면, 한 마디로 ‘생물 도감’이었다. 서울에서 고교 생물 교사로 재직하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생물 도감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정을 보아야 할 것을 시골집에 가져오신 것이다. 제본도 안 된 그 책에는 누렇게 뻥뻥한 표지가 썩어져 있었고 ‘수정용’이라는 파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아직 한글을 모르

는 내게 누군가 수정용이라고 글자를 읽어 주어 나는 그 때부터 그 책을 수정용이라고 불렀다. 수정용에는 식물, 동물, 곤충은 물론 인체 해부도까지 별의별 그림이 다 있었다. 이 컬러판 그림책은 동네의 신기한 구경거리가 됐다. 사랑 마루에 둘러앉은 할아버지들이 인체 그림을 들여다 보시면서 “이게 똥꼬가?”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으시던 모습이 떠오른다. 수정용은 각종 생물의 이름 알아맞히기 퀴즈 교재가 되기도 했다.

교과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쓸데없는 말이 너무 길었다. 교과서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기 위해 말문을 연 것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삼국지나 계몽편, 수정용은 일종의 교과서였다. 교과서나 다름없을 만큼 내게는 그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교과서는 모든 책의 대표였고 시작이며 끝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아이들은 책이 너무 많아 탈이지만,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처음 접한 책은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받아든 교과서였을 것이다.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거나 교과서대로 한다는 식의 말은 교과서의 존엄과 영향력을 알려 주는 표현이다.

교과서에는 아득한 유년 시절의 추억이 담겨 있다. 학년이 바뀌어 새로 교과서를 받았을 때 숨을 들이키면서 말던 새 책의 냄새, 그 냄새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교과서라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우선 생각하는 것은 초등학교 교과서이며, 그것도 국어 교과서가 아닌가 싶다. 그만큼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한 인간의 인격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준다. 교과서에는 인생이 담겨 있다. 교과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잠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 무엇인가. 내가 배운 초등학교 교과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형식을 빌려 예, 아니오가 가장 어려운 말이라고 알려 주고 있었다. 아버지는 “뜰에 콩각지 저 콩각지가 깬 콩각지인가 안 깬 콩각지인가”와 같은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인가 아니오인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일러 준다. 정말 멋지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도 기억하는 그 많은 국내외의 명문들!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과 민태원의 ‘청춘 예찬’ 정비석의 ‘산정무한’ 따위나 김진섭, 피천득, 이양하의 산문, 나다니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 관동별곡이나 의유당 관북 유람 일기와 같은 우아하고 멋진 고전은 대부분 교과서가 아니고는 읽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내가 무슨 글을 국어 교과서에서 읽고 배웠는가를 차례로 반추하며 재밌고 싶을 정도다.

교과서에는 명문이 많아야 한다. 학생들은 명문을 배우고 외면서 삶과 인간을 배우고 문장력을 길러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교과서는 다른 문장에 대한 궁금증과 지적 호기심을 길러 주게 된다. 요즘 학생들이 사용하는 국어 교과서는 대체로 시사적인 점에서 종전의 교과서보다 충실하고 동시대의 문인들이 쓴 글이나 지명도가 높아 금세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학자들의 글이 많이 실려 있는 것 같다. 교과서에 글이 실리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도 많아졌고 전과 달리 누구의 글인지 작자의 이름도 명기돼 있다. 그러나 내가 낡은 사고 방식에 빠져 있는지 몰라도, 대체로 너무 평이하고 상식적이다. 삶의 깊이가 갖춰져 있고, 학생들에게 인생의 오묘함을 생각하게 해 주는 명문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사실, 우리 교육 당국은 그 동안 교과서를 통해 정부(또는 정권)가 바라는 인간상을 만

들기 위해 애썼다. 교과서를 통한 교육은 통치와 훈육하기에 편하고 일정한 규격과 틀 내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상을 지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시대별 지향성은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 첫 문장을 통해 노출되곤 했다. “바둑아 바둑아 이리 오너라.”와 같은 무이념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나 너 우리”를 통해 집단 의식을 강조하거나 “푸른 하늘에 우리 태극기” 식으로 애국심을 주입하기도 했다. 나는 1990년 가을, 교육을 주제로 미국을 한 달 동안 여행할 때 미국의 초등 학교 1학년 교과서가 궁금해 기회 있을 때마다 내용을 살펴보고 한 경험이 있다. 미국인들은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주입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궁금증은 무식의 소치였다. 우리처럼 획일적이고 틀에 박힌 교과서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교과서의 내용은 그렇다 치고 발행 부문에서의 민주화는 진척이 있는 것 같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 하순에 교과용 도서 관련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 대한교과서가 독점하고 있던 1종 도서 발행권을 다원화하고 교과서 공급업자도 대행사 지정제를 폐지했으며 전자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모든 교과서가 국정으로 돼 있는 초등 교과서가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 도서를 줄이고 검·인정 도서를 확대하는 한편 일부 교과서의 자유 발행제 도입 방안을 검토키로 한 점이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교과용 도서의 발행·공급 체계를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인정 도서가 확대되면 우리 나라도 학생

들에게 보다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자유 기업원이라는 민간 단체가 4월 하순에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포럼을 연 일이 있다. 소설가 복거일씨가 맡았던 발제 강연의 제목은 ‘독자들에게 친절한 교과서’였다. 그는 우리나라 교과서가 해당 분야에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혼자서 읽고 배울 수 있게 친절하게 설명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도 독자들의 흥미에 애쓰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좋은 교과서가 드물어 우리 사회가 입는 손실은 엄청나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복씨는 학자들이 보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교과서를 쓰려고 애써야 하며 좋은 교과서를 쓴 저자에게는 응분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나도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부가 시상하는 교과서상이나 훌륭한 편저자상 따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편저자들의 의무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잘 만드는 것은 둘째치고 틀리거나 시대에 뒤쳐진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들이 많아 문제다. 한 신문 기사에 의하면 사회 과목 교과서에 특히 문제가 많다. 1996학년도부터 사용해 온 6차 교육과정 1·2종 교과서는 7년째 사진이나 통계 등 자료의 수정·보완에서 부실하다. 예를 들면, 모 연구 기관의 중학교 ‘환경’은 1990년도 인구 통계를 들어 주요 도시의 환경 오염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200만대를 훨씬 넘은 서울의 자동차 대수를 1994년 통계인 180만대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모 발행사의 고등 학교 ‘사회·문화’는 1994년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지역 간 인구 밀도와 경제력을 비


교하고 있다. 교과서 중에서도 사회 과목은 현실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 현상을 반영해야 하는데 교사와 학생들의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낡은 자료와 통계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내용의 파급 영향까지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올해 배포된 고교 1학년 도덕 교과서의 경우 집단 이기주의를 설명하면서 ‘의사회’라는 글자가 나오는 시위 사진을 자료로 실었다가 의사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의사들이 40억여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교육 당국은 부랴부랴 문제의 사진을 덮어 씌울 다른 사진 스티커를 나눠 주기도 했다. 교과서 제작 과정의 분별과 배려가 모자라 화를 자초한 사례이다.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교과서를 재발행할 때 관계 당사자들의 수정 의견이 제기된 사항이나 교육부 소속 연구원들의 심의에서 지적된 것은 장관이 수정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매년 재발행할 때마다 심의를 거쳐 수정할 필요가 큰데 실제로 그런 사례는 없다. 올해 3월 재발행된 6차 교과서도 아무런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단 검정만 받으면 5~6년이 넘도록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검정 제도가 문제이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방안에도 이에 관한 보완책은 빠져 있다. 그 동안 검정 실시 6개월 전에 공표했던 검정 기준을 1년 6개월 전으로 앞당기고, 저작자만 할 수 있던 검정 신청을 발행자, 저작자와 발행자 공동으로 할 수 있게 확대했을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 시대에 뒤지는 교과서 문제를 지적했지만, 교과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게 돼 있다.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꿈일지도 모른다. 지금은 교과서보다 훨씬 재미있고 친절한 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시대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대한 정보가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급되고 있다. 이런 시대에 교과서의 영향력은 미미하며 왜소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학교 붕괴, 교실 붕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공교육의 권위가 추락하고 학교가 학습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는 상황에서는 공교육의 직접적 매개체인 교과서의 권위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 즐거운 학교가 없는데 즐거운 교과서가 있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즐거운 교과서가 없는데 즐거운 학교가 이루어질 수 없다. 요즘 학생들은 모든 것을 컴퓨터에서 구한다. 숙제도 컴퓨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 이런 환경에서 교과서가 해 줄 수 있는 일이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굳이 시대에 뒤지는 통계나 자료를 수록(교과서 집필 당시에는 당연히 최신 자료였겠지만)해 웃음거리가 되기보다는 기초적이고 보편 타당한 내용을 제시하되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학습을 통해 최신 지식을 습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과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일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가 생각하고 연구하도록 소재와 재료를 제공하는 식으로 구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별도의 지도서 참고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 교과서가 교과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에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꿈과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는 교과서 만들기가 공교육 살리기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교과서 유감(有感)

■ 글 / 최봉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상무이사)



이 질이 달라. 우리 건 이게 뭐야? 완전 검은색이에요. 글씨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림도 있고 참고도 있고……. 내용도 좋은 것 같아요.”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새로 개발, 보급된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보고 기존(6차)의 교과서로 공부했던 중학교 2학년의 한 학생이 모 방송사와 인터뷰한 내용이다.¹⁾ 새로운 교과서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다. 교과서를 받자마자 끝까지 읽어 봤다는 학생들도 상당수라고 하니 말이다. 그리고 교과서 내용에 쉽고 재미있는 소재들이 많이 사용돼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다행이다.

나는 내가 대한 교과서(주)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그것도 교과서 편집부에서 오랫동안 일해 왔던 관계로 1999년부터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새 교과서가 개발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이전에도 교과서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는 각각의 개발

기관에서도 꾸준한 노력을 해 왔던 바이지만, 이번 제 7차 교육과정에 적용될 교과서는 어느 때보다도 그 요구가 대단하였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교과서의 지질이나 색도 등을 상향 조정하여 인쇄 효과를 높임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로써 학습 효과와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즉, 외형 체제의 개선에 역점을 둔 것이다. 이는 곧바로 그것을 수행해야 할 대한교과서(주)의 막중한 책무가 되었고, 더 직접적으로는 내게 부과된 일이기도 했으므로 나는 연초 교과서가 나오기까지 여간 마음을 졸이지 않았다. 교과서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사히 학생들의 손에 책이 들려지게 되면 사실 한숨 좀 쉬게도 되는 것인데, 정작 마음 졸이기는 또 이 때부터가 아닌가 한다. 신학기를 맞아 방송이며 신문에서 교과서 관련 뉴스를 내보내고, 거기에 따라 일희일비(一喜一悲)가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 고등 학교 교과서에 실린 사진 한 컷이 문제 되어 시끄러운데, 내가 속해 있는 회사와는 관련 없다고 해도 내 개인적으로는 이 역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앞에서 인터뷰한 학생의 말대로, 7차 교과서는 일단 6차 교과서와 차별화한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딱딱하고 어렵게만 생각되던 교과서가 외형적인 변화와 아울러 내용도 학습자 중심으로 구성하여 지루하지 않게 꾸며졌다. 십자말풀이도 있고, 군데군데 만화도 들어가 있다. 예전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다. 좋은 일이다.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법률²⁾에 의거해서 고시하고 있다. 1954년 교육과정 기준을 처음 만든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교육과정이 바뀌었다. 국가·사회적인 필요와 교육 여건 등의 변화 및 학습 요구에 따라 대략 5년 주기로 바뀌어 왔는데, 각기 시대적, 사회적, 학문적으로 독특한 배경과 요구, 필요가 있었고, 교육 내적인 체제와 기반, 수용 태세, 여건 등의 요인도 있어, 그때 그때 교육과정 기준의 지향점과 특징도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었다.³⁾ 교과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에 맞춰 개발되었으며,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서를 하나의 교과 학습용 자료가 아닌,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유일한 형태로 인식하고 이를 순서대로 빠짐없이 가르쳐 왔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곧 ‘교과서’였던 것이다. 흔히 말하는, 교과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가르쳤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당연히 교과서는 ‘성전(聖典)’이 되었고, 틀린 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으면 옳은 것이 되었다. 그 정도였으니, 오·탈자는 물론이요 띄어쓰기 하나 어긋나는 것도 큰 말썽이 되었다. 모든 것이 체제화되어 있고, 변칙이란 용납되지 않았다. 그것이 교과서였다.

그러던 것을, 이번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다양성, 창의성 실현이 학생들이 아닌

교과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즉, 교과서 발행사에게는 획기적인 편집과 지면 구성이 요구된 것이다. 종래 편집한 사람이 하던 일을 전문적인 북 디자이너가 동원되어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에 참여하게 되고, 최신 인쇄·제작 시스템이 도입되어 활용되었다. 각고의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여전히 미흡한 점은 있겠지만,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편시 요구되었던 외형 체제 개선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달성되었다고 본다. 교과서 개편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된 다음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겠으나, 현재 나타난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여론은 다분히 호의적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주지한 바와 같이 7차 교과서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능력과 창조성 신장에 적합한 교과서’를 목표로 하였다. 개발된 교과서들이 이 목표에 얼마나 부합되고 부응하고 있는지는 앞으로 교과 교육 연구자들의 다양한 분석과 비평이 있어야겠다.

첫째, 아직도 교육계 일부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우려를 놓지 못하고 있다. 우선 물리적인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학습 관련 자료와 도구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교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 ‘잘’ 하라는 것인데, 교과서가 실제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무시하고 너무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았는가 하는 비판이다.

둘째, 한글 맞춤법 규정이 국가 수준에서조차 적용 예가 상이하여 서로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1988년 한글 맞춤법

**교과서는 징검다리다. 꼭 있어야 할 곳에 놓여 있어 딛고 건너야 할
돌멩이이다. 개울에는 향기로운 풀꽃이 있고, 아름다운 나비가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개울을 건너지 못한다. 볼품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할는지 몰라도 꼭 그 자리에 있어
길을 만들고 다음 걸음을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이 고시되기까지는 ‘校正便覽(1964년)’을 교과서 표기의 준칙으로 삼았고, 이후에는 새로 고시된 맞춤법에 따랐다. 그러던 중 1999년 10월, 국립 국어 연구원에서 ‘표준 국어 대사전’을 발간하였다. 그런데 이 ‘표준 국어 대사전’은 사이시옷 문제, 합성 명사의 띄어쓰기, 보조 용언, 표준어, 외래어 표기 등에 있어 교육부에서 교과서에 적용하고 있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⁴⁾ ‘표준 국어 대사전’ 역시 1988년 개정된 한글 맞춤법에 따랐으면서도 이렇듯 다르게 된 것은 한글 맞춤법 자체가 일반 원칙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교과서 개발 담당자들에게 하나의 고민거리였는데, 결국은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참조하여 적용하되, 문제가 있는 부분은 5, 6차 교과서에 적용된 예를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다. 대표적인 것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	표준 국어 대사전	비 고
초등 학교	초등학교	합성 명사
골라 내다	골라내다	보조 용언
하룻동안	하루 동안	사이시옷
팜플렛	팜플릿	외래어

셋째, 교과서의 편집·디자인은 과거의 그것에 비해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 주었고, 새로운 교과서 모델로도 관심을 끌었으나, 아직도 충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지나 본

문의 그림, 일러스트는 질적으로 시중의 단행본 도서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교과서의 특성상 제작 기간이 매우 촉박하고, 수정이 많으며, 단가도 낮은데 이에 참여하려는 삽화가도 많지 않다. 인쇄, 공급 일정에 쫓기다 보면 시쳇말로 땀뻥질이 일쑤다.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창의력 신장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교과서를 만들자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질 높은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까? 당국의 교육 정책이나 교과서 정책에서부터 출판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두루 두루 거론된다. 정부가 교과서에서 손을 떼고 출판사가 자유롭게 교과서를 제작해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교과별 전문 출판사를 육성하여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교과서의 일정한 수준도 확보하여야 한다고도 하고, 기능적인 면에서 ‘좋은 교과서’의 조건을 열거하기도 한다. 모두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들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 교과서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교과서가 무슨 법전처럼 인식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사고 작용을 퇴행시킨다고 보는 모양이다. 꼭 암기해야만 되고, 따라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인간을 대량 생산해 내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무리 넓게 생각한다 해도 이건 좀 지나치지 않나 싶다. 현재 우리의 교육 현실을 두고 여기저기서 원성이 자자하다. 교육 정책과 대안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와도 병폐를 해결할 길은 요원해 보인다. 0교시 수업을 없애자는 데에는 다 같이 공감할 것 같은데도 그것을 못하게 하니 반발하는가 하면, 1교시를 0교시 시간으로 앞당겨 수업하는 학교도 있어 말썽이다. 이러하니 아예 학교 교육 제도 자체를 없애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교과서는 징검다리다. 꼭 있어야 할 곳에 놓여 있어 딛고 건너는 돌맹이이다. 개울에는 향기로운 풀꽃이 있고, 기암괴석이 있고, 아름다운 나비가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개울을 건너질 못한다. 불품없는 돌덩어리지만 그 자리에 있어 길을 만들고, 다음 걸음을 준비하게 한다. 교사들이 직접 만든 이른바 ‘대안 교과서’라는 것도 있다. 전국 국어 교사 모임이 펴낸 ‘우리말 우리글’이 한 예이다. ‘뽁뽁한 글 대신 영화 포스터와 TV 광고 사진을 보며 매체에 나타난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스 밴드의 ‘오락실’을 부르는 수업, 각 지방의 사투리를 배울 수 있고 오세영이 그린 만화로 이태준의 단편 소설 ‘복덕방’을 읽을 수 있는’⁵⁾ 도서이다. 물론 학교에서는 국어의 학습 자료로밖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이러한 형태의 여러 가지 보조 자료가 많이 나와서 교사나 학생들에게 교수·학습 자료로 잘 활용된다면 그것도 발전적인 모습일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는 견인차이다. 교과서는 신성한

것이라든지 교과서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지식) 수준과 양을 담보하고 있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과서 무용론’을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과서를 교과서답게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새학기마다 내 귀와 눈은 온통 신문과 방송에 쏠리고, 때로는 적지않이 당황할 때도 있다. 하지만 내가 매일같이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더라도 나는 교과서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 그럴 때만이 ‘교과서’가 질적, 양적으로 더욱 크게 성장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1) KBS 뉴스 투데이, 2001년 5월 9일

2) 교육법 제 155조

3) 함수근, 「교육과정의 편성」, p. 34 참조

4) 이승구, 「교과서연구」(제 35호), p. 95 참조

5) ohmynews, 2002. 3. 25.

교과서 심의·채택 제도 국제 비교 연구

—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

〈연구 보고서 2001-1〉

이 연구는 여러 가지 교과서 제도를 지닌 나라들의 교과서 채택 및 심의 기준과 절차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교과서 심의 및 채택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한국의 교과서 제도를 개관하였고, 각 나라(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별로 교과서 기본 제도, 교과서 저작의 기본 바탕이 되는 문서, 심의 기준의 종류나 분류, 교과서 심사 업무의 관리 운영 기구, 교과서 검정 신청의 주체, 검정의 대상이 되는 교육용 출판물의 종류,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과 명단의 공개 여부, 검정 심사의 주요 절차, 소요 기간, 검정의 의의, 재검정 제도의 유무, 채택의 주체, 채택 결정의 효력 범위, 교과서 구입 및 사용 제도 등 15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교과서 심의 채택 및 절차와 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검정 업무 주관은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교육부가 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운영하여 왔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검정부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가 협조하여 실시 중에 있다. 미국은 주 교육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교과서의 질 관리를 하는 인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독일은 민간 출판사들이 개발한 교육용 교재를 각 주의 교육부가 심의, 선정하여 교과서 목록을 제시하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서 및 교재를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프랑스는 자유 발행제 및 자유 경쟁체로서 국가적 차원의 교과서 심의 제도 또는 검·인정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은 학교 교육법에 의해 소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등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해서 교과서 검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논의된 시사점을 결론적으로 도출하면, 각국의 교과서 제도는 검정제 혹은 인정제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과서 출판과 질 관리는 전문화된 출판사에 맡겨져 있다. 또한, 심사 및 채택 과정의 민간인 참여 확대와 검정 심사의 정확성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살펴볼 수 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교과서의 70%는 교육과정과 일치하는 일치본을 인정해 주고, 나머지 교과서는 비일치본을 인정하는 점 또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눈여겨볼 만하다. 그리고 다양한 교재가 학교 교육에 쓰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과서 대여제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소비를 줄이며 학생의 입장에서든 근검하는 습관을 길러 주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 박도순 학장님(연구 책임자), 전효선 님, 김명화 님, 인하대학교 홍후조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전자 교과서 설계 지침 및 모형 개발 연구

— 컴퓨터, 영어 교과 중심으로 —

〈연구 보고서 2001-3〉

이 연구는 전통적인 인쇄 종이 교과서의 단점을 보완하여 네트워크화된 교수·학습 환경에서 교수·학습 자료들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형태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나라 교육 환경에 맞는 컴퓨터, 영어 교과 전자 교과서 모형을 개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수준별 교육을 위해 적응적 하이퍼미디어 시스템에 링크 은닉(link hiding)의 적응적 향해 지원 기법(adaptive navigation support)을 적용하였으며, 개발된 교수 설계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설계자는 서로 다른 2가지 종류의 교수 기기(instructional mechanism)인 레슨 설계(lesson planning)와 강의 설계(discourse planning)를 이용하였다. 레슨 설계는 목표 생성, 전략 설계로 나뉘며 강의 설계는 상위 레벨에서의 교수법 의사 결정과 하위 레벨에서의 강의 상태 기반 설계로 구현하였다. 위의 2가지 설계 기기를 결합에 의해 설계자는 개인 교수 세션(session)을 통해 학생에게 전역적으로 일정한 교수와 유연한 강의 응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설계자는 동적 설계 능력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이는 개인 교수 세션(session) 동안 학생이 질문을 중단했을 때 설계를 생성하고 설계의 감시와 실행 및 재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계자는 필요할 때 새로운 설계를 하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설계자는 기존의 컴퓨터 보조 학습(CAI) 시스템에서 생성된 설계되지 않은 교수보다 더 적응적 교수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교수 지식(pedagogical knowledge)은 규칙 집합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시스템은 규칙을 해석하고 학생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넷째, 설계자는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top-down' 설계하였다. 이 기법은 이미 기존의 시스템에서도 구현되었다. 다섯째, 설계자는 학생의 요구를 수행한 후 재설계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전자 교과서 모형은 교사가 미리 정의한 교수·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다른 내용과 링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인쇄 매체의 교과서는 한 번 출판되면 다른 교과서로 바뀔 때까지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학습 내용 및 자료를 제공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본다.

○...이 연구는 전주교육대학교 유정수 님(연구 책임자)과 삼례초등학교 이기종 님, 무주중앙초등학교 박희상 님, 전주문정초등학교 한상석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자 료 / 제 7 차 교육과정의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
(자료 제공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의 변천

기 별	공포(고시)	근 거	교 육 과 정	특 징
1 차	1954. 4. 20. 1955. 8. 1. " " "	문교부령 제 35 호 문교부령 제 44 호 문교부령 제 45 호 문교부령 제 46 호	시간 배당 기준령 국민 학교 교과 과정 중학교 교과 과정 고등 학교 교과 과정	○ 교과 중심 교육과정
2 차	1963. 2. 15.	문교부령 제 119 호 문교부령 제 120 호 문교부령 제 121 호	국민 학교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고등 학교 교육과정	○ 경험 중심 교육과정 · 한문 신설('72) · 교련 신설('69)
3 차	1973. 2. 14. 1973. 8. 31. 1974. 12. 31.	문교부령 제 310 호 문교부령 제 325 호 문교부령 제 350 호	국민 학교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고등 학교 교육과정	○ 학문 중심 교육과정 · 도덕 신설('73) · 국사 신설('73) · 일본어 신설('73)
4 차	1981. 12. 31. " " "	문교부 고시 제 442 호 " " "	국민 학교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고등 학교 교육과정	○ 국민 정신 교육 강조 · 학습량 수준 축소 조정 · 국민 학교 1, 2 학년 교과 통합 운영
5 차	1987. 3. 31. 1987. 6. 30. 1988. 3. 31.	문교부 고시 제 87-7 호 문교부 고시 제 87-9 호 문교부 고시 제 88-7 호	중학교 교육과정 국민 학교 교육과정 고등 학교 교육과정	○ 과학고, 예술고 제정 · 국민 학교 통합 교육과정 제정 · 정보 산업 신설 · 경제 교육 강조 · 지역성 강조
6 차	1992. 6. 30. 1992. 9. 30. 1992. 10. 30. 1995. 11. 1.	교육부 고시 제 1992-11 호 교육부 고시 제 1992-16 호 교육부 고시 제 1992-19 호 교육부 고시 제 1995-7 호	중학교 교육과정 국민 학교 교육과정 고등 학교 교육과정 국민 학교 교육과정	○ 편성 운영 체제 개선 · 국가, 지역, 학교의 역할 분담 · 컴퓨터, 환경, 러시아어, 진로 직업 신설 · 외국어에 관한 전문 교과 신설 · 초등 영어 교과 신설
7 차	1997. 12. 30. 1998. 6. 30.	교육부 고시 제 1997-15 호 교육부 고시 제 1998-10 호 교육부 고시 제 1998-11 호 교육부 고시 제 1998-12 호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특수 학교 교육과정 고등 기술 학교 교육과정	○ 학생 중심 교육과정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구성 · 고등 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구성 ·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 재량 활동의 신설 및 확대 · 지역 및 학교의 자율 재량 확대

제7차 교육과정 개정 경과

추진 내용	시 기	담당	비 고
○ 신 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 - 교육과정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개혁 방안	'95. 5. 31. '95. 8. ~'96. 2. '96. 2. 9.	교육개혁 위원회	· 신 교육과정 골격 마련
○ 교육과정 개정 기본 계획 수립 - 개정안 연구 개발 위탁	'96. 3. 19.	교육부	· 연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 위탁 과제: 8 과제
○ 기초 연구 및 총론 연구 개발 - 교육과정 개정 기초 연구 - 총론 개정 시안 연구 개발	'96. 3. ~12.	연구 기관	· 연구진 및 연구 위원: 146명 · 연구 조사: 2,460명 · 운영 협의: 7회, 408명 · 검토 및 수정·보완: 12회, 444명
○ 합동 협의회, 세미나 및 공청회 - 현장 교원, 관련 학회 등과의 합동 협의회 -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세미나 - 총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	'96. 6. '96. 7. '96. 8.	교육부 연구 기관	· 참여 인원: 106명 · 참여 인원: 300명 · 참여 인원: 600명
○ 총론 시안 검토·수정 - 총론 개정안 심의 - 시·도 교육청, 학교 현장 검토 - 교원 양성 대학, 연구 기관 및 관련 학회 검토 - 수정·보완 집중 작업	'96.11. ~'97. 2.	교육부	· 교육과정 심의회: 13위원회 (운영위 및 학교급별 위원회) · 심의회 개최: 26회 · 심의 위원: 286명 · 15개 시·도 · 연구 학교: 22개교 · 대학, 연구 기관: 41개 기관 · 관련 학회: 11개 학회 · 2회
○ 총론 개정안 확정	'97. 2. 28.	교육부	· 협의, 검토: 총 80회 · 총론 개정 참여 인원: 연4,598명
○ 교육과정 각론 연구 개발 계획 수립 - 각론 연구개발 위탁 - 각론 개발 지침 작성	'96. 12. '97. 1.	교육부	· 연구 기관: 14개 기관 · 위탁 과제: 39과제

추진 내용	시 기	담당	비 고
○ 각론 연구 개발 - 교과별 기초 연구 및 각론 연구 개발 - 교과별 협의회 운영 - 각론 조정 워크숍 - 교과별 세미나(공청회) - 각론 조정 워크숍 - 교과별 세미나(공청회)	'97. 1. ~10. '97. 5. '97. 7. ~8.	연구 기관	• 연구진: 530 명 • 총 124 회(교과 평균 3 회) • 참여 인원: 150 명 • 30 교과, 약 5,000 명 참여
○ 각론 시안 검토·수정 - 각론 개정 시안의 심의 - 시·도 교육청, 학교의 현장 검토	'97. 8. ~9. '97. 10. ~11.	교육부	• 교과별 심의회: 114 소위원회 • 심의위원: 1,508 명 • 심의회 개최: 교과별 2 회 이상 • 현장 검토 위원: 160 명 • 참여 인원: 32 명
○ 종합 심의 및 정리 작업 - 개정안 작성 집중 작업 - 교육과정 심의회 - 전문가 검토·협의	'97. 11. ~12. '97. 11. ~12. '97. 10. ~12.		• 2 회, 260 명 참여 • 4 회, 심의 위원 286 명 • 4 회, 자문 교수 5 명
○ 개정안 보고	'97. 12.	교육부	
○ 제 7 차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고시	'97. 12. 30.	교육부	

◆ 제 7 차 교육과정의 적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초등 학교 1, 2 학년	초등 학교 3, 4 학년	초등 학교 5, 6 학년		
	중학교 1 학년	중학교 2 학년	중학교 3 학년	
		고등 학교 1 학년	고등 학교 2 학년	고등 학교 3 학년

제 6, 7차 교육과정·교과서 비교

◆ 교육과정 비교

◆ 전체적 특징

구 분	이전 교육과정	제 7차 교육과정
개정 특징 및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내용(Software)의 변화에 치중하여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목표와 내용·방법·평가(Software) 및 시설(Hardware), 교원(Humanware) 등을 포함한 교육 시스템의 종합적인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성, 창의성 신장을 위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 ※ 적용: 2000년- 초 1, 2, 2001년- 초 3, 4, 중 1, 2002년- 초 5, 6, 중 2, 고 1
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적 인간 양성 (핵심적 지식 전달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창적, 창의적 인간 양성 (사고력, 창의력 육성 중심)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편적 지식 교사 중심 지식 전수 지필 위주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면적 사회 적응 지식 학습자 중심 탐구 활동 및 자기 주도적 학습 강조 수행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
교육과정의 구조 및 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고 학교급별로 별도의 교육과정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년제 개념에 기초한 교육과정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관성 있게 연계된 교육 실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 과정으로 구성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능력, 개인차에 따른 교육 실시
단위 학교의 편성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의 자율적 편성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 학교 지정 12단위 학교 재량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 3~6: 주당 1시간 중: (없음) 고: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의 교육 내용 재구성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 학교 지정 28단위 이상으로 확대 재량 활동 신설 및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 1~6: 주당 2시간으로 확대 중: 주당 4시간 신설 고 1에 12단위(주 6시간) 신설

◆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 및 선택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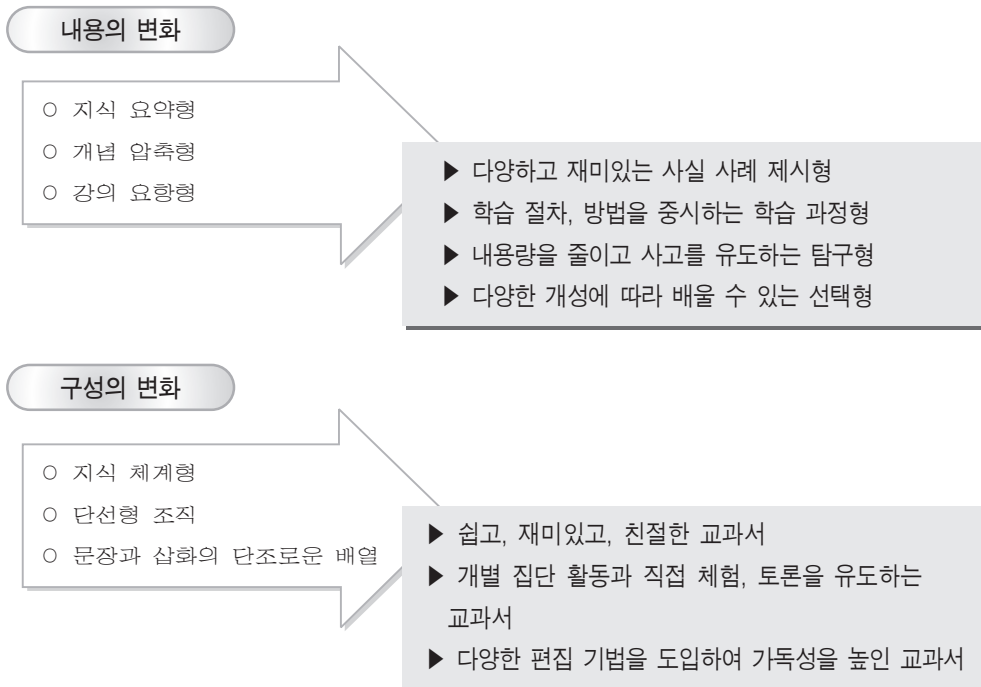
구 분	이전 교육과정	제 7 차 교육과정
필수 교과 축소	• 중: 11 교과	• 10 교과로 축소
	• 고: 10 교과, 70 단위	• 10 교과, 56 단위 - 필수 단위 수 20% 감축 - 필수 학습 요소 30% 감축
선택 과목 확대	• 중: 3 과목	• 생활 외국어 7 과목 신설로 10 과목으로 확대
	• 고: 보통 교과 60 과목	• 79 과목으로 확대하여 학생 선택폭 확대
	• 고: 전문 교과 378 과목	• 445 과목으로 확대하여 학생 선택폭 확대
학기당 이수 교과목 축소	• 초 3, 4: 10 교과	• 9 교과로 축소(5, 6학년은 6 차와 동일)
	• 중: 11 교과	• 10 교과로 축소
	• 고(1학년): 12 교과	• 10 교과로 축소
일반계 고교 과정 구분 폐지	• 과정 구분 - 인문·사회, 자연, 직업 및 기타	• 과정 구분 폐지 - 다양한 유형의 학생 개인별 선택 가능
고교 학생 과목 선택권 부여	-	• 고 2, 3학년 이수 단위 136 단위 중 학생이 28 단위 이상 최대 50%까지 선택 가능
정보화 교육 강화	-	• 정보 통신 기술 교육 강조 • 고교「정보 사회와 컴퓨터」과목 신설

◆ 교과서 비교

◆ 전체적 특징

- ◆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하기에 편리한 교과서
- ◆ 산업 사회의 요구에 따른 획일적·지식 주입식 교육에 적합한 교과서
⇒ 자기 주도적 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교과서
(지식 기반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미래 지향적 교과서)
- ◆ '집필 실명제' 도입을 통한 질 높은 교과서 개발

◆ 교과서 개발 방향의 변화



◆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성 신장

구 분	이전 교육과정	제 7차 교육과정
교과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과옥조형 교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편적 지식 중심 － 성전(Bible)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적 학습 자료로서의 교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력, 사고력을 증시 － 탄력적 운영 방법 제시(지도서)
학습 내용 학 습 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내용 • 학습량 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쉽고 재미있는 내용의 엄선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수준과 학습량의 조정 • 학습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되는 내용의 삭제
학습 방법 학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제시 미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된 교수·학습 방법 • 학습 활동 유형화 미흡 • 학생 수준을 고려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학습 모형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미디어 활용 유도 • 자기 주도적 학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학습 전략 제시 • 열린 발문, 상상을 통한 사고력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경험, 구체적 조작의 증시 － 놀이 활동을 통한 즐거운 학습 유도 • 교과 특성에 따른 수준별 학습 내용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심화·보충 내용 제시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서에서만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진단 평가 문항 제시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평가, 상호 평가 자료 제시
삽화 편집 (외형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의 내용을 해설하는 단순한 삽화 기법 사용 • 단색 위주 • 국판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색 기법 및 형식의 다양성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적, 회화적, 추상적 기법 도입 •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편집 체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화, 사진, 그래픽, 날개형 지면 구성 등 • 2도 이상의 4X6배판(교과서 크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집, 디자인 전문가 참여
학생 반응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미 없고 싫증남. • 운영 방법 제시 미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탐구 등 학생의 적극적 참여 유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위임 사항

◆ 위임 근거

- 초·중등 교육법 제 23 조 제 2 항
-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 호 '97. 12. 30.)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7 조 제 6 호
(교육감 관장 사무 중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 편성·운영 업무 역할 분담과 위임 체계

- ◆ 교육인적자원부 ⇒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고시
- ◆ 시·도 교육청 ⇒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 제시
- ◆ 지역 교육청 ⇒ 실천 중심 장학 자료 작성 제시
- ◆ 학교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사항

- (1) 추구하는 인간상 설정 제시에 관한 사항
- (2)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 (3) 학교급별 목표에 관한 사항
- (4)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에 관한 사항
- (5)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
- (6) 고등 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
- (7) 교육과정 평가와 질 관리를 위한 학생 학력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 (8) 교과별 '절대 평가 기준'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 (9) 교과별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국가 기준 제시에 관한 사항

◆ 시·도 교육청 위임 사항


- (1)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시간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2)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교육 중점에 관한 사항
- (3)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4) 중학교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 시간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5) 고등 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6) 교육과정에 표시되지 않은 교과목의 신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
- (7) 고등 학교의 계열, 학과의 신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
- (8) 일반계 고등 학교의 과정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9)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 학교의 전문 교과 이수 단위에 관한 사항

- (10)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 학교의 전문 교과 실험·실습에 관한 사항
- (11) 실업계 고등 학교의 현장 실습에 관한 사항
- (12) 고등 학교 총 이수 단위 수의 증배 운영에 관한 사항
- (13)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 (14)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 (15) 조기 입학, 조기 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 (16) 특수아 및 귀국자 자녀의 교육에 관한 사항
- (17) 학교 교육과정의 작성 절차 및 체제에 관한 사항
- (18) 독서 목록 작성·활용에 관한 사항
- (19)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와 질 관리에 관한 사항
- (20)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21) 특성화 고등 학교, '2·1 체제' 운영 공업 계열 고등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22)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관련 각급 학교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 (23) 증학교 선택 과목, 고등 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관련된 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24)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각종 교수·학습 자료 연구, 개발·보급 및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관한 사항
- (25) 고등 학교 보통 교과의 선택 교과에 대한 기준 단위 증감 운영에 관한 사항
- (26) 고등 학교 총 이수 단위의 증배 운영에 관한 사항
- (27) 특별 활동의 영역별 이수 시간(단위) 편성에 관한 사항
- (28) 일반계 고등 학교 선택 과목 지정(136 단위 중 28 단위 이상 지정)에 관한 사항
- (29)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 (30)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 시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31) 교육과정에 예시된 선택 과목 이외의 과목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32) 각 고등 학교가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및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시설을 통한 이수 과정 인정에 관한 사항

◆ 지역 교육청 위임 사항

- (1) 지역의 특수성에 바탕한 중점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 (2)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교육 자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학교 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협조에 관한 사항
- (4) 학교 간 교원의 순회 및 수급 협조에 관한 사항
- (5) 학교 간 교육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 (6)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7)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에 관한 사항
- (8)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지역별 교원 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
- (9)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자료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 (10) 학생의 배정, 교원의 원활한 교류,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에 관한 학교 간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 (1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 시범 학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12)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실천 과정 확인, 평가에 관한 사항

◆ 단위 학교 위임 사항

-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2) 교과 시간 편성에 관한 사항
- (3) 월별, 주별 수업 시간 수 배정 편성에 관한 사항
- (4) 학년, 학급, 교과목별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 (5) 재량 활동 시간 편성에 관한 사항
- (6) 특별 활동 시간 편성에 관한 사항
- (7) 교육과정에 예시된 이외의 과목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8)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9)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 편성에 관한 사항
- (10)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차상급 단계의 진급을 위한 자격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11) 교과용 도서 이외의 심화·보충 학습 자료 개발, 사용에 관한 사항
- (12) 특별 보충 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13)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 개설에 관한 사항
- (14) 교과 교육 내용의 재구성에 관한 사항
- (15) 일반계 고등학교의 과정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16)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 지정(136 단위 중 28 단위 이상)에 관한 사항
- (17)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학과별 필수 과목 지정에 관한 사항
- (18)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학습의 현장 실습 대체 운영에 관한 사항
- (19) 교육과정에 명시하지 않은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새로운 과목 설정 운영에 관한 사항
- (20)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 

알림

고(古) 교과용 도서 수집

우리 연구재단은 국내 유일의 교과서 전문 연구 기관으로 추억과 향수가 깃든 고(古) 교과용 도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증해 주신 자료는 『교과서정보관』에 비치하여 교과서 연구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역사적 자료로 소중히 보존하겠습니다

- 대 상: 전 교과용 도서(교과서, 인정 교과서, 지도서, 참고서, CD, 테이프 등)
- 수 량: 제한 없음.
- 기 간: 수시 접수
- 보 상: 기증자에게는 '기증서' 교부와 아울러 명단을 영구히 보존하고, 희귀본일 경우 실비 보상도 할 수 있음.
- 연락처: (우) 135-936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1-11 서울빌딩 6층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담당자 앞
Tel: (02) 501-9103(대), Fax: (02) 501-9105

교과용 도서 보상금 지급 기준

—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1-168호(2002. 1. 3.) —

- 적용 기간은 1년(2002. 1. 1. ~2002. 12. 31.)으로 함.
- 보상 대상은 교과용도서예관규정(대통령령 제 16841 호) 제 2 조에서 규정한 교과서·지도서 및 인정 도서와 이를 보완하는 보완 교재로 함.
- 교과서, 지도서, 인정 도서 및 그 보완 교재별로 각각 보상함.
-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되, 음악 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저작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 지급함.
-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1만 부 기준)

저작물별		보상 기준	보상 금액	비 고
어문 저작물	산문	200 자 원고지 1 매	630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 편 이상 1 편 이하	6, 310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 편 이상 1/2 편 미만	3, 150원	
		1/4 편 미만	1, 890원	
음악 저작물		1/2 편 이상 1 편 이하	4, 060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 편 이상 1/2 편 미만	2, 030원	
		1/4 편 미만	1, 210원	
미술·사진 저작물		1/2 쪽 이상 1 쪽 이하 크기	6, 200원	
		1/4 쪽 이상 1/2 쪽 미만 크기	3, 100원	
		1/4 쪽 미만 크기	1, 860원	

※ 최저 1만 부 이하는 1만 부로 하고, 1만 부 초과부터 발행 부수에 비례함.

※ 보상 금액은 2000~2001년 2년간의 교과서 가격 인상률과 소비자 물가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7%를 인상한 것이며, 원 단위는 절사함.

NEWS

연구재단 소식

✧ 이사회 개최

○...우리 연구재단은 2001년 12월 1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 2001년도 출연금 기본 재산 편입 승인
- 2001 회계년도 추가 경정 예산 승인
- 2002 회계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 교과용 도서 공급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우리 연구재단은 2002년 2월 2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 2001 회계년도 결산 승인
- 2002년도 기금 출연 금액 확정 보고

✧ 2002학년도 1학기 초·중·고 교과서 공급

○...우리 연구재단은 2002학년도 1학기 교과용 도서를 2월 23일 각급 학교에 공급 완료하였다. 이번 학기에 공급한 교과서는 유치원 13천 부, 특수 172천 부, 초등 59,091천 부, 중등 47,564천 부 등 총 106,840천 부에 이른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행사, 교육 행정 기관 및 각급 학교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린다.

✧ 발행사 2002학년도 1학기 교과용 도서 기증

○...우리 연구재단은 각급 학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02학년도 1학기 교과용 도서를 발행사로부터 기증받아 '교과서 정보관'에 비치,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교과용 도서 기증에 협조하

여 주신 (사)한국2종교과서협회, 대한교과서(주),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주)교학사, (주)두산, (주)지학사, (주)천재교육, 향우산업(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조사 연구 사업 추진

○...우리 연구재단은 2002년도 조사 연구 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과제와 발행사 및 관련 연구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연구 과제를 확정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연구를 위탁하여 추진한다. 금년도에 추진하게 될 연구는 5개 과제로서 약 8천만 원의 연구비가 지원될 것이다.

✧ 2002년도 출연금 납입

○...우리 연구재단은 교과서 발행사로부터 2002년도 출연금을 출연받아 기본 재산에 편입 조치하기로 하였다. 금년도의 출연금은 대한교과서(주)가 353,340천 원, (사)한국2종교과서협회가 246,660천 원으로 총 6억 원이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기금을 계속 출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린다.

✧ 재단 운영 및 결산에 대한 감사 실시

○...우리 연구재단의 2001회계년도 운영 및 결산에 대하여 '안전 회계 법인'은 2002년 1월 31일부터 2월 9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다. 금번 감사 결과 우리 연구재단 운영 및 결산이 기업 회계 기준과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적절하다는 감사 의견을 받은 바 있다.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교과서 상설 판매장(공통)

-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1동 826-14
진솔문고 내
- 전화: (02) 3466-2528

✱ 한국2중교과서협회(중·고 2종 교과서)

- 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3-11
- 전화: (02) 3663-4292~3
- 자동응답 안내전화: (02) 3663-5409~12,
3663-9120~2
- 홈페이지: <http://www.textbook2.co.kr>

✱ 대한교과서주식회사(초·중·고 1종 교과서)

- 장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44-12
- 자동응답 안내전화: (031) 735-8105,
(041) 861-3183
- 홈페이지: <http://www.daehane.com>

✱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중·고 1종 교과서)

- 장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77-1
- 전화: (02) 2296-4590, 2296-8000
- 홈페이지: <http://www.edutopia.com>

✱ (주)교학사(고 1종 교과서)

- 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67
- 전화: (02) 701-6371
- 홈페이지: <http://www.kyohak.co.kr>

✱ (주)두산(고 1종 교과서)

-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18-12
두산타워 20층
- 전화: (02) 3398-2700
- 홈페이지: <http://www.dong-a.com>

✱ (주)지학사(고 1종 교과서)

- 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80-20
- 전화: (02) 330-5302
- 홈페이지: <http://www.jihak.co.kr>

✱ (주)천재교육(고 1종 교과서)

- 장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8
- 전화: (02) 3282-1773, 3282-1775
- 홈페이지: <http://www.chunjae.co.kr>

✱ 항우산업주식회사(고등학교용 교련 교과서)

- 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3
항군회관 3층
- 전화: (02) 2203-6601~2

※ 기타 지역별 개별 판매 서점 및 구입 신청
방법은 각 발행사에 문의바랍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부설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교과용 도서 개발의

기획·집필·편집·제작을 담당하는 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보유 자료

구 분	국 내	국 외	계
교과용 도서	16,057	4,675	20,732
일반 자료	1,891	—	1,891
계	17,948	4,675	22,623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집트, 중국 등의 교과용 도서 보유

열람 시간

구 분	기 간	시 간
평 일	3~10월	10:00~17:00
	11~2월	10:00~16:00
토요일	1~12월	10:00~12:00

* 공휴일 휴관

교통편

- * 전 철 ▶ 강남역(2호선) 2번 출구로 나와 진솔문고, LG 주유소를 지나 우성[㉠] 사거리 코너 건물
- * 일반 버스 ▶ 17, 66, 68, 78-1, 78-3, 83-1, 97-2, 239-1, 414 역삼동 하차, 33-1, 289-1 우성쇼핑센터 하차
- * 좌석 버스 ▶ 45, 45-2, 46, 736-1, 910, 916, 1005, 1005-1, 1005-3 역삼동 하차

● 찾아오는 길 ●

